

古典學派에 있어서의 農業地代論과 價值法則

—Paul A. Samuelson의 「리카도 土地價值說」에 對하여—

愼 鏞 厦

<目 次>	
I. 序	1. 價值規定과 土地
II. 새뮤얼슨의 「리카도 土地價值說」	2. 價值法則과 地代
1. 勞動과 土地의 價值決定	3. 「리카도」價值論의 二側面
2. 價值決定과 資本 및 時間	IV. 새뮤얼슨批判
3. 「새뮤얼슨」의 「리카도」解釋方法	1. 「새뮤얼슨」批判(Ⅱ)
III. 古典學派에 있어서 地代와 價值法則	2. 「새뮤얼슨」의 貢獻
——「새뮤얼슨」批判 I——	V. 結 語

I. 序

古典學派는 經濟學을 科學으로서 確立시킨 榮譽를 가지고 있으며, 現代의 모든 經濟理論의 準據基準(frame of reference)으로서의 意義를 가지고 있다.⁽¹⁾ 그것은 古典學派 以後 現代에 이르기 까지 모든 經濟理論의 發展이 古典學派를 發源으로 하여 그로부터 배우고 그를 批判하고 그를 克服함으로써 進展되어 왔다는 意味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面에서 古典學派의 經濟學은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問題를 提起시켜 준다.

古典學派經濟學의 核心은 價值論이었다. 價值論은 古典派經濟學의 가장 基本的 課題로서 이 곳에 모든 經濟學者의 精力이 集中되었으며 이를 둘러싸고 모든 經濟學者의 理論的 實踐的 論戰이 激烈하게 展開되었다. 마치 法律學에 있어서의 正義, 自然科學에 있어서의 重力의 法則과 같이 經濟學에 있어서는 價值論이 가장 核心的 問題를 차지하고 있었다.⁽²⁾

從來의 學說에 의하면 古典經濟學의 價值論은 勞動價值說 (labour theory of value)로서

(1) 古典學派라고 말할 때 그 範圍를 어떻게 限定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學者에 따라 여러가지 見解가 있다. 極端의 例로서 「케인즈」는 自己 以前의 모든 著作을 「古典」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여기서는 가장 一般的인 類型에 따라 重農學派以後부터 「J. S. 밀」까지 政治經濟學을 科學으로 確立시킨 先驅者들의 著作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暫定的으로 定義한다.

(2) 崔文煥『經濟學史』1959, p. 164. 古典派價值論의 問題點에 대한 正統的解說로서는 同書 第6章~第10章을 參照.

定立되었다. 「아담 스미드」는 『勞動이 모든 財貨의 交換價値의 眞實한 尺度이다』⁽³⁾ (Labour is the real measure of the exchangeable value of all the commodities) 라는 命題를 定立하여 勞動價値說의 最初의 主唱者가 된다. 그러나 「아담 스미드」의 勞動價値論에는 「投下 勞動價値說」 (embodied labour theory of value) 과 「勞動—非効用說」 (labour-disutility theory of value) 「支配勞動價値說」 (commanded labour theory of value) 이 混合되어 있으며, 本來의 勞動價値說인 投下勞動價値說을 一般的 價値法則으로 確立시키지 못하였다. 그는 「投下勞動量」과 「支配勞動量」을 同一視하고 있었기 때문에 本來의 勞動價値說은 資本蓄積이 없고 土地私有가 없는 初期未開社會狀態에서만 可能하며, 資本의 利潤이 存在하고 土地의 地代가 存在하게 된 以後에는 財貨의 價値는 投下勞動量과는 一致하지 않으며, 그 商品을 가지고 支配 내지 購買할 수 있는 他人의 勞動量 즉 支配勞動量에 의하여 測定할 수 있다고 하여 「支配勞動價値說」의 立場을 取하였다. 古典學派體系內에 있어서는 「아담 스미드」의 遺産中에서 「支配勞動價値說」은 「토마스 로버트 말더스」를 거쳐 「J. S. 밀」에 이르러서 「一般生産費說」 (general cost theory of value) 로서 發展되었으며, 「投下勞動價値說」은 「데이비드 리카도」에 의하여 繼承되어 純粹한 勞動價値說로서 確立되었다.

「데이비드 리카도」는 「스미드」의 두개의 見解인 投下勞動價値說과 支配勞動價値說을 檢討한 後에 『한 財貨의 價値 즉 그 財貨와 交換되는 다른 어떤 財貨의 數量은 그 生産에 必要한 相對的 勞動量에 의하여 決定되는 것이며 그 勞動에 對하여 支拂되는 報酬에 의하여 決定되는 것이 아니다』⁽⁴⁾ 라는 命題를 定立하여 支配勞動價値說을 排除하고 投下勞動價値說을 一般的 價値法則으로 確立시키었다. 「리카도」는 그의 勞動價値法則을 「스미드」가 그 適用에 失敗한 資本이 蓄積되고 土地가 私有된 資本主義社會에 適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經濟社會의 分配法則을 밝히는 基本原理로 삼았다. 「리카도」는 資本을 蓄積된 過去勞動으로 解消시키고, 利潤의 成立과 變動이 價値法則의 一般化를 阻止하는 것이 아님을 論證하였다. 또한 時間을 導入할 경우에는 各產業에 있어서 固定資本과 流動資本의 結合比率이 각각 相異하고 固定資本의 耐久力の 差異로 말미암아 價値法則에 어느程度 修正을

(3) Adam Sm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edited, with an introduction, notes, marginal summary and an enlarged index by Edwin Cannan, with an introduction by Max Lerner; (Modern Library Edition), 1937, p. 30. 以下 *Wealth of Nations* 라고 略함.

(4) David Ricardo,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with introduction by Michael P. Fogarty; (Everyman's Library Edition) 1957. p. 5. "The value of a commodity, or the quantity of any other commodity for which it will exchange, depends on the relative quantity of labour which is necessary for its production, and not on the greater or less compensation which is paid for that labour." 以下 *Principles* 라고 略함.

加하여야 하지만 그 修正의 程度는 매우 微微한 것이며 그의 勞動價値法則의 普遍妥當性에 支障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主張하였다. 또한 土地의 私有에 따르는 地代의 發生이 그의 價値法則의 適用을 沮止하지 않는가의 問題에 대해서는 그의 有名な「差額地代論」(theory of differential rent)을 展開함으로써 矛盾없이 解決하였다. 그리하여 「리카도」는 經濟學說史上 古典經濟學의 完成者로서 또한 勞動價値說의 確立者로서의 地位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이 대체적으로 定說로 되어 있는 解釋이며, 거의 모든 古典學派의 研究者들이 「리카도」를 勞動價値說의 主唱者로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最近 미국의 著名한 經濟學者인 「새뮤얼슨」(Paul A. Samuelson)은 「리카도經濟學의 近代의 處理」⁽⁵⁾라는 論文을 發表하여, 「리카도」의 勞動價値說은 勞動만을 生産要素로 考慮할 경우에는 成立하지만 一旦 土地와 資本을 生産要素로서 考慮에 넣으면 「리카도勞動價値說」은 崩壞되며 「리카도土地價値說」이 成立된다는 見解를 發表하였다. 從來 리카도勞動價値說의 難問題는 資本 및 時間의 存在에 의하여 發生하는 것이며 土地 및 地代의 存在는 困難을 惹起하는 것이 아니라고 看做되어 왔으나, 「새뮤얼슨」은, 이것은 重大한 錯誤이며 土地의 存在야 말로 勞動價値說을 崩壞시키는 本質的 要素라는 見解를 發表하고 있다. 「새뮤얼슨」에 의하면, 「리카도」의 「差額地代論」은 「리카도」의 勞動價値說을 矛盾없이 成立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그는 도리어, 土地를 考慮할 경우에는 本源의 生産要素는 土地 뿐이며 「리카도」의 價値論은 「勞動價値說」이 아니라 「土地價値說」이라고 解釋하고, 「레온티에프」體系를 適用함으로써 모든 價値・價格을 「直接・間接의 投下土地量」(embodied land content)으로 分解시키고 있다.

「새뮤얼슨」은, 「리카도」體系에 있어서 모든 財貨의 價値는 「投下土地量」으로써 가장 正確하게 測定할 수 있고, 財貨의 價値의 本源의 要素는 「土地」이며, 따라서 土地야 말로 財貨의 交換價値의 唯一한 「不變의 尺度」라고 主張한다. 『近代理論과 數學은 「리카도」와 其他의 賢明한 經濟學者들이 일찌기 發見했어야 하리라고 생각되는 다음의 事實을 論證할 수 있다. 즉 勞動價値說에 대한 基本的 困難은 資本의 有機的 構成의 問題로 부터 發生할 뿐 아니라 差額地代論으로 부터도 發生한다는 事實이다』.⁽⁶⁾ 『數學을 使用함에 의해서 우리는 若干의 興味있는 結論을 導出할 수 있다. 즉 生存資金과 同質의 土地를 包含하는 長期「리카

(5) Paul A. Samuelson, "A Modern Treatment of the Ricardian Economy" (Part I),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February, 1959. 및 (Part II),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ay, 1959.

(6) Paul A. Samuelson, *ibid.*, Part I.

도」體系는 「勞動은 交換價値의 原因이며 그 尺度이다」라는 文章에 있어서 「勞動」을 「土地」로 代置하여 그 自身の 體系에 適用할 수 있다. 財貨는 數學的으로 定義可能한 「投下」土地量에 比例하여 交換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土地用役 (land service) 은 財貨의 「絕對價値」를 完全히 正確하게 測定할 수 있는 「不變의 價値尺度」(invariable standard of value) 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提供해 준다」⁽⁷⁾. 그리하여 『우리는 勞動이 絕對的 價値尺度임을 否認함으로써 「리카도」를 轉倒시켜 「리카도」의 가장 單純한 長期「모델」中에서 「土地價値說」(land theory of value)을 發見할 수 있다.』⁽⁸⁾

「리카도」經濟學의 長期體系를 勞動價値說이 아니라, 本質的으로 「土地價値說」이라고 解釋하는 「새뮤얼슨」의 見解는 興味있는 하나의 異說이다. 왜냐하면 「리카도」生存時부터 오늘날까지 「리카도」勞動價値說에 대한 批判과 攻擊이 1世紀餘에 걸쳐 反復되어 왔지만, 그 大部分이 資本과 時間을 導入할 경우에 投下勞動量이 財貨의 交換價値를 얼마나 正確하게 測定해 줄 수 있는가 하는 相對價格의 測定問題로서 批判하여 온 것이며,⁽⁹⁾ 土地를 導入하여 「리카도」의 勞動價値法則을 轉倒시켜서 그것을 土地價値說이라고 解釋한 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새뮤얼슨」이 처음이기 때문이다.⁽¹⁰⁾

만일 「새뮤얼슨」의 「리카도」經濟學에 대한 새로운 解釋이 正確하고 妥當한 것이라면, 「리카도」에 대한 從來의 正統的 解釋과 經濟學說史上的 體系는 相當한 修正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本稿는 먼저 ① 「새뮤얼슨」의 「리카도土地價値說」이 어떠한 方法으로 成立된 것이며, ② 「새뮤얼슨」의 새로운 解釋이 「리카도」를 비롯한 古典學派의 經濟理論과 어떠한 關係를 갖고 있는가를 보기 위하여 특히 古典學派에 있어서 土地의 占有에 의한 地代의 發生과 價値法則과의 關係를 再檢討하고, ③ 끝으로 「새뮤얼슨」의 所論이 어느程度 妥當한 理論

(7) Paul A. Samuelson, *ibid.* Part I.

(8) Paul A. Samuelson, *ibid.* Part I.

(9) 예컨대, 「리카도」生存時的 가장 古典的인 批判으로서 는, Samuel Bailey (1791~1870), *A Critical Dissertation on the Nature, Measures, and Causes of Value; Chiefly in Reference to the Writings of Mr. Ricardo and his Followers*, London 1875. 最近의 것으로는, George Stigler, "Ricardo and the 93% Labor Theory of Value"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58, 및 Donard F. Gordon, "What was the Labor Theory of Value?"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59.

(10) 「새뮤얼슨」은 스스로, 「리카도」의 差額地代論을 嚴密하게 다루어 土地價値說을 主張한 것은 낡은 文獻과 새로운 文獻을 다 찾아보아도 自己가 처음임을 自負하고 있다. 오직 그 先驅的 論議로서 단 하나 例外的인 것으로서는 Ragnar Frisch, "Einige Punkte einer Preistheorie mit Boden und Arbeit als Produktionsfaktoren," *Zeitschrift für Nationalökonomie*, III, (Sept. 25, 1931), 62—163. 을 들고 있다. 「새뮤얼슨」은 Ragnar Frisch 가 線型計劃이 發展되기 前에 이 問題를 適切하게 定式化하였다고 하여 "훌륭한 業績"이라고 激讚하고 있다. Paul A. Samuelson, *ibid.*, Part I.

인가를 檢討하여 보려고 한다.

II. 「새뮤얼슨」의 「리카도土地價値說」

1. 勞動과 土地의 價値決定

「새뮤얼슨」論文은 2部로 나누어져 있는 바, 그 第1部는 生産要素로서 勞動과 土地만을 考慮할 경우에 있어서의 勞動價値說의 崩壞와 「土地價値說」의 成立을 論證하고 있으며, 그 第2部는 資本과 時間, 따라서 利子率을 導入할 경우의 勞動價値說의 失敗와 「土地價値說」의 貫徹을 論證하고 있다. 資本과 時間을 導入할 경우에 「리카도」自身이 價値修正論을 展開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周知의 事實이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주로 勞動과 土地를 導入할 경우에, 「새뮤얼슨」이 어떻게 「土地價値說」을 證明하는 「數學的 解」를 얻었으며 어떠한 方法으로 「리카도 土地價値說」이 成立되었는가를 먼저 약간 자세히 檢討하기로 한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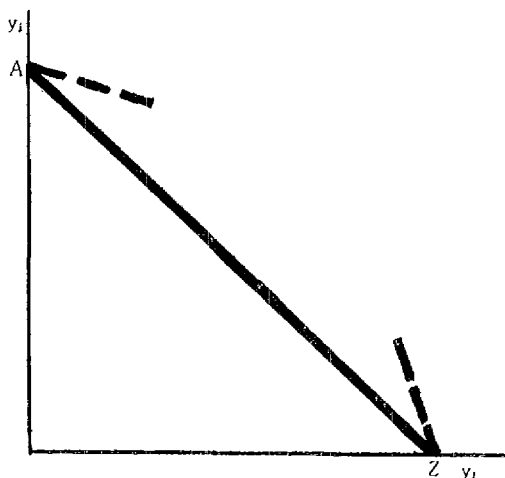
I

1) 「새뮤얼슨」에 의하면, 近代의 分析方法과 數學을 使用하여 「리카도」經濟學을 分析하여 볼 때, 土地가 稀少하고 資本이 蓄積된 社會에 있어서는 어떠한 方法으로라도 生産要素로서의 「土地」 및 要素費用으로서의 「地代」를 迴避할 수 없다. 「리카도」와 그 追從者들은 「差額地代論」에 의하여 外延的耕作限界 (extensive margin) 에 到達함을 想定함으로써 土地 및 地代와 關係없이 「勞動價値說」이 成立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外延的耕作限界에 나아간다고 해서 우리는 實際로 ‘生産要素로서의 土地를 除外하거나 費用 및 交換價値의 決定要因으로서의 地代를 除外하거나’ 할 수 없다. 왜냐하면 外延的耕作限界 그 自體가 하나의 變數이며, 그것은 다른 均衡變數와 마찬가지로 理論家의 明白한 課題의 一部로서 決定되어야 할 變數이기 때문이다.』⁽¹²⁾

「勞動」과 함께 「土地」라는 또하나의 生産要素를 導入하여, 土地에 대해서 同質性을 假定하고 勞動에 대해서 生存賃金(subsistence wage)을 假定하여, 다음에 展開하는 方法으로 數學的 處理를 하면, 本源의 生産要素는 「土地」만으로 되며, 모든 財貨가 數學적으로 定義 가능한 그들의 投下土地量(embodied land content)에 比例하여 交換됨을 나타낼과 同時에

(11) 數學的 方法에 興味가 없는 분은 第2章의 第1,2節을 省略하고 第3節 「새뮤얼슨의 리카도 解釋方法」을 바로 읽어도 「새뮤얼슨」의 所論의 要點을 理解하는데는 支障이 없을 것이다.

(12) Paul A. Samuelson, *ibid.*, Part I.



<圖 1 第>

「土地」야 말로 財貨의 「絕對價值」를 完全히 正確하게 測定할 수 있는 「不變의 價值尺度」임을 나타내는 어떤 「數學的 解」를 얻을 수 있다. 이 「數學的 解」는 ① 資本의 有機的 構成의 相異함 ② 여러가지 다른 生産過程에 있어서의 時間의 相異함 ③ 또는 서로 다른 生産過程에 使用되는 直接的 土地의 比率의 相異함에 關係없이 成立한다. 따라서 이러한 「數學的 解」를 얻으면 그의 「리카도 土地價值說」은 證明되는 것이다.

2) 「새뮤얼슨」은 먼저 單一의 本源的 生産要素의 경우에서 부터 出發한다. 肥沃한 土地

가 稀少하지 않고 資本財를 考慮할 必要가 없는 單純한 社會에 있어서는 「單一의 本源的 生産要素의 理論」(one-primary-factor theory)이 適合한 것이다.⁽¹³⁾ 「스미드」나 「리카도」는 이 單一의 生産要素를 「勞動」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새뮤얼슨」에 있어서는 그것은 어떠한 單一要素라도 좋다. 즉 그것이 勞動이든지 土地이든지 또는 一定의 勞動과 土地로 된 한자루의 道具이든지 또는 간단히 一定의 總量 x 이든지 아무래도 좋다. 만일 n 個의 財(사슴, 물개, …… 또는 $y_1, y_2, \dots, y_n$)의 各各이 그에 適用되는 各要素投入 $x_1, x_2, \dots, x_n$ 와 關聯하여 規模에 대한 收穫不變의 狀態에서 生産된다고 한다면 그 生産函數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y_1 = \frac{1}{a_1} x_1, y_2 = \frac{1}{a_2} x_2, \dots, y_n = \frac{1}{a_n} x_n \dots \dots \dots (1)$$

여기서 「生産係數」(coefficients of production) ($a_1, a_2, \dots, a_n$)는 모두 正 (positive) 이다. 그리하여 「새뮤얼슨」의 生産可能性 (또는 機會費用) 曲線은 모두 非負의 x 와 y 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된다.

$$x_1 + \dots + x_n = a_1 y_1 + \dots + a_n y_n \leq x \dots \dots \dots (2)$$

(13) 「새뮤얼슨」의 「單一의 本源的 生産要素의 理論」은 古典學派에 있어서는 「一元論의 價值論」을 意味하는 것이다. 讀者는 「새뮤얼슨」이 처음부터 「價值」와 「價格」을 區分하지 않으며, 또 모든 生産要素는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모두 價值 또는 價格의 構成要因이 된다고 前提하고 있음에 特히 注意할 必要가 있다. 「새뮤얼슨」에 있어서는 要素費用은 모두 價值의 決定要因이며 生産費가 바로 價值로 된다. 이 점에서 그는 처음부터 生産費價值說의 立場에서 「리카도」 價值論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技術은 活潑한 完全競爭을 成立시키는 데 有利하며,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確定的인 價格比率로써 다른 사람들 및 自然과 去來한다. ⁽¹⁴⁾

$$p_1 \leq wa_1, p_2 \leq wa_2, \dots, p_n \leq wa_n \dots\dots\dots (3)$$

위에서 w 는 單一生產要素 x 의 賃金이다. 不等式的 成立은 各各의 $y_i = 0 = x_i$ 인 것을 意味한다. 즉 財貨가 生産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各財의 價格=生産의 要素費用이 되지만, 産業이 閉鎖되는 때에는 財의 價格이 要素費用 以下로 된다. (第1圖에 있어서 點線의 價格이 截片에 있어서 傾斜하고 있다는 것에 注意하라.) 그리하여, 만일 우리가 y_1 및 y_2 가 生産되고 y_3 및 y_4 가 生産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技術만으로 부터 (from technology alone) 다음의 關係를 豫測할 수 있다. ⁽¹⁵⁾

$$\frac{p_2}{p_1} = \frac{a_2}{a_1}, \quad \frac{p_3}{p_1} \leq \frac{a_4}{a_1}, \quad \frac{p_3}{p_1} \leq \frac{a_4}{a_1}, \quad \frac{p_4}{p_3} \geq \frac{a_4}{a_3}$$

「새뮤얼슨」에 의하면, 勞動價値說의 批判者와 擁護者는 모두 다음과 같은 事實을 看過하였다. 즉 單一生產要素假說의 操作的 意義 (勞動價値說의 意義)는 그것이 技術의 知識만으로부터 價格行動에 關한 廣範圍한 豫測을 可能케 한다는 事實에 있음을 看過한 것이다 ⁽¹⁶⁾. 「새뮤얼슨」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a_1, a_2, \dots, a_n, x$ 의 값을 알았다면 그는 그 經濟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의 大部分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大部分이지 全部를 안 것은 아니다. 達成可能的 實物消費의 現實을 깊이 把握하고 完全히 正確한 價格豫測을 하기 위하여서는 다시 需要側을 考慮하여야 하며, 그 背後에 있는 어떤 主觀의 兩數를 알 必要

(14) 이 方程式 (3)은 勞動의 賃金 즉 勞動費用만으로 된 生産費方程式이다. 「새뮤얼슨」은 勞動價値論의 數學的 方程式을 이 式으로 表示하고 있으나 이것은 가장 單純한 경우의 生産費方程式이며 勞動價値論의 數學的 表式과는 無關하다. 이 점에서 「새뮤얼슨」은 처음부터 잘못 出發하고 있다. 利潤과 地代가 生産費로 計上되는 경우에도 勞動價値論에 있어서는 價値는 오직 投下勞動量으로만 測定되므로 生産費方程式으로써 價値의 方程式을 도저히 表示할 수 없는 것이다. (우연히 勞動만이 費用이 되는 特殊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그리하다.) 따라서 이 方程式(3)은 例外的인 경우에 不過하다.

(15) 이 關係式은 勞動投入係數 a_1, a_2, a_3, a_4 를 가지고 價格 p_1, p_2, p_3, p_4 의 諸關係를 豫測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새뮤얼슨」은 이 關係式을 가지고 勞動價値說이 價格을 豫測하는 表式으로 使用하고 있으며, 勞動價値說의 意義를 需要에서 獨立하여 技術係數 a_i 만으로 價格을 豫測할 수 있다는 事實에서 구하고 있다.

(16) 「새뮤얼슨」은 勞動價値說의 意義가 需要條件으로부터 獨立하여 價格에 關한 技術의 豫測을 可能케 한다는 事實에 있음을 여러 곳에서 強調하고 있다. 예컨대 結論에서는, Rather is the simple labor theory of importance because it permits of a wide class of predictions concerning price behavior from a knowledge of technology alone. This does not deny that demand conditions operate as well as productions conditions. They, of course, do. But many of the technical predictions of the theory have a wide range of validity independently of sweeping changes in demand conditions. To be sure, if we insist upon a full description of the system, we must even in this simplest classical case invoke the full equations of general equilibrium.” Paul A. Samuelson, *ibid.*, Part I, Summary and Conclusion.

가 있다⁽¹⁷⁾, 요컨대, 「새뮤얼슨」에 의하면, 單一生產要素理論으로서의 古典學派의 勞動價值說은 「供給側의 技術만으로 부터」價格을 豫測케 하는 豫測的 價值를 提供하였을 뿐이며, 需要側의 考慮 및 그 背後에 있는 主觀的函數 즉 効用에 대한 理論을 充分히 補完展開하지 못했기 때문에 勞動價值說에 立脚한 價格豫測이 市場價值와 完全히 一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指摘하고 있는 것이다. 즉 相對價格의 側面에서 勞動價值說을 成立시키는 條件인 $p_i = w a_i$ 또는 $p_1/w, \dots, p_n/w$ 의 確定的인 解를 成立시키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需要理論이 必要한 데 古典學派의 勞動價值說은 이 需要理論의 充分한 補完을 받지 못함으로써 어느 경우에도 勞動費用과 市場價值가 完全히 一致함을 期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새뮤얼슨」은 보고 있다. 따라서 需要側의 事情을 考慮한 實質費用理論이 古典學派의 單純한 勞動價值說의 成立을 위해서도 必要한 것이라고 結論짓고 있다.

3) 「새뮤얼슨」은 古典學派經濟學者들이 單一生產要素理論의 技術的 一모델로서 「勞動價值說」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實際로 「實質費用」理論 (“real cost” theory)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새뮤얼슨」에 의하면, 이것은 「리카도」時代에는, 주로 收穫不變의 狀態에 있어서의 人口의 再生產可能性에 關한 理論이었다. 만일 單一の 必需品인 穀物 y_1 이 存在하고, 勞動의 各單位가 이것을 c_1 量 만큼만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 1人當의 現實의 穀物量 y_1/x_1 과 1人當의 穀物の 生存必要量 c_1 과의 差에 應하여 總勞動量은 「增大」「不變」「減少」의 여러가지 傾向을 갖는다. 즉,

$$-\frac{y_1}{x_1} = -\frac{1}{a_1} \begin{cases} \geq \\ \leq \end{cases} c_1 \text{에 應하여} \quad -\frac{1}{x_1} \frac{dx_1}{dt} \begin{cases} \geq \\ \leq \end{cases} 0 \dots\dots\dots (4)$$

만일 $1 - c_1 a_1 < 0$ 이라면 그 人口는 結局 消滅하기에 이를 것이다. 만일 $1 - c_1 a_1 = 0$ 이라면 그 人口는 中立的 均衡에 놓이게 될 것이다⁽¹⁸⁾. 다음 $1 - c_1 a_1 > 0$ 이 되는 경우는 「말더스」가 가장 現實的인 경우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自然은 人間生活에 대하여 必要한 것보다도 더욱 많은 것을 本源의으로 提供하며, 그 結果 處女大陸에 幾何級數의인

(17) 「새뮤얼슨」에 의하면, 이외에도 方程式(3)은 價格이 需要에 대하여 더욱 微妙하게 依存하고 있음을 意味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需要(供給을 수반하는)가 $y_i > 0$ 을 保證하도록 나타나지 않는 限, 우리는 $p_i = w a_i$ 를 推論할 수 없다. $(y_1, \dots, y_n, x_1, \dots, x_n, p_1/w, \dots, p_n/w)$ 에 대해서 完全한 均衡解를 얻기 위하여서는, 古典學派는 그들의 技術의 理論을 補完하는 消費의 全理論을 展開하여야 하였을 것이다. $(p_1/w, \dots, p_n/w)$ 의 確定的인 理論을 얻기 위하여서까지도 暗黙的인 需要理論을 必要로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古典學派가 「使用價值」를, 市場價值를 위한 質의 必要條件 (a qualitative necessary condition) 으로 認定하고 있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새뮤얼슨」은 「指摘하고 있다. Paul A. Samuelson, *ibid*, Part I.

(18) 「새뮤얼슨」에 의하면, 最初의 「레온티에프」體系는 閉鎖된 體系이며 「매트릭스」에서 $[1 - c_1 a_1]$ 이 零이 된다는 것을 假定하고 있다. W. W. Leontief, *Structure of the American Economy*, 1951, p. 47. Paul A. Samuelson, *ibid.*, Part I.

率로써 人口增加를 가져온다. 만일 土地에 窮極의 限界가 없고, 收穫遞減의 法則이 暗黙
 中에 作用하지 않는다면, 이 人口의 幾何級數의 增加의 過程은 無限히 繼續될 것이다. (19)

現代의 線型計劃의 用語를 使用하면 (1)~(4) 式의 體系는 마치 勞動의 再生産에 必要
 한 費用을 超過하는 生産物의 剩餘를 極大化하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즉
 (1)~(4) 式의 體系는 마치,

$$\begin{aligned} a_1y_1 - x_1 &\leq 0, \quad x_1 \geq 0, \quad y_1 \geq 0 \text{의 制約下에서} \\ z &= y_1 - c_1x_1 \dots\dots\dots (5) \end{aligned}$$

을 極大化하려고 하는 것 처럼 作用한다. 이것은

$$z = y_1 - c_1x_1 \leq x_1 \left(-\frac{1}{a_1} - c_1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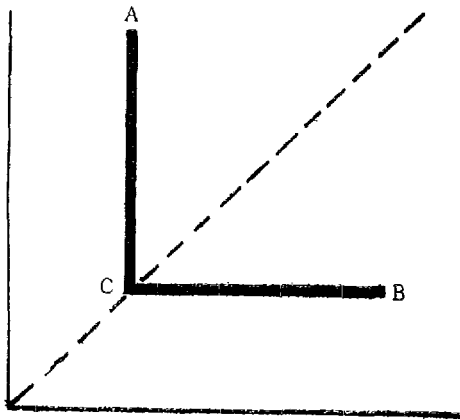
을 意味한다. 따라서 土地의 稀少性을 無視하면 이 問題의 解는 明白히 다음과 같이 된
 다. (20)

$$\begin{aligned} 1 - c_1a_1 < 0 \text{ 이면} & \quad (z, x_1, y_1) = (0, 0, 0) \dots\dots\dots (6) \\ 1 - c_1a_1 = 0 \text{ 이면} & \text{ 任意的 } x \text{ 에 대하여 } (z, x_1, y_1) = (0, x, c_1x = x/a_1) \\ 1 - c_1a_1 > 0 \text{ 이면} & \quad (z, x_1, y_1) = (\infty, \infty, \infty) \end{aligned}$$

土地를 無視하면 最後의 경우는 물론 固定的인 有限의 解를 갖지 않으며 「말더스」的 發散
 指數를 나타낸다 이것은 土地의 制限에 대한 無視를 終結한 다음이라야 비로소 「버힐스트
 -펄」의 「로지스틱」曲線 (Verhulst-Pearl logistic) 또는 그에 類似한 形으로 調節된다.

만일 勞動者가 「穀物」以外的 多數의 相異한 財貨를 最低生活水準의 必要한 部分으로
 消費함을 想定할 경우에도 數學的인 像은 조금도 變하지 않는다. (21) 우리는 단지 勞動者
 가 그의 生存賃金(subsistence wage)으로서 相異한 財貨(different goods)의 $(c_1, c_2, \dots, c_n)$
 을 必要로 한다고 想定하면 족하다. 第2圖에 있어서 最低生活에 對應하는 無差別曲線은
 A C B 이며, 諸財貨가 自由財가 아니라면 사람은 恒常 L 型의 無差別曲線의 모서리 $C(c_1,$
 $c_2, \dots, c_n)$ 에 歸着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n 個의 諸財貨의 $c_1, \dots, c_n$ 으로 構成되는 하
 나의 合成財를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그 合成財 1 單位의 勞動必要量은 $c_1a_1 + c_2a_2 + \dots$

(19) 여기서 「세뮤엘슨」은 古典派體系에서 實質費用理論을 導出하여 定式化하려고 「토마스 로버
 트 말더스」의 人口理論과 賃金生存費說을 援用하고 있다.
 (20) 方程式(6)에 있어서, 原文에서는 第2式의 y_1 에 對應하는 項이 $a_1x = x/c_1$ 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c_1x = x/a_1$ 의 誤植으로 생각되므로 訂正하였다.
 (21) 「리카도」는 勞動者에게 있어서 穀物이 그들의 最低生活水準의 絶對的으로 가장 重要な 部分
 이라고 보았으나, 唯一의 財라고는 보지 않았으며, 勞動者가 穀物以外的 相異한 多數財를 그
 들의 最低生活水準의 一部分으로써 必要로 하고 있음을 때때로 強調하고 있다.



<第2圖>

$+c_n a_n$ 이 되어야 하며, 또한 人口가 增大 (또는 減少 또는 中立的安定)되기 위해서는 그基準으로서 $\sum c_j a_j < 1$ (또는 $\sum c_j a_j > 1$ 또는 $\sum c_j a_j = 1$)이 되어야 한다. (22) 興味있는 것은 $1 - \sum c_j a_j > 0$ 의 경우이며, 이것은 앞서 본 單一財의 경우의 條件 $1 - c_1 a_1 > 0$ 의 一般化이다.

요컨대, 「새뮤얼슨」은 「말더스」를 비롯한 古典學派의 人口理論에서 人口(또는 勞動總量)가 穀物에 의하여 再生産可能하며, 또한 古典學派의 「生存賃金」理論에 따르면 人口 또는 勞動總

量의 増減이 穀物生産量의 増減에 따른다는 것을 發見하고 매우 기뻐하며, 그는 여기에서 勞動價値說崩壞와 土地價値說定立의 基礎를 發見한다. 만일 勞動力の 再生産에 必要한 穀物必要量 以外の 穀物生産의 剩餘를 線型計劃의 方法으로 極大化하면 勞動은 無限大로 指數의 成長을 할 것이며, 土地의 制限이 없는 限 이것은 繼續될 것이므로 土地의 供給과 土地의 費用이 반드시 考慮되어야 한다고 「새뮤얼슨」은 보는 것이다.

II

4) 「새뮤얼슨」은 여기에서 土地의 稀少性과 地代의 發生을 導入한다.

人口의 指數의 成長은 最後에는 有限의 土地를 全部 使用하여 비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勞動의 制約式

$$a_1 y_1 + \dots + a_n y_n \leq x$$

에 明示的으로 土地의 制約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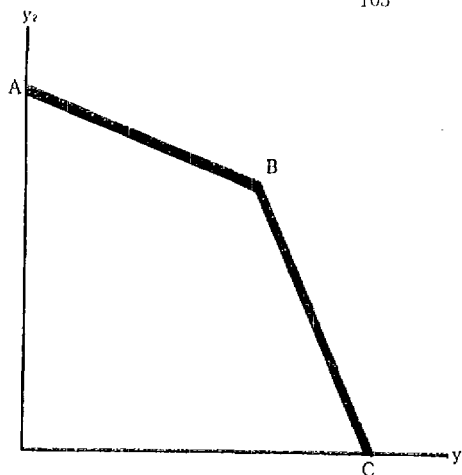
$$b_1 y_1 + \dots + b_n y_n \leq L \dots\dots\dots (7)$$

이 附加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b_i 는 y_i 의 1單位를 生産하기 위하여 勞動의 a_i 單位와 함께 必要되는 最小의 正의 土地를 나타낸다. L 은 利用可能한 同質的 土地의 供給이다. L 이 x 에 比하여 충분히 클 경우에는 土地의 制約式은 우선 無視할 수가 있었다. 왜냐하면 (7)의 不等式은 반드시 適當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過剩의 L 이 모두 消滅되면 여러가지 事態가 惹起되기 시작한다.

(22) 原文에서는 이 基準의 増加 및 減少의 不等號의 方向이 逆으로 되어있어 틀린것이 明白하므로 여기서는 訂正하여 놓았다.

勞働者들 사이의 競爭은 土地用投에 正의 地代 (positive rent) 를 發生시킬 것이다. 이 結果 財貨의 費用은 이제 賃金以外的 構成要因을 갖게 된다. 즉 財貨의 費用은 반드시 賃金과 正의 地代로서 構成된다. 따라서 「稀少한 土地의 存在는 單純한 勞動價値說을 破壞시켜 버리고 마는 것이다」 (the existence of scarce land has destroyed the simple labor theory of value).

(23) 第3圖는 第1圖의 勞動의 制約을 나타내는 直線 AB 에 附加하여 (7) 式의 土地의 制約을



<第3圖>

나타내는 새로운 直線 BC 를 포함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 結果 生産可能性 曲線은 ABC 가 되며 生産된 財貨의 費用 및 價格比率는 「需要의 패턴에 依存하여」 (depending upon the pattern of demand) AB 의 傾斜와 BC 의 傾斜와의 사이의 어딘가 (anywhere) 에 存在하게 된다. (24)

그런데 여기서 「새뮤얼슨」에 있어서는 地代の 數量的尺度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대두된다. 「새뮤얼슨」에 의하면 「리카도」는 여러가지 相異한 等級의 土地의 存在를 假定하고 있기 때문에, 優等地에 있어서의 勞動의 生産性을 바로 「外延的耕作限界」 (extensive margin) 에 있는 自由로운 土地에 있어서의 勞動의 生産性과 比較하여, 그 差를 優等地에 있어서의 地代の 數量的尺度로 하는 差額地代論을 展開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리카도」는 外延的耕作限界의 地代論과 더불어 「內部的耕作限界」 (internal margin) 에 基礎를 둔 差額地代論도 또한 가지고 있었다. (25) 따라서 「리카도」는 그 後의 그의 不注意한 追從者들이 합정에 빠졌던 것처럼, 單一等級의 土地만이 存在하는 경우에는 優等地와 限界地와의 사이의 差

(23) Paul A. Samuelson, *ibid.*, Part I.

(24) 「새뮤얼슨」에 의하면, 오늘날 經濟學을 처음 배우는 學生은 最初의 週間에, 勞動集約的財와 土地集約的財와의 사이의 變形條件은 需要와 더불어 變化한다는 것을 배운다. Paul A. Samuelson, *Economics; An introductory Analysis*, 1958, pp. 22—23參照. 그림에도 불구하고 「새뮤얼슨」은 勞動價値說에 關한 數千페이지의 書籍을 읽어도 土地——資本뿐만이 아닌——가 單純한 勞動價値說을 無效로 만들며, 地代가 없는 限界의 土地라고 하는 「트릭」을 設定한다 할지라도 이 事實을 變更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強調하기에 이른 學者는 自己以外에는 다음 書籍에서 한 사람 밖에 發見할 수 없다고 쓰고 있다. Lionel Robbins, *Robert Torrens and the Evolution of Classical Economics* 1958, p. 237以下. Paul A. Samuelson, *ibid.*, Part I.

(25) 이것은 同質的 土地에 대하여 資本을 追加적으로 投下할 때, 土地收穫遞減의 法則의 作用으로 말미암아 發生하는 이른바 差額地代의 第2形態를 指摘하는 것이다. 本稿 第3章 第2節 「價値法則과 地代」를 參照.

額地代の測定이 不可能하다는 理由단으로써 地代는 消滅한다고 믿는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리카도」는 同質의 土地의 稀少性에 의해서 正의 地代가 發生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새뮤얼슨」은 지적하고 있다. 사실상, 當時의 西歐羅巴에는 外延의 限界는 存在하지 않는다고 主張하는 「셰이」의 批判에 對答하기 以前에 이미 「리카도」는, 地代는 同質의 土地의 모든 各各의 조각 (every piece)에 대하여 差額의으로 測定될 수 있다는 것을 主張하였다. 이 點에 있어서는, 「리카도」는 同一한 價値의 土地에 適用되는 勞動 (및 資本……여기서는 편의상 우선 資本은 無視함)의 量을 變化시키는 것을 생각하였던 것이라고 「새뮤얼슨」은指摘한다. 有利한 最後의 勞動量은 바로 그 勞動費用 만큼의 生産物을 附加할 것이다. 그러므로 「리카도」는 그것을 「地代를 支拂하지 않는 勞動單位」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近代의用語로 말하면 地代總額은, 全勞動單位의 生産物과 集約的耕作限界(intensive margin)에 있어서의 勞動의 生産物과의 差에 의해서 測定될 수 있다고 「새뮤얼슨」은 主張한다.⁽²⁶⁾

5) 다음 「새뮤얼슨」은 具體的으로 同質의 土地에 있어서의 地代 測定方法을 論究한다. 「새뮤얼슨」은 長期「리카도」「모텔」에 있어서 地代는 確定的인 解를 갖는다고 보고, 그 解를 求하기 위하여 먼저 穀物·勞動·土地로 된 經濟를 考察한다. 勞動은 그것이 土地에 대하여 確定的인 比率를 갖게 될 때까지 長期的으로 增加한다. 말하자면 모든 土地를 協同의生産에 있어 모두 使用하기에 알맞을 만큼 充分한 勞動이 存在하게 될 때 까지, 즉 $x_1/L_1 = a_1/b_1$ 이 될 때까지 勞動은 長期的으로 增加한다. 그리하여 이 定量的 勞動과 土地가 總穀物生産物을 生産한다고 생각한다. 勞動의 賃金은 穀物으로써 測定되며, 慣習的인 生存水準 c_1 에 固定된다. 이렇게 하면 勞動에 대하여 支拂된 穀物總量을 알게 된다. 이제 總穀物生産物에서 이 勞動에 대하여 支拂된 穀物總量을 差減한 나머지가 土地의 地代이다. 問題는 이와 같이 單純한 것이다. 그리하여 「새뮤얼슨」은 이것을 殘餘地代 (residual rent) 라고 부르

(26) 요컨대, 이 節에서 「새뮤얼슨」은 穀物の 剩餘生産의 極大化에 의하여 나타나는 人口의 幾何級數의 增加가 地球上의 有限의 土地를 모두 使用케 하여 마침내 土地用役에 대한 地代를 發生케 하며 그 結果 財貨의 費用은 賃金以外에 반드시 地代를 그 構成要因으로 하는바, 이 地代의 存在가 單純한 勞動價値說을 破壞하여 버리고 만다고 본다. 여기서 注意할 것은 「새뮤얼슨」은 地代가 반드시 財貨의 生産費用의 一構成要因이 되기 때문에, 즉 勞動의 賃金만이 費用의 唯一의 構成要因이 아니기 때문에 勞動價値說이 崩壞된다고 보았다는 점이다. 이 점은 「새뮤얼슨」이 철저한 價値構成論의 立場에서 價値와 費用의 本質의 同一性을 항상 暗黙的으로 前提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 「새뮤얼슨」은 一部の 勞動價値論者들이 地代가 支拂되지 않는 外延의限界地(最劣等地)를 想定함으로써 限界地에서는 地代가 消滅되며 勞動만이 唯一한 價値構成要因이라고 「리카도」가 說明하였다고 보는 觀點을 반박하고, 同質의 土地에 있어서 投下勞動量을 逐次的으로 變動시킴으로써 同質의 土地에서 地代를 差額的으로 測定할 수 있다고 「리카도」가 보았음을指摘하면서 이것은 近代의用語를 빌리면, 地代總額=全勞動單位의 生産物-集約的限界勞動의 生産物로 測定할 수 있음을 主張하고 있다.

고, 「리카도」體系에 있어서 同質의 土地에는 殘餘地代가 成立됨을 明白히 하고 있다.⁽²⁷⁾

「세뮤엘슨」에 의하면, 이러한 「殘餘論的」(residual) 分配論에 대해서는 이것에 反對하는 俗流的 偏見이 存在하고 있다고 한다. 만일 이 反對論이 賃金を 地代의 殘餘라고 說明하면서 「同時에」(simultaneously) 地代를 賃金の 殘餘라고 說明하는 理論에 대한 反對라면 그것은 正當한 것이다. 이러한 理論은 2個의 未知數에 대하여 하나의 方程式밖에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결코 理論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하나의 要素의 分配分을, 充分히 決定된 他要素의 分配分의 殘餘로써 「說明」하는 理論에는 模糊性은 絕對로 存在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뮤엘슨」은 同質의 土地에 있어서의 地代를 殘餘地代라고 봄과 동시에 또는 限界生産物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요컨대, 「세뮤엘슨」은 勞動이 土地에 대해서 確定的인 比率를 갖고 勞動의 賃金を 穀物로 測定하여 生存賃金에서 固定시키면 賃金總量이 明確하게 決定되므로 地代는 그 殘餘로써 說明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6) 다음 「세뮤엘슨」은 數字的 例를 들어 自己의 主張을 確認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單純한 「리카도」經濟는 그의 技術係數 a , b , c 와 그 增加不可能한 土地의 量 L 에 의하여 完全히 特徵지워진다. 第4圖는 다음과 같은 計量經濟學的 常數에 대한 正確한 數量的 「모델」을 나타내는 것이다.

$$a_1 = \text{穀物 1「톤」當 0.1 人}$$

$$b_1 = \text{穀物 1「톤」當 50「에이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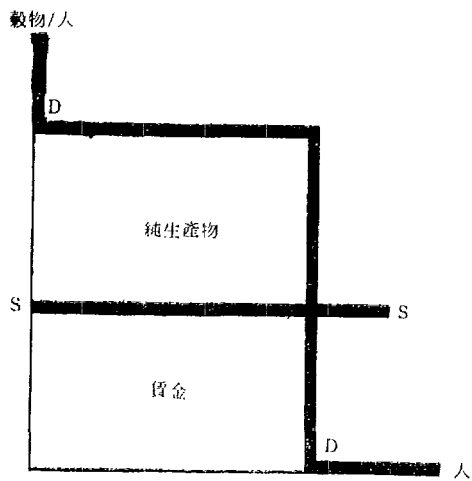
$$c_1 = \text{1 人當 穀物 4「톤」}$$

$$L = 100 \text{ 萬「에이커」}$$

100萬「에이커」의 土地는 여기에서 일하여야 할 2,000 人의 勞動($=L[a_1/b_1]$)을 必要로 한다.⁽²⁸⁾ 兩者는 結合하여 20,000「톤」($=L/b_1$)의 穀物を 生産한다. 그 중에서 8,000「톤」($=c_1 \times 2,000$)은 食糧으로써 勞動者에게 分配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 결과 土地에 대해서 12,000「톤」의 純生産物이 남는다. 즉 1「에이커」當 穀物 0.021「톤」의 地代가 남는다.

(27) 여기서 우리가 注意할 것은 만일 「리카도」에 대하여 그 後 新古典學派理論의 連續的 假定을 取할 것을 拒否한다면 「리카도」의 内部的 差額地代의 定式化는 崩壞한다는 것이다. 換言하면, 「리카도」의 差額論의 方法은 모든 土地가 同一하여 a_1 및 b_1 이 固定的 非代替의 係數라고 하는, 모든 技術가운데서 가장 單純한 경우를 取扱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두 同質의 土地가 使用되는 이경우에는, 「리카도」가 差額地代를 測定할 때 基準으로 하는 「地代를 支拂하지 않는」 勞動은 存在하지 않기 때문이다.

(28) 原文에서는 이 式이 $L/[a_1/b_1]$ 로 되어있으나 틀린 것이 明白하고 100萬「에이커」의 土地에서 일할 2,000人의 勞動은 $L[a_1/b_1]$ 이라야 正解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訂正하였다.



<第4圖>

第4圖의 全面積은 粗穀物生産物을 나타내고 있다. 水平한 長期勞動供給曲線 SS는 全粗生産物을 中間的 賃金生産物(intermediate wage product)과 純生産物 내지 殘餘地代(produit net or residual rent)와의 2개의 矩形으로 分割한다. 全粗生産物에 대한 賃金の 分配分은 $c_1 a_1$ 이며, 地代の 相對的 分配分은 $1 - c_1 a_1$ 이다. 만일 勞動이 더욱 많은 穀物을 要求하게 되면, c_1 은 上昇하여 地代の 絕對的 및 相對的 分配分은 下落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勞動이 더욱 能率的으로 되면, a_1 은 減少하여 地代の 絕對的 및 相對的 分配分은 上昇한다. 만일 土地가 더욱 能率的으로 되면, b_1 은 減少하여, 人口 賃金 및 總地代는 增大하며, 相對的 分配分은 不變이다.

「새뮤얼슨」에 의하면 長期「리카도」體系에 있어서 土地가 全生産物의 尺度이며, 「創造者」(creator)라고 하는 것은, 全土地量 L 을 2倍하면 全矩形의 幅이 正確하게 2倍가 되며, L 을 半分하면 全矩形의 幅이 正確히 半分된다고 하는 事實에 의하여 表示된다. 『土地는 賃金の 粗生産物의 源泉이고, 全生産物의 源泉이며, 地代の 純生産物의 源泉이다. 勞動이 協同的 投入要素로서 必要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體系 내에서 再生産可能한 것이므로, 그것은 單純히 「凝結된」 또는 「投下된」 穀物(“congealed” or “embodied” corn)로 看做할 수 있다.』⁽²⁹⁾

『심지어 이것도 삼가서 말한 過小한 表現이다. 穀物自體가 「凝結된」 또는 「投下된」 土地로 看做할 수 있으므로, 勞動도 또한 窮極的으로 投下된 土地로 看做할 수가 있는 것이다! (We shall see that corn itself can be thought of as congealed or embodied land, and so labor too can be regarded in the last analysis as embodied land!)]』⁽³⁰⁾

이 句節은 「리카도」經濟學에 대한 「새뮤얼슨」의 解釋을 理解하는데 決定的으로 重要한 대목이다. 「새뮤얼슨」은 穀物이 勞動의 賃金과 土地의 地代와 全生産物의 源泉이므로, 또

(29) Paul A. Samuelson, *ibid.*, Part I. “Land is the source of wage’s gross product, the source of total product, the source of rent’s net product. Labour, to be sure, is needed as a co-operating input, but being reproducible within the system it can be regarded simply as “congealed” or “embodied” corn.

(30) Paul A. Samuelson, *ibid.*, Part I.

한 勞動은 再生産可能하지만 土地는 再生産不能이므로, 또한 勞動은 分解可能하지만 土地는 分解不能이므로, 勞動과 地代의 源泉인 穀物은 「凝結된」 또는 「投下된」 土地로 看做할 수 있으므로, 결국 價値의 絶對的 尺度가 되고 價値의 創造者가 되는 것은 土地라고 斷定하는 것이다.⁽³¹⁾

III

7) 「새뮤얼슨」은 이번에는 財貨의 生産에 있어서 投入되는 直接的 土地의 必要量과 勞動 必要量이 相異한 多數財의 경우를 考察함으로써 그의 「리카도의土地價値說」을 完全히 定立시키고 있다. 즉 그가 說明하는 「土地價値說」(land theory of value)의 完全한 意味는 多數財의 경우를 考察함으로써 비로소 把握된다. 이 경우에 a_i/b_i 에 의하여 測定되는 直接的인 土地 및 勞動의 必要量이 어느 産業에서나 同一하다고 하는 것은 奇蹟이 아니면 있을 수 없다. 그러면 土地(資本이 아니라)와 勞動과의 「有機的 構成」에 있어서의 諸困難은 價格과 土地投下量과의 不變의 關係를 必然的으로 破壞하는 것은 아닌가? 地主의 消費需要의 「패턴」의 變化는 相對的으로 勞動集約의이든가 또는 土地集約의인 財貨의 相對費用 및 相對價格을 變化시키지는 않을까? 또는 그러한 地主의 需要의 變化는, 全生産物에 있어서 賃金과 地代의 相對的 分配分을 變化시키는 것은 아닌가? 勞動集約의 財貨에의 最終需要의 移行은 勞動의 相對的 分配分을 增加시키고, 地代를 低落시킴에 의해서 一層 土地集約의 方法에의 代替를 惹起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모든 質問에 대한 「새뮤얼슨」의 對答은 「노」이다. 技術과, $(c_1, c_2, \dots, c_n)$ 에 의하여 測定되는 勞動의 生存必要量과가 不變으로 있는 限, 地代總額(任意的 單一財 나지 合成財에 의하여 測定된, 또는 支配勞動時間에 의하여 測定된)은, 正確히 同一하게 不變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生産된 任意的 두 財貨 사이의 交易條件은, 地主의 需要構成의 어떠한 變化에 의해서도 不變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안된다.⁽³²⁾ 왜 「새뮤얼슨」은

(31) 「새뮤얼슨」은 이렇게 斷定하면서 그에 대한 批判을 封鎖하기 위하여 주의깊게 다음과 같이 첨가하고 있다. 『近代經濟學者가 「投下」라든가, 「凝結」이라든가 「分解可能」이라든가 (“embodied,” “congealed” or “decomposable”)하는 用語를 使用할 경우 그는 無味乾燥한 數學的 事實에 대하여 比喩的表現을 빌리고 있는 것이다. 深遠한 哲學的 또는 倫理的 意味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말할 必要도 없다. 經濟的 事實의 重要한 意味와 豫測的 假說의 重要한 意味以外에는 今일의 經濟學者는 오직 지루한 擬似問題(boring pseudo-questions)를 「發見할 뿐이다」라고. Paul A. Samuelson, *ibid.*, Part I.

(32) 勞動人口에 대한 不變費用概念 때문에 勞動側의 需要는 이미 自由가 아니므로 「새뮤얼슨」은 地主의 需要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劃一的인 그리고 매우 逆說의으로 들리는 主張을 내세울 수 있는가? 그 理由는 「새뮤얼슨」이 解釋하는 長期 「리카도」體系에 있어서는 勞動·穀物·「벨벳트」·사슴·물개等 모든 것이 投下된 土地로 分解될 수 있기 때문이며, 그 以外에 아무 理由도 없다. 「새뮤얼슨」의 解釋에 따른다면, 穀物이 「벨벳트」보다 더욱 土地集約的이라고 말하는 것은 「넌센스」이다. 왜냐하면 벨벳트와 穀物의 生産에 必要한 勞動의 食糧을 生産하는 데 必要로 된 間接的 土地를 考慮에 넣으면 모든 財貨는 100 「퍼센트」 土地集約的이기 때문이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惡循環이 있다고 感知하고 다음과 같이 主張할 것이다. 즉 『勞動을 生産하기 위하여 穀物이 所要되고, 穀物을 生産하기 위하여 勞動(및 土地)가 所要된다. 穀物과 勞動의 어느 것도 他에 先行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새뮤얼슨」에 의하면, 이 一時的 關係에 대해서 論爭할 必要가 없으며, 또한 肥沃한 無人島에는 이내 人間이 自然히 繁殖할 것이라고 主張하러 試圖할 必要도 없다. 「페온티에프」가 보여준 바와 같이 論理的 循環은 良循環이며, 이 問題에 대한 獨特한 解는 諸變數에 關聯하는 代數方程式을 「聯立으로 풀어냄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이 靜學的 聯立方程式의 解는 投下土地量에 同等한 價格을 주는 것으로 解釋할 수가 있으며, 또한 時間的으로 無限의 過去에 소급하는 假說的인 乘數의 連鎖에 의하여 解釋할 수가 있다.

이제 理解를 돕기 위하여 먼저 하나의 財에 대하여 代數的 敘述을 하고, 다음에 單一的 合成的 生計費財를 使用하면서 n 財의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同一하게 處理할 수가 있다.

穀物의 價格 p_1 은 生産에 있어서 勞動費用과 地代費用을 합한 것과 같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賃金 w 는 穀物의 必要量 c_1 을 가까스로 購入하기에 알맞은 것이 아니면 안된다. 1 「에이커」當 地代를 r 이라고 하면 以上の 事實로 부터 (p, w, r) 에 대하여 두개의 獨立的인 方程式을 얻을 수 있다.

$$\left. \begin{array}{l} p_1 = wa_1 + rb_1 \\ w = p_1 c_1 \end{array} \right\} \text{또는} \left. \begin{array}{l} p_1/r = b_1(1 - c_1 a_1)^{-1} \\ w/r = c_1 b_1(1 - c_1 a_1)^{-1} \end{array} \right\} \dots\dots\dots(8)$$

比率 $p_1/r, w/r$ 는 明白히 一義的으로 決定되지만, 絕對價格水準은 決定되지 않는다. r 에 대한 比率를 取하는 것은 그것 以外의 모든 다른 價格을 土地投下量으로써 表現하는 것으로서, 土地를 計算尺度로 使用하는 것과 對等한 것이다.

다음 「새뮤얼슨」은 穀物의 價格을 그 直接的 土地投下量과, 「時間의 最初」에 까지 소급하여 穀物을 生産하기 위한 勞動을 生産하기 위한 穀物을 生産하는데 必要한 土地 等으로 分解하는 無限乘數의 形으로, 記號의 敘述을 하고 있다. 任意의 小數 h 에 대해서 收斂

의無限幾何級數가 $1/(1-h) = (1-h)^{-1} = 1 + h + h^2 + \dots + h^n + \dots$ 이라는 것을 想起하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begin{aligned} \frac{p_1}{r} &= b_1(1 - c_1a_1)^{-1} = b_1[1 + c_1a_1 + (c_1a_1)^2 + \dots + (c_1a_1)^n + \dots] \\ &= b_1 + b_1(c_1a_1) + b_1(c_1a_1)^2 + \dots + b_1(c_1a_1)^n + \dots \end{aligned} \quad \dots\dots\dots(9)$$

여기서 b_1 은 穀物 1單位當의 直接的 土地費用이며, $b_1c_1a_1$ 은 直接的 勞動을 위하여 必要한 穀物의 直接的 土地費用이다. 이와같이 하여 이 系列은 $c_1a_1 < 1$ 이라는 「호킨스-사이몬-말더스」의 假定에 의하여 收斂値를 갖는다.

多數財의 경우로 移行하면 (8)式과 全적으로 同一하지만, 더욱 많은 方程式을 갖게 된다.

$$\left. \begin{aligned} p_1 &= wa_1 + rb_1 \\ p_2 &= wa_2 + rb_2 \\ \dots\dots\dots \\ p_n &= wa_n + rb_n \\ w &= p_1c_1 + p_2c_2 + \dots\dots\dots p_nc_n \end{aligned} \right\} \quad \dots\dots\dots(10)$$

이들은 $(n+2)$ 個의 未知數 ($p_1, p_2, \dots, p_n, w, r$)에 관한 $(n+1)$ 個의 方程式이다. 따라서 $(n+1)$ 個의 價格比率($p_1/r, p_2/r, \dots, p_n/r, w/r$)에 관해서 풀 수 있다. 가장 간단한 解法으로서는, 第1의 方程式에 c_1 을 乘하고, 第2의 方程式에 c_2 를 乘하고, 第 n 의 方程式에 c_n 을 乘하여, 다음에 이들을 全부 合計하면 다음을 얻을 수 있다.

$$w = \sum_1^n p_j c_j = w (\sum_1^n c_j a_j) + r (\sum_1^n c_j b_j) \quad \text{또는} \quad \frac{w}{r} = (\sum_1^n c_j b_j) (1 - \sum_1^n c_j a_j)^{-1} \quad \dots\dots\dots(11)$$

그러나 이것은 多數의 c 를 包含하고 있는 點을 除外하면 (8)式에 있어서의 w/r 式과 全히 同一한 것이다. 이것을 生存을 위한 合成的 market basket 로서 容易하게 解釋할 수 있으며, $\sum c_j a_j$ 및 $\sum c_j b_j$ 는 이 合成財 1單位의 勞動必要量 및 土地必要量인 것이다.

w/r 를 알면, (11)式을 (10)式에 代入하여 土地의 價値만으로 表示되는, 求하려고 하는 最終解를 간단히 얻는다.

$$\left. \begin{aligned} w/r &= (\sum_1^n c_j b_j) (1 - \sum_1^n c_j a_j)^{-1} \\ p_1/r &= (\sum_1^n c_j b_j) (1 - \sum_1^n c_j a_j)^{-1} a_1 + b_1 \\ \dots\dots\dots \\ p_n/r &= (\sum_1^n c_j b_j) (1 - \sum_1^n c_j a_j)^{-1} a_n + b_n \end{aligned} \right\} \quad \dots\dots\dots(12)$$

「세뮤엘슨」이 求하여온 數學的 分解는 여기서 完成된다. (12)式에 있어서의 $(1 - \sum c_j a_j)^{-1}$

의 無限乘數展開을 「새뮤얼슨」은 直接 및 間接의 土地必要量으로 解釋하는 것이다.

「새뮤얼슨」은 끝으로 (12)式의 價格比率로 부터, 주어진 L 에 대하여 可能한 純生産物의 生産可能性 表를 導出할 수 있음을 言及하고 있다. 第1圖에 있어서의 直線은, 만일 그 兩軸이 粗生産量 $y_1, y_2, \dots$ 를 表示하는 것이 아니라 그 各各으로 부터 勞動者의 消費를 差減한 것 즉 $(Y_1, Y_2, \dots) = (y_1 - c_1x, y_2 - c_2x, \dots)$ 를 表示하는 것으로 再解釋하면 여 전히 妥當할 것이다. 또한 地主의 需要가 「直接的으로 勞動集約的인」財에 移動하는 경 우에는 언제나 L 을 一定하게 가지면서, 그러나 人口 x 를 「必要한 修正을 加하여」變動시 킴으로써 軌跡이 그려진다. (L, a, b, c) 가 모두 주어진 경우에는 完全히 固定되어 있는 것 은 地代의 絕對水準이다. 總賃金의 絕對水準은 地主의 需要構成的 變化에 의하여 誘發된 人 口變動에 의하여 變化할 것이다. 그러나 長期的으로는 合成財($c_1, c_2, \dots$)에 의하여 表示 되는 實質賃金은 不變일 것이다. 이와같은 實質賃金의 固定性은, 多數財「모델」에 있어서 는 粗生産物 中에서의 勞動의 全體로서의 分配分이나 相對的 分配分의 固定性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새뮤얼슨」의 土地經濟에 있어서, 方程式 (2)式의 單純한 勞動經濟에 對應하는 새로운 關係式은

$$\frac{p_1}{r}Y_1 + \frac{p_2}{r}Y_2 + \dots + \frac{p_n}{r}Y_n = L \quad \dots\dots\dots(13)$$

이며 各各의 p/r 들은 (12)式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다.⁽³³⁾

8) 다음 「새뮤얼슨」은 그의 「리카도 土地價值說」을 「레온티에프」의 投入產出體系의 標

「레온티에프-리카도」行列

投入	產出					地主의 消費
	1 穀物	2 벨베트		n 얼룩말	n+1 勞動	
1. 穀物	0	0		0	c_1	Y_1
2. 벨베트	0	0		0	c_2	Y_2
.....						
n. 얼룩말	0	0		0	c_n	Y_n
n+1 勞動	a_1	a_2		a_n	0	0
土地	b_1	b_2		b_n	0	

(33) 地主의 需要의 各最終構成(Y_i)가 x 의 一義的인 量과, 賃金과 地代의 一義的인 相對的 分配分을 決定하는 것은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 賃金의 最終的 平均的 分配分은 需要 「패턴」이 相異한 最終財 Y_i 에 대하여 어떠한 「웨이트」를 갖는가에 달려있다. 즉 $x = \alpha_1 Y_1 + \dots + \alpha_n Y_n$ 이다. 여기서 α 는 係數(a, b, c)만에 依存한다. 그 結果 wx/rL 은 各各의 Y 의 單純한 有理函數가 되며, Y 自體는 (13)式에 의하여 制約되는 것이다.

準의 「매트릭스」方法으로 再整理하고 있다. 「새뮤얼슨」에 의하면 古典學派體系에 있어서는 勞働은 投入物임과 同時に 產出物이므로 「새뮤얼슨」은 列에 各財의 投入必要量을 記入하는 「레온티에프」行列에 의하여 위와 같이 土地經濟를 要約하고 있다.

最後의 二個의 行에 表示되고 있는 바와 같이 各財는 勞働과 土地를 必要로 한다는 점에 注意하여야 할 것이다. (「레온티에프」라면 原料로써 다른 諸財의 循環의 必要量을 첨가할 것이지만, 「새뮤얼슨」은 「리카도」經濟學에 대한 그의 解釋에 따라 그들을 冑으로 놓고 있다.) 勞働은 $(c_1, \dots, c_n)$ 의 列에 表示되는 財를 必要로 한다. 奢侈品에 대해서는 $c_i=0$ 이다. 土地는 「開放레온티에프體系」(open Leontief system)에 있어서는 生産不能이며 本源的要素이므로 線의 下에 놓는다. 地主의 消費도 또한 外生的이므로 線의 右側에 놓고 있다.

그리하여 「새뮤얼슨」은 生産費方程式 (10)을 다음과 같은 行列形式으로 고쳐 쓴다.

$$[p_1, \dots, p_n, w] = [p_1, \dots, p_n, w] \begin{pmatrix} 0 & \dots & 0 & c_1 \\ 0 & \dots & 0 & c_2 \\ \vdots & & \vdots & \vdots \\ 0 & \dots & 0 & c_n \\ a_1 & \dots & a_n & 0 \end{pmatrix} + r[b_1, \dots, b_n, 0] \quad \dots(14)$$

A 를 $(n+1) \cdot (n+1)$ 行列을 表示하는 것으로 하고, $B = (b_1, \dots, b_n, 0)$, $P = [p_1/r, \dots, p_n/r, w/r]$ 라고 하면 (14)式을 行列의 形으로 다음과 같이 고쳐 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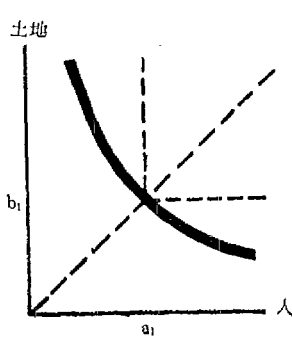
$$\begin{aligned} P &= PA + B \\ P &= B(I - A)^{-1} = B[1 + A + A^2 + \dots] \\ &= B + BA + BA^2 + \dots \quad \dots(15) \end{aligned}$$

最後의 乘數系列은 財의 價格 및 勞働의 價格을, 直接 및 間接의 土地投下量으로써 表示한다고 하는 利點을 갖고 있다. 이들 財와 勞働의 價格은 모두 (12)式 또는 (14)式의 全土地費用에 의하여 決定된다. 또한 粗產出量 $(y_1, \dots, y_n, x)$ 를 類似한 代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列「벡터」로서 고쳐 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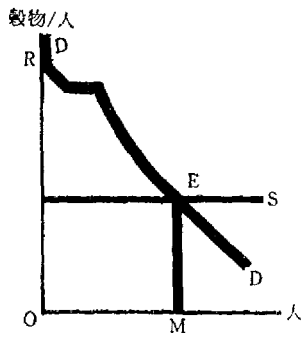
$$[I - A]^{-1} Y = Y + A Y + A^2 Y + \dots$$

이것은 소위 「레온티에프-콘필드」의 投入必要量의 無限乘數系列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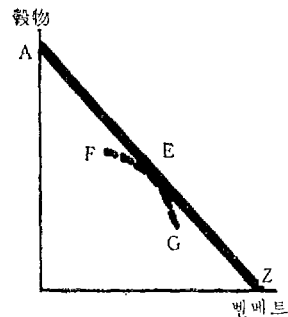
9) 다음 「새뮤얼슨」은 固定的 投入係數 (a_i, b_i) 라고 하는 單純한 境遇를 떠나서 土地 1單位에 適用되는 投入物을 變化시키는 경우를 考察하고 있다. 즉 그는 『代替可能性이 存在하는 境遇에 있어서 까지도, 長期的單一要素의 「리카도」體系는 代替를 經驗할 必要가 없다』⁽³⁴⁾



<第 5a 圖>



<第 5b 圖>



<第 5c 圖>

는 것을 表示하기 위하여 「代替定理」(substitutability theorem)을 適用하고 있다. 그는 穀物・勞動・土地의 경우에 대하여 그 意味를 그림으로 說明하고 있다.

第 5a 圖는 第 2 圖의 固定的係數의 L 型의 等生産量曲線을 交替的 (alternative)인 (a_1, b_1) 의 組合을 허락하는 實線의 等生産量曲線에 의하여 代置한 것을 나타낸다.

第 5b 圖는 一義的인 實質賃金을 決定하는 長期勞動供給曲線 SS 를 나타낸다. 地代의 殘餘는 三角形 SER 에 의하여 주어지며, 總賃金은 OMES 에 의하여 주어지고, 全生産物은 OMER 에 의하여 주어진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集約的耕作限界 E 에서 測定되는 리카도의 差額地代의 方式은 이제는 直接的으로 妥當하며 SER 의 面積을 確定的으로 나타내는 점에 注意할 必要가 있다. 또한 土地가 이제는, 勞動이 그 生存水準의 規模(subsistence size)에 到達하기 훨씬 以前에 稀少하게 되고 高價하게 된다는 점에 또한 注意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水平한 SS 線 때문에 實質賃金이 長期的으로 一定하다는 것은 決定的 重要性을 갖고 있다. 이것은 第 5a 圖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等生産量曲線의 同一 기울기(slope)의 點에 있으며, 따라서 長期的으로는 어떠한 代替를 보는 일이 없이, (a_1, b_1) 의 點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意味한다. 또한 이것은 第 2 圖의 財에 대한 類似한 그림에 있어서의 (a_2, b_2) 에 대해서도 同一한 事實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第 5c 圖는 「代替定理」——더욱 正確히 말하면 「非代替定理」——의 深遠한 性質에 대하여 洞察한 것이다. 왜 2 財 사이의 變形曲線이 點線의 FEG 와 같이 彎曲하지 않고, AEZ 또는 第 1 圖와 같이 直線이 아니면 안되는가는, 이것을 간단한 論議에 의하여 說明할 수

(34) Paul A. Samuelson, *ibid.*, Part I. "Even though there are possibilities for substitution, the long run one-factor Ricardo System need experience no substitution."

있다. 왜냐하면 代替하는 權利를 포기하고 第5a圖에 있어서 (a_1, b_1) 에 머물음에 의하여 우리는 앞서의 固定係數의 論議로부터, E 를 通하는 直線의 關係式이 可能하다고 하는 것을 언제나 導出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AEZ 라고 부르며, 이것이 (13)式의 그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注意할 必要가 있다. 만일 變形曲線의 各各의 「프론티어」의 點이 이것을 通하는 可能한 直線을 갖는다고 한다면, 變形曲線은 直線이 아니면 안되는 것은 明白한 事實이다. 요컨대, 單一生產要素의 世界에 있어서는 代替를 推進하는 어떠한 힘도 存在하지 않으며, 地代의 騰貴는 勞動費用 및 모든 潛在的으로 代替可能한 要素의 費用을 騰貴시키는 것이다.

여기까지 보아온 것이 勞動과 더불어 土地를 導入할 경우 「리카도」經濟學에 있어서 勞動價值說이 崩壞되고 「土地價值說」이 定立된다는 「새뮤얼슨」의 論證을 비교적 詳細히 소개한 것이며 이를 證明하는 代數方程式과 그 圖解를 아울러 소개한 것이다.

결국 「새뮤얼슨」은 單純한 勞動價值說은 土地와 資本을 無視할 수 있다고 假定되는 特殊한 경우에만 妥當하는 一般均衡의 定式化라고 보며, 一旦 土地를 고려하면 勞動이 絕對的 價值尺度임을 否定되고, 오히려 土地야말로 價値의 創造者이며 絕對的 價值尺度가 된다고 보아, 「리카도」經濟學의 長期「모델」이 「土地價值說」이라는 重農主義의 解釋을 加하고 있는 것이다.

(2) 價値決定과 資本 및 時間

「새뮤얼슨」은 그의 論文의 第1部에서는 單純化를 위하여 生產要素로서 勞動과 土地만을 考慮하고 있으나, 第2部에서는 生産에 要하는 時間과 資本 따라서 利子率의 概念이 導入되어 考慮되고 있다. 時間과 資本을 考慮할 경우에는 「리카도」勞動價值說의 成立에 困難이 發生한다는 事實은 「리카도」勞動價值說에 대한 批判者들이 「리카도」生存時로부터 오늘날에 까지 계속하여 指摘해 온 것이며, 「리카도」自身도 固定資本과 流動資本, 資本의 耐久性を 考慮할 경우에 그의 價値法則이 修正받는다고 하여 스스로 價値修正論을 展開할 때 認識하고 있었던 점이다. 「새뮤얼슨」의 論文에서의 時間과 資本의 導入은 이 側面에서의 종래의 「리카도」價値論에 대한 批判과는 다른 獨創의 論點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第1部에서 主張한 「리카도土地價值說」을 論證하는 代數方程式이 利子率을 考慮할 때에도 如前히 成立함을 敘述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새뮤얼슨」의 論旨를 第1部와는 달리 더욱 더 要約하려고 한다.

IV

10) 資本의 耐久性의 差異, 즉 資本과 時間 따라서 利子率의 概念을 導入할 경우 「리카도」勞動價値說이 失敗한다는 事實을 나타내는 「새뮤얼슨」의 單純한 모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第1部에서와 같이 2財 y_1 및 y_2 가 存在한다고 하고 그 各各은 一單位當 a_1 및 a_2 의 勞動을 必要로 하며, 土地는 過剩되어 自由財라고 假定하여 土地必要量 b_1 및 b_2 를 無視한다고 假定한다. 다음 두 개의 產業에 있어서의 投入物은 各各 嚴密하게 θ_1 및 θ_2 期間 後에 產出物을 生産한다고 假定하고 i 를 1 期間當의 利子率이라고 하면, 價格에 關한 恒常的 狀態의 生産費方程式은 다음과 같이 된다.

$$p_1 = wa_1(1+i)^{\theta_2} \quad p_2 = wa_2(1+i)^{\theta_2} \dots\dots\dots (17)$$

따라서 이것을 變形하면 相對價格은 다음과 같이 된다.

$$\frac{p_2}{p_1} = \frac{a_2}{a_1}(1+i)^{\theta_2-\theta_1} \dots\dots\dots (18)$$

즉 (18)式에서 보는 바와 같이, 投下勞動係數 a_i 만으로서는 不變의 相對價格을 豫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1+i)^{\theta_2-\theta_1}$ 이 $\frac{a_2}{a_1}$ 가 不變일 경우에도 相對價格 $\frac{p_2}{p_1}$ 를 變動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各 產業의 時間의 強度가 같아서 $\theta_1 = \theta_2$ 가 되거나 또는 利子率 i 가 文字 그대로 0이 되는 特殊한 경우를 除外하면 投下勞動量 만으로써 相對的交換價値를 豫測하는 것은 不可能한 것으로 된다. 이것이 利子率을 고려할 경우 「리카도」勞動價値說의 失敗를 證明하는 「새뮤얼슨」의 「모델」이다. (35)

11) 그러면 時間을 포함하는 경우, 즉 利子率을 考慮하는 경우 「새뮤얼슨」의 「리카도」土地價値說은 第1部와 마찬가지로 成立될 수 있는가? 이 問題는 全的으로 利子率을 어떻게 取扱하는가에 달려있다. 즉 利子率의 決定水準과 決定條件에 대한 解釋의 如何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36)

「새뮤얼슨」은 利子率을 取扱함에 있어서 「리카도」의 利潤率低下의 理論을 近代的으로 修正할 必要를 指摘하고 있다. 古典學派가 前提로 하고 있는 人口가 增大하는 狀態 즉

(35) 여기에서 「새뮤얼슨」이 「리카도」勞動價値를 證明하는 論理는 다음과 같다. 즉 勞動價値說에 따라 勞動이 不變의 價値尺度라고 한다면 相對的 勞動投入係數 a_2/a_1 가 不變인 限 相對價格 p_2/p_1 는 不變이어야 할 것인데, (18)式에서 보는 바와 같이 a_2/a_1 가 不變일 경우에도, p_2/p_1 는 단순히 利子率 i 또는 時間 $\theta_2 - \theta_1$ 의 變化에 의해서도 變動한다. 따라서 相對的 勞動量이 唯一한 「不變의 價値尺度」라고 하는 單純한 勞動價値說은 崩壞하는 것이다.

(36) 여기서 利子率과 賃金率은 恒常 逆函數關係에 있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 있음을 記憶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17)式에서 實質賃金은 $w/p_i = 1/a_i(1+i)^{\theta_i}$ 이 되어 實質賃金 w/p_i 와 利子率 i 는 逆行關係에 있다. Paul A. Samuelson, *ibid.*, Part. II.

$1-c_1a_1 > 0$ 인 狀態에서는 穀物이 그 勞動費用에 의해서 販賣되고 同時に 勞動賃金이 穀物 費用에 의해서 決定된다고 하는 것은 靜態的으로는 矛盾을 意味한다. 왜냐하면 $1-c_1a_1 > 0$ 의 式은 다음의 2個의 生産費方程式, 즉

$$p_1 = a_1w \text{ 및 } w = c_1p_1 \dots\dots\dots(19)$$

이 兩立할 수 없음을 意味하기 때문이다. 만일 위의 두 式이 兩立한다고 한다면 生産에 利潤이 없으므로 資本蓄積과 利潤率・利子率이 있을 수 없고, 또한 賃金이 生存水準에서 決定되므로 人口增加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19)의 2個의 靜態方程式은 矛盾되는 것이다. 이 矛盾의 解決策으로서 첫째 方法은 穀物の 生産이 無時間的으로 이루어지고 人口의 生産에는 時間을 要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第1의 方程式이 妥當하며 放棄하여야 할 것은 第2의 方程式이다.⁽³⁷⁾ 그러나 穀物生産을 瞬間的으로 하여 矛盾을 解決하는 것은 全적으로 非現實的이다. 矛盾의 解決의 그 둘째 方法은 穀物の 生産에 時間을 要하고 人口의 生産은 瞬間的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方法은, 人口가 實質賃金を 慣習的인 生存水準에 도달하기 까지 增加하는 데는 長期間을 要한다는 事實을 無視하려고 하여 「리카도」가 취한 方法이다. 이 경우에는 第2의 方程式이 瞬間的으로는 妥當하다고 假定되며, 第1의 方程式에는 勞動投入과 穀物產出과의 사이의 時差가 明示的으로 導入되어야 한다. 如前히 土地는 過剩되어 地代는 없으며 $\theta_1=1$ 이라고 하면 (19)式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p_1 = w_1a_1(1+i), \quad w_1 = c_1p_1 \text{ 또는 } 1+i = \frac{1}{c_1a_1} \dots\dots\dots(20)$$

이 式에 의하면 利子率은 이제는 (c_1, a_1) 만에 의하여 決定된다.⁽³⁸⁾ 그러나 이 方法은 人口增加의 無時間的 適應을 假定하기 때문에 非現實的이며 矛盾된 것이다.⁽³⁹⁾

(37) 만일 이 方法에 의하여 矛盾을 解決한다면, 土地를 如前히 過剩이라고 假定하는 限, 現實의 市場實質賃金은 生存實質賃金을 훨씬 上廻하여 勞動者는 그들의 一時的 稀少性에 대해서 「生存水準以上の 剩餘의 準地代」를 獲得할 수 있게 된다. Paul A. Samuelson, *ibid.*, Part. II.

(38) 「리카도」에 있어서는 利子率이 a_1c_1 에 의하여 決定된다는 것이 表示되더라도 利子率을 決定하는 充分한 方程式을 成立시킬 수 없다. 「리카도」에 따라 漸次 外延的인 耕作限界 및 集約的인 耕作限界에 올라가면 勞動投入係數 a_1 이 增加하여 이미 a_1 이 常數가 아닌 것으로 되기에 문이다. 즉 耕作限界以前的 土地 및 耕作限界의 土地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式을 쓸 수 있다.

$$p_1 = (wa_1' + rb_1')(1+i)\theta_1' \quad p_1 = wa_1''(1+i)\theta_1'' \dots\dots\dots(21)$$

그러나 우리가 설사 實質賃金이 a_1 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利子率을 決定하는데 充分한 方程式은 아니다. 왜냐하면 위의 式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떠한 利子率에 대해서도 最後의 方程式을 滿足시키는 a_1'' 가 存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外延的 및 内部的인 耕作限界가 利子率의 變化에 直接反應하여 變化한다고 하는 事實에 直面하게 되는 것이다. Paul A. Samuelson, *ibid.*, Part II.

그러므로 (19)식의 2개의 方程式에 있어서 財貨의 勞動의 創造의 兩方에 대하여 어떠한 動態의 調整過程을 만들 必要가 있다. 즉 穀物價格과 勞動費用과의 差로서의 利潤이 資本蓄積을 誘發하고 그 差의 擴大는 그것만으로서 資本蓄積率의 上昇을 誘導한다고 期待할 수 있으며, 또한 人口成長率은 實質賃金과 生存水準과의 差의 增加函數이므로 이 實質賃金과 生存水準의 差가 人口增加를 誘發한다고 하는 動態過程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動態過程에 있어서의 賃金과 利潤率 또는 利率의 變動이 分析되어야 할 것이다. 즉 實質賃金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內生的인 勞動增加를 誘發하기에 充分한 만큼 生存・再生産水準을 上廻하고 있으며, 利率은 正이지만 瞬間的인 人口成長에 適當한 $[1/a_1c_1]-1$ 의 水準보다도 낮다는 것을 恒常的 進行過程으로 생각할 수 있다.⁽⁴⁰⁾ 이 경우에는 規模만이 擴大하고 賃金 및 利潤率은 不變일 것이다.

「리카도」의 賃金 및 利潤率의 理論은 이와 같은 動態의 過程分析이 아니라, 賃金 및 利潤率의 最低限界에의 即時的 適應을 想定한 長期理論이었다. 「리카도」를 비롯한 古典學派는 資本이 蓄積되면 利潤率 또는 利率이 低下하리라고 보았으며, 그것은 賃金이 長期의 水準的 供給表에 의하여 決定되며 最低限界에 即時 落着하리라고 믿었던 것 처럼 利率도 長期水準에 있어서는 水準的 長期供給曲線에 의하여 決定되며 어떤 最低限界의 水準에 歸着할 것이라고 보았다.⁽⁴¹⁾ 따라서 「새뮤얼슨」은 그의 「리카도土地價值說」이 時間을 포함하는 「리카도」體系에 어떻게 擴張되는가를 보이기 위하여 利率에 대하여 第4圖의 賃金の 경우와

(39) 現實에 있어서는 人口增加는, 市場實質賃金과 生存水準과의 差가 存在할 때 人口增加의 內生的條件이 充足되며 市場價格과 勞動費用과의 利潤의 差額이 存在할 때 그것이 人口增加——즉 資本의 擴張——에 使用되므로 그 外生的條件이 充足되어 계속적으로 人口增加가 誘發되는 것이다. Paul A. Samuelson, *ibid.*, Part II.

(40) 原文에서는 이 式에 -1 이 脱落되어 있으나, 式(20)에서 $1+i = (-\frac{1}{c_1a_1})$ $i = -\frac{1}{c_1a_1} - 1$ 이므로 틀린 것이 明白하여 여기서는 訂正하여 놓았다.

(41) 「새뮤얼슨」이 「리카도」에 있어서는 利率이 零이 되기 以前의 最低限界에서 長期적으로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解釋한 것은 「리카도」의 利潤率低下理論과 다음의 句節에 依據한 것이다. 『實際로는 이 時期(利率이 零이 되는 時期——筆者) 以前에 極히 낮은 利潤率은 모든 蓄積을 停止시킬 것이며……』 David Ricardo, *Principles*, pp. 71—72. 『나는 이 價格狀態가 永續的인 것이 되기 훨씬 以前에 資本蓄積의 動機가 없게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 蓄積을 生産的인 것으로 하려는 目的을 가지지 않고서는 資本蓄積을 하지 않을 것이며, 또 蓄積된 資本이 그렇게 使用되었을 때에만 그것은 利潤에 影響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動機없이 蓄積이 行하여 질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價格狀態도 결코 發生하지 않을 것이다. 勞動者가 賃金없이 生活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農業資本家와 製造業者는 利潤없이 生活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의 資本蓄積에 對한 動機는, 利潤이 減少됨에 따라서 減退할 것이며, 그들의 利潤이 그 資本을 生産的으로 使用함에 있어서 그들이 必然적으로 直面하여야만 하는 苦難과 危險에 對하여 充分한 報償을 할 수 없을 程度로 下落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消滅될 것이다.』 David Ricardo, *Principles*, pp. 72—73.

같이 長期的 SS 表를 갖는다고 解釋하고 있다. 즉 그 最低限界의 利子率 以上에서는 蓄積이 이루어지고 그 以下에서는 그 水準을 恢復하려는 負의 蓄積이 이루어지며, 또한 바로 그 水準에서는 正常的 均衡이 成立한다. 그리하여 「새뮤얼슨」은 그의 係數 a, b, c 에 하나의 새로운 重要的 常數 즉 長期利子率을 附加하고 있으며 이것을 $i=d$ 라고 命名하고 있다.

「새뮤얼슨」은 利子率을 取扱함에 있어서 그것을 不變의 常數로 取扱하고 있음에 특히 注意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V

12) 「새뮤얼슨」은 利子率의 問題를 以上과 같이 處理하면 그의 「리카도 土地價値說」은 다음의 諸事實과 一致하므로 長期에도 그대로 妥當한 것이라고 主張한다.

『① 모든 長期的인 値는 土地供給量 L 에 直接的으로 比例한다.

② 生産된 모든 財 (最終財 및 中間財)의 價格 및 賃金率은 모두 地代率 r 에 對하여 穩定的 比率를 가지며, 消費需要의 量的 「패턴」으로부터는 獨立되어 있다.

③ 總地代 또는 純生産物의 絕對水準은 a, b, c, d 만에 依存하며, 消費需要의 構成으로부터는 獨立되어 있지만, 賃金 및 利子에 대한 粗報酬의 絕對的 및 相對的規模는 地主 및 資本家의 消費需要의 量的 「패턴」에 依存한다.』⁽⁴²⁾

「새뮤얼슨」은 以上の 모든 것을 理解시키기 위하여 3財의 例를 들고 있다. y_1 (穀物) 및 y_2 (벨베트)는 生産에 있어서 流動資本만을 必要로 한다고 假定한다. 그러나 「리카도」에 따라서 y_2 는 土地 및 勞動의 最初의 投下와 窮極的인 生産物과의 間に 에컨대 y_1 의 2倍의 時間을 要한다고 假定한다(즉 $\theta_2=2\theta_1$). 最後로 y_3 (金)은 勞動 및 土地(및 土地와 勞動이 成果를 내기 위한 一期間의 經過) 외에 다시 機械의 形態로의 固定資本(및 그것이 土地와 勞動과 協同하여 成果를 내기 위한 一期間의 經過)을 必要로 한다고 假定한다. 이 單純한 3財의 경우는 참으로 「리카도」를 煩惱케 한 複雜한 困難을 모두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相異한 耐久度를 갖는 流動資本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流動資本 만이 아니라 固定資本도 포함하고 있다.⁽⁴³⁾ (사실은 第3의 産業은 새로운 機械과 낡은 機械를 使用하고 있

(42) Paul A. Samuelson, *ibid.*, Part II.

(43) 여기서 「流動資本과 固定資本」을 「可變資本과 不變資本」으로 混同하지 않도록 注意하여야 한다. 「새뮤얼슨」에 있어서는 流動資本은 勞動을 意味하며 그것은 하나의 原料를 他的 原料로 變形하는 生産過程만을 取扱하는 것이고, 한편 固定資本은 機械에 의하여 代表되는 것으로서 勞動 및 原料와 더불어 새로운 原料를 生産하고 또한 副産物로서 다시 낡은 固定資本을 生産하는 過程이라고 解釋하고 있다. Paul A. Samuelson, *ibid.*, Part II.

으므로 實際로는 機械를 生産하는 第四의 産業이 있는 것으로 된다.) 單純化를 위하여 이 體系의 生産費方程式을 다음과 같이 쓴다.

$$\begin{array}{ll}
 \text{(i)} & w = p_1 c_1 \\
 \text{(ii)} & p_1 = (w a_1 + r b_1)(1+d) \\
 \text{(iii)} & p_2 = (w a_2 + r b_2)(1+d)^2 \\
 \text{(iv)} & p_0 = (w a_0 + r b_0)(1+d) \\
 \text{(v)} & p_3 + e_3 p_0' = (w a_3 + r b_3 + p_0 f_3)(1+d) \\
 \text{(vi)} & p_3 = (w a_3' + r b_3' + p_0 g_3')(1+d)
 \end{array} \dots\dots\dots (22)$$

第 1의 方程式은 리카도의 長期的 穀物實質賃金의 理論이다. 第 2의 方程式은 (17)式에 있어서와 같이 穀物의 生産費를 나타내고 있다. 論理를 더 展開하기 前에 方程式 (i)과 (ii)를 간단한 代入에 의하여 解하면 穀物에 의하여 表示되는 地代의 水準, 또는 地代에 의하여 表示되는 穀物의 價格을 주어진 係數(a, b, c, d)에 의하여 決定할 수가 있다. 그리하여 먼저 最初의 3個의 方程式만을 생각해 보면 그것들은 그들 自身으로써, 係數(a, b, c, d)만에 의하여, ($w/r, p_1/r, p_2/r$)를 解하는 充分한 條件이다.

最後의 3個의 方程式은 固定資本의 使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複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그것들은 새로운 機械의 未知의 價格 p_0 를 導入하고 있으며 그것은 第 4의 方程式에 있어서의 그 生産費에 의하여 決定된다. 더욱 複雜한 것은 第 5의 方程式이다. 이것은 第 3의 財 y_3 의 費用 즉 金의 費用 p_3 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金을 生産하기 위해서는 勞動 및 土地와 함께 새로운 機械의 f_3 單位가 必要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른바 副產物으로써 그 過程은 또한 낡은 機械 e_3 를 남기며, 그 各各은 未知의 價格 p_0' 의 價値를 갖는다. 最後의 方程式은 낡은 機械에 의하여 生産된 金에 대해서도 同一한 價格 p_3 를 주어 表示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全部 6個의 未知數($w/r, p_1/r, p_2/r, p_0/r, p_0'/r, p_3/r$)를 決定해야 하는 6個의 方程式을 갖는다. 만일 一般化된 「호킨스-사이몬」의 條件이 許容된다면 이들은 一義的인 正의 解를 決定한다. 여기서 強調해야 할 重要한 것은 『만일 本源的要素의 報酬(r, d)가 주어진다면, 結果로서의 價格의 「패턴」은 消費需要의 構成으로부터는 전혀 獨立의이다.』⁽⁴⁴⁾라는 것이다. 方程式 (22)는 固定的係數 (a, b, d, e, f, g)의 경우에 대하여, 이 事實을 극히 明白히 해주고 있다. 그러나 例컨대 (ii)~(vi)式에 有限 또는 無限의 代替可能한 過程이 있

(44) Paul A. Samuelson. *ibid.*, Part II.

다고 할지라도, 穀物·「벨베트」, 또는 金에 대한 消費需要의 變化는 어떠한 새로운 代替를 有利하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결국 社會의 純生産物은 土地 L 에 比例的인 것으로 될 것이다. 蓄積이 存在하지 않으므로 純生産物은, 全消費財의 粗價値로부터 勞動者 및 利子取得者에 의하여 消費되는 財를 差減한 것과 같을 것이다. 어떻게 하여 純生産物을 그와 같이 定義하는가? 「리카도」以後의 用語를 빌리면, 勞動者 또는 資本家가 享受하는 消費者剩餘 또는 生産者剩餘가 存在하지 않고, 그들의 報酬는 그들의 費用을 充當하기에 꼭 알맞게 充分한 것이기 때문이다. 純生産에 대한 方程式은,

$$\frac{p_1}{r} Y_1 + \frac{p_2}{r} Y_2 + \frac{p_3}{r} Y_3 = L, \quad \dots\dots\dots(23)$$

이 된다. 여기서 各各의 p 는 (22)式으로부터 導出된다. 純生産物의 總價値는 需要(Y)의 構成의 變化에 의하여 影響을 받지 않지만, 賃金의 總額 및 利子附資本의 總額은 明白히 需要의 構成에 依存한다. 그리하여 만일 地主(또는 資本家)가 더욱 勞動集約的인 財를 願한다면, 賃金의 短期的上昇은 人口의 永久的增加에 의하여 相殺되며 典型的人間은 以前보다 良好한 狀態에 到達함이 없이 一定의 生活水準에서 머물게 된다. 마찬가지로, 만일 最終需要가 資本集約的 財의 方向으로 移動한다면, 總利子報酬 및 資本價値는 永久的으로 上昇하지만 1「달려」當 報酬는 즉 d 는 假說에 의해서 以前 그대로 停止하게 된다.

지금까지 보아온 것이 時間과 資本을 導入할 경우에도 「리카도土地價値說」은 成立하며 賃金과 모든 各種財貨의 相對價格은 地代 r 에 대하여 確定的인 比率를 갖고 土地投下量에 比例한다는 「새뮤얼슨」의 主張의 要點이다.

3. 「새뮤얼슨」의 「리카도」解釋方法

「리카도」經濟學의 長期體系를 「土地價値說」이라고 解釋한 「새뮤얼슨」의 理論이 어느程度 妥當한 것인가를 보기 前に 우리는 먼저 「새뮤얼슨」의 理論의 方法論的 體系를 간단히 整理할 必要가 있다. 왜냐하면 「새뮤얼슨」의 理論은 약간 衞學的인 高級의 抽象理論이므로 그의 代數方程式이나 記號論理를 理解하는 途中에서 그의 「리카도」解釋의 方法의 基本體系가 分散되어 理解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 「새뮤얼슨」에 의하면, 各財의 價格=生産의 要素費用으로 理解되며 勞動價値論은 投下勞動이 各財의 相對價格을 測定하는 唯一의 絕對的 價値尺度이며 價値의 本源的 創造者라고 主張하는 假說이라고 理解된다.⁽⁴⁵⁾ 그런데 勞動만을 要素費用으로 생각할 수 있는 未

開社會에서는 勞動費用만으로써 價格을 豫測할 수 있으므로 單純한 勞動價值說은 成立될 수 있으며 이때 土地와 資本은 無視된다고 假定한다. 그러나 「리카도」에 있어서와 같이 土地가 이미 自由財가 아니고 土地의 稀少性和 土地收穫遞減의 法則이 經濟理論의 基礎를 이루고 있는 곳에서는 地代(r) 즉 土地費用은 無視될 수 없으며 또한 資本蓄積이 이루어지고 機械生産과 같은 固定資本과 資本의 相異한 耐久度가 問題되는 곳에서는 資本과 時間 즉 利率을 無視할 수 없다. 單純化를 위하여 우선 土地만을 導入할 경우에 財貨의 價格은 土地費用 rb_i 를 포함하게 되며 勞動은 이미 財貨의 相對價格을 測定하는 唯一의 絕對的價值尺度의 機能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리카도」와 종래의 古典學派의 研究者들은 外延的耕作限界(extensive margin) 즉 限界의 最劣等地에 移動함으로써 勞動이 地代를 支拂하지 않는 自由財로서의 土地와 協同하여 勞動만이 商品生産의 全費用이 된다는 差額地代論의 方法으로써 土地 및 地代가 勞動價值說의 成立에 어떠한 困難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새뮤얼슨」에 의하면 이것은 錯覺이다. 「리카도」의 差額地代論은 異質의 土地를 對象으로하여 外延的 耕作限界를 想定하는 「外延的」地代論(差額地代의 第1形態)과 同質의 土地를 對象으로 하여 集約的 耕作限界(intensive margin) 또는 内部的 耕作限界(internal margin)를 想定하는 「内部的」地代論(差額地代의 第2形態)을 아울러 가지고 있었으나, 前者의 경우에는 資源配分の 問題에 關한 새로운 均衡問題가 發生하며 實際에는 地代를 支拂하지 않는 外延的 耕作限界는 存在하지 않는다.⁽⁴⁵⁾ 한편 後者の 同質의 土地의 경우에는 新古典派 理論과 同一한 意味에서의 差額地代論이 妥當하지만, 古典學派에 있어서와 같이 勞動의 生存賃金 또는 固定的生産係數를 假定하면 總生産物과 總勞動費用과의 差額으로 나타나는 「殘餘地代論」(residual rent)이 成立한다. 그러므로 生産의 要素費用으로써 地代를 迴避하는 것은 非現實的인 것이며 어느 경우에나 不可能한 것이다.

(45) 여기서 注意할 것은 「새뮤얼슨」은 價值와 相對價格을 어떠한 경우에도 區別하여 使用하고 있지 않으며, 모든 경우에 價格이라는 用語를 使用하고 오직 財貨의 本源의 創造者의 問題를 論議할 때 價值라는 用語를 使用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그가 價值論에 있어서 量的 側面은 價格으로 理解하고 質的 側面을 價值創造라고 理解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결국 「새뮤얼슨」도 「리카도」의 價值論이 相對價值와 眞實價值 두가지 側面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暗黙의으로 認定하고 있는 것이다.

(46) 「새뮤얼슨」은 異質의等級의 土地에서는 「리카도」가 對外貿易에서 展開한 比較生産費原理과 같은 問題가 發生한다고 指摘하고, 그의 論文 第一部의 附錄에서 이것을 線型計劃의 方法을 使用하여 考察하고 있다. 또한 「새뮤얼슨」은 土地의 稀少性이 支配하는 社會에서는 모든 土地가 多少問의 地代를 支拂하게 되며, 이것은 差額地代를 測定하는 基準인 「地代를 支拂하지 않는 外延的 耕作限界」를 消滅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이 점에 있어서는 「새뮤얼슨」은 그 後에 發展된 絕對地代의 理論을 暗黙의으로 援用하고 있는 것이다.

「새뮤얼슨」은 地代를 要素費用의 不可缺의 一部分으로 考慮할 때 勞動費用 또는 勞動投入係數만으로서 財貨의 相對價格을 正確히 豫測하거나 測定할 수 없으므로 『勞動이 交換價値의 唯一한 原因이며 그 唯一의 絶對的 價値尺度이다』라는 勞動價値說은 여기서 崩壞한다고 본다. 즉 「새뮤얼슨」이 「리카도」勞動價値說을 崩壞시키는 方法은 財貨의 價格形成에 있어서 地代(그것이 어떠한 形態의 것이든)의 廻避 不可能을 論證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2) 다음 「새뮤얼슨」은 어떠한 方法으로 「리카도」經濟學에 있어서 「土地價値說」을 成立시키고 있는가? 單純化를 위하여 穀物・勞動・土地로 된 經濟를 假定하고 勞動과 土地가 協同하여 總穀物生産物을 生産한다고 생각한다. 古典學派의 理論에 의하면 勞動의 賃金은 穀物로 測定되며 慣習的인 生存水準에서 決定된다. 이 경우에 勞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새뮤얼슨」은 古典學派의 生存賃金論에 根據를 두고 勞動을 穀物の 生産物이라고 規定한다. 그러면 勞動의 賃金으로서의 穀物은 무엇인가? 그것은 土地(및 勞動)의 生産物이다. 따라서 勞動은 穀物生産을 위한 協同的 投入要素이지만 그것은 體系內에서 穀物에 의하여 再生産可能한 것이므로 그것은 「凝結된」 또는 「投下된」(embodied)穀物이라고 볼 수가 있다. 여기서 再生産不可能한 것은 「土地」(land) 뿐이다. 土地는 勞動의 再生産을 위한 穀物賃金の 源泉이며 地代의 純生産物의 源泉이며, 總生産物의 源泉이다. 따라서 土地야말로 本源的인 生産要素이며 價値의 「創造者」(creator)이다. 또한 勞動을 「凝結된」 또는 「投下된」穀物로 볼 수 있는데 『穀物自體가 凝結된 또는 投下된 土地로 볼 수 있으므로 勞動도 또한 窮極的으로는 投下된 土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⁴⁷⁾ 따라서 土地야말로 모든 財貨 또는 生産物의 交換價値의 本源的 創造者이며 그 唯一의 「絶對的價値尺度」이다. 여기에서 「새뮤얼슨」의 「리카도土地價値說」이 成立된다. 즉 「새뮤얼슨」이 「리카도土地價値說」을 成立시키는 方法은 『土地가 가장 單純한 「모델」에 있어서 唯一의 本源的 즉 生産不可能한 要素이므로 土地는 體系의 모든 純生産物을 여기에 歸屬시키는 것』⁽⁴⁸⁾이며, 勞動을 비롯한 其他의 모든 生産要素는 「投下된 土地」라고 볼 수 있다는 事實에서 出發하고 있다. 「새

(47) Paul A. Samuelson. *ibid.*, Part I.

(48) 이것은 價値論의 質의 側面에 있어서 價値를 具體的으로 形成하는 眞實價値의 本源的 創造者가 무엇인가 하는 問題에 대한 「새뮤얼슨」의 回答이다. 「새뮤얼슨」에 의하면 「리카도」및 古典學派의 體系內에서는 모든 것은 再生産可能하며, 勞動도 古典學派生存賃金을 前提로 하는 限穀物의 生産物에 不過하다. 오직 再生産不可能한 本源的인 것은 土地뿐이므로 價値의 根源的 源泉은 「土地」라고 본다. 여기서 우리는 「새뮤얼슨」이 土地를 「再生産不可能한 本源的 要素」이기 때문에 價値의 創造者라고 보고 있으며 眞實價値의 原因이 土地로 된다고 推論하고 있음에 特別 注意할 必要가 있다.

뮤엘슨」은 그의 이러한 方法은 「리카도」가 『價値를 發生시키는 것은 稀少性과 「보틀넥크」이다 (it is scarcity and bottlenecks that give rise to value)』라고 規定한 것과 一致되는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⁴⁹⁾ 왜냐하면 土地야 말로 人間이 任意로 生産할 수 없는 것이며 稀少性を 가진 全地球上의 有限한 것이기 때문이다.

「새뮤엘슨」이 「리카도」의 長期「모델」을 勞動價値說이 아니라 「土地價値說」이라고 말하는 것은 土地가 財貨의 價値形成의 本源要素일 뿐만 아니라 모든 財貨의 價格을 土地投下量으로 써 正確히 測定할 수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따라서 「새뮤엘슨」은 모든 財의 價格을 土地投下量으로 測定하는 代數方程式을 定立하여 그의 「리카도土地價値說」을 證明하려 하고있다.

3) 「새뮤엘슨」이 그의 「리카도土地價値說」을 證明하는 方法은 單純한 모델에 있어서 모든 財貨의 價格을 土地費用과 勞動費用으로 形成된다고 보고 그것들을 直接的 土地投下量과 間接的 土地投下量으로 分解하여 計量化하는 代數方程式을 定立하는 것이다.

여기서 勞動을 土地投下量으로 分解하여 計量化하는 方法은, 勞動은 慣習의 生存水準에서 決定되는 穀物로 測定할 수 있으므로, 時間의 最初에 까지 소급하여 勞動을 生産하기 위한 穀物을 生産하기 위한 勞動을 生産하기 위한 ……穀物을 生産하는데 必要한 土地 等等으로 分解하는 無限系列의 乘數를 使用함으로써 獲得된다. 「새뮤엘슨」은 이러한 無限系列의 乘數를 使用하여 勞動費用(w/r)과 多數財의 價格($p_1/r, \dots, p_n/r$)을 土地投下量으로 表示하는 다음과 같은 最終의 方程式을 定立한다.⁽⁵⁰⁾

$$\begin{aligned} w/r &= (\sum c_i b_i)(1 - \sum c_j a_j)^{-1} \\ p_1/r &= (\sum c_j b_j)(1 - M c_j a_j)^{-1} a_1 + b_1 \\ &\vdots \quad \quad \quad \vdots \quad \quad \quad \vdots \quad \quad \quad \vdots \\ p_n/r &= (\sum c_j b_j)(1 - \sum c_j a_j)^{-1} a_n + b_n \end{aligned}$$

여기서 注意할 것은 w/r 또는 p_i/r 가 勞動費用이나 多數財의 價格의 絕對價格水準을 決定하는 것이 아니다. 勞動費用과 多數財의 價格의 地代 r 에 대한 比率를 一義적으로 決定한 것이다. 勞動費用과 其他 모든 價格을 r 에 對한 比率로 取한 것은 土地(더욱 正確히 말하면 土地의 價格)을 計算尺度로 使用함으로써 勞動費用과 모든 價格을 土地投下量으로써 表現한 것으로 되는 것이다.⁽⁵¹⁾

(49) Paul A. Samuelson, *ibid.*, Part I. 「리카도」는 明白히 稀少性도 勞動과 더불어 價値를 發生시키는 源泉이라고 말하고 있다. 『財貨가 効用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交換價値는 두가지 源泉으로부터 나온다. 즉 그 財貨의 稀少性으로부터와, 그 商品을 獲得함에 必要되는 勞動量으로부터 이다.』 David Ricardo, *Principles*, p. 5.

(50) Paul A. Samuelson, *ibid.*, Part I.

또한 「새뮤얼슨」은 「開放 레온티에프體系」의 方法을 使用하여 奢侈品, 賃金財……勞動이라고 하는 中間財 등 各種의 財의 費用을 그 直接・間接의 土地投下量으로 分解하는 投入產出表를 作成해 보이고 있으며, 이것을 다시 行列形式으로 表示하여 그의 「리카도 土地價値說」의 成立을 證明하고 있다.⁽⁵²⁾

4) 다음 「새뮤얼슨」은 土地 뿐만 아니라 資本과 時間이 導入되는 長期에 있어서도 그의 「리카도土地價値說」이 妥當하다는 것을 主張하고 있다. 資本과 時間을 導入할 경우에 「새뮤얼슨」이 그의 「리카도土地價値說」을 成立시키는 方法은 土地를 導入할 경우 「土地價値說」이 成立됨을 認定하면 매우 單純한 것이다. 즉 예컨대 機械등과 같은 固定資本을 使用하여 生産된 財貨의 경우에는 固定資本을 蓄積된 過去勞動이라고 보고 그 機械를 生産하기 위하여 使用된 勞動을 生産하기 위하여 使用된 穀物을 生産하기 위하여 必要한 土地를 時間의 最初에 까지 소급하여 역시 無限系列의 乘數를 使用함으로써 土地投下量으로 換算할 수 있다.⁽⁵³⁾ 또한 利子率에 대해서는 古典學派가 利子率은 長期의 最低限界에서 머물게 된다고 본 점에 着眼하여 「새뮤얼슨」은 賃金과 마찬가지로 利子率의 水平的 長期供給曲線을 假定하여 利子率을 常數로 取扱해 버림으로써 간단히 處理하고 있다. 固定資本費用을 土地投下量으로 計量化할 수 있고 利子率을 不變의 常數로 取扱하면 「새뮤얼슨」의 「리카도土地價値說」은 時間을 포함하는 長期에도 如前히 成立하는 것이다.⁽⁵⁴⁾

5) 이상과 같은 方法으로 「새뮤얼슨」은 「리카도」經濟學이 勞動價値說이 아니라 「土地價値說」임을 論證한 다음 대개 다음과 같은 要旨의 感想을 피력하고 있다. 『만일 「리카도」가 종종 한 것처럼 보이는 特殊한 長期的인 計量經濟學의 假定을 設定할 수 있다면, 어떤 意味에서 결국 重農主義者들은 正當하였다!』.⁽⁵⁵⁾

『重農主義者들이나 古典學派가 알고 있었던 바와 같이 土地의 이와같은 中心的 重要性

(51) 「새뮤얼슨」의 「리카도」土地價値說에 있어서는 「地代」는 相對價格을 測定하는 「不變의 價値尺度」가 될 뿐 아니라 또한 國家의 原因으로도 된다. 第4圖에서 보는 바와 같이 社會의 總生産物의 增加는 地代(즉 純生産物)의 增加에 正確히 比例하며 地代의 增加에 의하여 一義적으로 決定된다.

(52) Paul A. Samuelson, *ibid.*, Part I. 本稿의 本章 第1節 參照.

(53) 「새뮤얼슨」은 耐久度가 다른 固定資本을 使用할 경우 그것을 土地投下量으로 換算하는 方程式은 만들지 않고 오직 生産費方程式만으로 끝내고 있다. 그러나 第1部에서와 마찬가지로 固定資本을 使用한 경우에도 「土地價値說의 方程式」 p_i/r , w/r 를 이 生産費方程式에서 導出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勞動을 投下土地量으로 分解할 수 있음을 認定하기만하면 固定資本을 投下土地量으로 分解하는 것은 容易한 것이다.

(54) Paul A. Samuelson, *ibid.*, Part II. 本稿의 本章 第2節 參照.

(55) Paul A. Samuelson, *ibid.*, Part I. "In a sense the Physiocrats were right after all if you can make the special long-run econometric assumptions that Ricardo seems often to do!"

(this central importance of land)은 公共政策과 課稅에 대하여 커다란 意味를 가질 것이다」⁽⁵⁶⁾라고. 그리고 끝으로 「리카도」에 대하여 「새뮤얼슨」은 『리카도의 論理的 能力이 약간 誇張되어오고 있다』고 하고⁽⁵⁷⁾, 古典學派는 많은 事實이 必然的으로 이러이러하다고 斷言하고 있으나 近代理論家는 반드시 그렇다고 限定하지 않는 것을 認定함으로써 그들보다 謙讓하며, 近代理論家의 高級의 理論은 過度히 單純한 古典學派의 直觀的 理論에 대한 解毒劑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끝맺고 있다.

만일 「새뮤얼슨」의 「리카도」經濟學에 대한 새로운 解釋이 正確하고 妥當한 것이라면 「리카도」에 대한 종래의 正統的解釋과 經濟學說史의 體系는 修正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새뮤얼슨」의 理論이 어느程度 妥當한 것인가를 보기 위하여 이 問題에 관한 古典學派의 理論을 「새뮤얼슨」의 理論과 關聯시켜 檢討해보고 다시 「새뮤얼슨」의 理論을 檢討하기로 한다.

III. 古典學派에 있어서 地代와 價值法則

1. 價值規定과 土地

I

「새뮤얼슨」이 土地를 導入하여 「리카도」의 勞動價值說을 土地價值說로 轉倒하기 以前 이 「리카도」生存時節에 土地의 私的 占有는 支配的인 社會制度로 存續하고 있었다. 아니 「새뮤얼슨」이 사는 時代보다 「리카도」時代에 있어서 土地의 經濟的 比重은 더 크고 中心的이었다. 地主階級이 強力한 社會階級으로서 權力을 掌握하고 있었고 地代는 經濟의 分配分의 가장 重大한 몫이었으며 穀物法(Corn Law)이 地主階層의 利益을 強力히 保障해 주고 있었다. 「리카도」自身 穀物法論爭에 참가하여 이 過程에서 그의 經濟學과 價值論을 形成하였으므로 土地와 地代는 그의 經濟理論에서 一次的으로 當面한 問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카도」는 왜 자기의 價值論을 「土地價值說」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가?

「리카도」는 그의 價值論을 主著인 『政治經濟學과 租稅의 原理』의 第1章 「價值에 關하여」의 第1節의 表題에서 극히 明白하게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즉 『한 財貨의 價值

(56) Paul A. Samuelson, *ibid.*, Part I.

(57) Paul A. Samuelson, *ibid.*, Part II.

그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리카도」가 過大評價되어오고 있다고 한다면 「스미드」는 우리 時代에 있어서 상당히 過少評價되고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은 理論家로의 評價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또는 그 財貨와 交換될 다른 어떤 財貨의 分量은 그 生産에 必要한 相對的 勞動量에 의하여 決定되는 것이며, 그 勞動에 대하여 支拂되는 報酬의 多少에 의하여 決定되는 것이 아니다.』⁽⁵⁸⁾ 그리고 「리카도」는 生存時의 많은 論敵들로 부터의 批判과 그 自身の 價値修正論이 있는 後 그의 生涯의 最後의 數週間에 쓴 것으로 알려진 手稿인 「絕對價値와 相對價値」(Absolute Value and Exchangeable Value)의 마지막 部分에서 價値問題에 관한 그의 最後의 見解를 다음과 같이 披瀝하고 있다. 『價値라는 말로 내가 무엇을 意味하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基準으로 하여 一般商品의 價値가 變動하였는가 變動하지 않았는가를 判斷하는가라고 나에게 質問할 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이 對答한다. 나는 한 財貨가 싼가 비싼가를 判斷함에 있어 그것을 獲得하기 위하여 支出한 勞動의 犧牲 以外에 어떠한 基準도 알지 못한다. 모든 財貨는 元來 勞動에 依하여 購買된다. 價値가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勞動없이 生産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萬若 織物과 같은 商品을 生産하는데 어느 때에는 1年間 10人의 勞動이 必要하였는데 다른 때에는 같은 期間동안 5人의 勞動만을 必要로 한다면 그것은 2倍 低廉하게 될 것이다. 또는 萬若 同量의 同一織物을 生産하는데 如前히 10人의 勞動이 必要하지만 12個月 代身에 6個月 동안에 生産된다면 그 織物의 價値는 下落할 것이다. 商品에 消費된 勞動量의 大小가 諸商品의 價値變化의 唯一한 原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商品이 勞動의 生産物이며 그것에 支出된 勞動에 對한 것 以外에는 어떠한 價値도 갖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事實에 同意만 한다면 完全히 理解되는 것이다.』⁽⁵⁹⁾ 여기서 우리가 明白히 認識할 수 있는 것은 「리카도」 自身은 스스로 「勞動價値說」(labor theory of value)이라는 用語를 使用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財貨의 價値는 그 財의 生産에 投下된 勞動量에 의하여 決定되며 財貨의 交換도 各財貨의 生産에 投下된 相對的 勞動量에 의하여 購買된다는 것을 明白히 規定함으로써 「勞動」이 唯一한 「不變의 價値尺度」라는 一元論的 投下勞動價値論을 展開하고 있다는 것이다.

「리카도」는 「스미드」에 따라 價値를 使用價値(value-in-use)와 交換價値(value-in-exchange)로 區分하고 적어도 交換價値를 갖는 財貨는 使用價値 또는 「効用」을 갖고있지 않으면 안되며 『効用은 交換價値에 대하여 絕對不可缺한 것이지만 그 尺度는 아니다』⁽⁶⁰⁾라고 하여

(58) David Ricardo, *Principles*, p. 5.

(59)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David Ricardo*; edited by Piero Sraffa with the Collaboration of M. H. Dobb, 1951, Vol. IV, "Absolute Value and Exchangeable Value" p. 397. 以下 David Ricardo, *Works* 라고 略함.

(60) David Ricardo, *Principles* p. 5.

使用價値를 價値論에서 除外하고 交換價値를 그의 價値論의 問題로 삼았다.⁽⁶¹⁾ 「리카도」에 의하면, 『財貨가 効用을 가졌다고 한다면 諸商品의 交換價値는 두개의 源泉으로 부터 나온다. 즉 하나는 商品의 稀少性으로부터이며 또 하나는 그 商品을 獲得하는데 必要한 勞動量으로부터이다.』⁽⁶²⁾ 價値가 稀少性(scarcity)에 의하여 決定되는 것은 人間이 勞動을 投下하여 自由로이 增加시킬 수 없는 「任意不可增財」의 경우이다. 若干의 稀貴한 彫像과 繪畫, 珍貴한 書籍과 硬貨 및 特別한 土地에서 栽培되는 葡萄로써만 만들 수 있는 特級の 葡萄酒와 같은 것은 勞動을 더 投下하여도 生産을 增加시킬 수 없으므로 그 價値는 이들 商品의 生産에 投下된 勞動量과는 關係없이 그것들을 所有하려고 欲望하는 사람들의 富力과 嗜好에 따라 여러가지로 變動한다. 『그러나 이러한 商品은 每日 市場에서 交換되는 商品의 總量中에서 極히 小部分만을 차지하는 것이다. 欲望의 對象이 되는 大部分의 이들 商品은 勞動에 依하여 生産하여 獲得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勞動을 投下한 한다면 非單一國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國家에서 거의 無制限으로 增加될 수 있는 것이다.』⁽⁶³⁾ 따라서 「리카도」는 商品一般의 價値를 問題로 할 경우에는 人間の 勞動에 의하여 量的으로 얼마든지 增加시킬 수 있으며 生産上 自由競爭이 制限없이 作用하고 있는 財貨만을 考察하면 充分하다고 보고 稀少性에 의하여 價値가 決定되는 商品을 例外的인 것으로써 全的으로 除外하고 있다. 그리하여 「리카도」는 商品의 價値가 投下勞動量에 依하여 決定된다고 結論지으면서 價値法則의 重要性和 價値概念의 正確한 把握의 必要를 다음과 같이 表現하고 있다. 『人間の 勞動에 의하여 增加할 수 없는 것을 除外하고는 勞動만이 모든 財貨의 交換價値의 基礎라는 것은 政治經濟學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學說이다. 왜냐하면 政治經

(61) 그러나 「리카도」의 價値概念 속에는 交換價値 또는 相對價値와 함께 「絕對價値」 또는 「眞實價値」의 概念이 포함되어 「價値」의 두 側面을 形成하고 있음에 注意할 必要가 있다. 즉 그가 價値論의 冒頭에서 『한 財貨의 價値는 또는 그 財貨와 交換될 다른 어떤 商品의 分量은 그 財貨의 生産에 必要한 相對的 勞動量에 의하여 決定되는 것이며, ……』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分明히 相對價値를 意味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약 財貨에 實現된 勞動의 分量이 그 交換價値를 左右한다고 하면, 勞動量의 各增加는 財貨의 價値를 增加하고 그 各減少는 그 價値를 低下시키게 된다』고 말할 때 그 價値는 分明히 絕對價値를 意味하고 있다. 즉 한 財貨의 生産에 있어서 投下勞動量의 増減은 그 財貨의 價値의 増減을 決定하며 이 때 投下勞動量은 그 財貨의 이윤과 價値形成實體로서의 意義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리카도」가 한 財貨의 交換價値가 그 財貨의 生産에 必要한 相對的 勞動量에 의하여 決定된다고 할 때 그 交換價値는 이미 投下勞動量에 의하여 그 財貨의 眞實價値가 決定된 다음 그것이 다른 財貨의 그것과의 比에 의하여 決定된다는 것을 前提하는 것이다. 그가 相對價値와 絕對價値를 嚴密히 區分하면서도 매때로 이 兩概念을 모두 「價値」라는 概念으로 混用하고 있는 것은 이 相對價値와 絕對價値의 統一的 聯關을 不明瞭하게나마 自명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理解된다.

(62) David Ricardo, *Principles*, p. 5.

(63) David Ricardo, *Principles*, p. 6.

濟學에 있어서 價値라는 用語에 附着된 曖昧한 觀念으로부터 생기는 것과 같이 많은 誤謬와 많은 意見差異가 發生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⁶⁴⁾ 「리카도」가 投下勞動量에 의하여 商品의 交換價値가 決定된다고 規定할지라도 이 學說의 定立을 위하여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가지 問題를 解決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첫째는 種類를 달리하는 異質勞動을 어떻게 等質化할 것인가하는 問題이다. 왜냐하면 量的 比較는 반드시 等質性을 前提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問題에 대하여 「리카도」는 勞動의 質的 差異를 量的 差異로 還元하는 방식에 의하여 問題를 解決하려고 하고 있고 그 방식으로써 異質勞動의 「市場에서의 評價」(estimation in the market)에서 問題解決을 求하고 있다.⁽⁶⁵⁾ 다음 둘째 問題는 同一種類的 商品生産에 있어서도 相異한 生産條件에 따라 投下勞動量이 相異하게 되는 問題를 어떻게 解決하는가 하는 것이다. 「리카도」는 이 問題에 대하여 原則적으로 ① 農業部門에서는 가장 不利한 生産條件 밑에서 投下된 「最大勞動量」에 의하여 價値가 決定되고 ② 工業部門에서는 平均條件下의 投下勞動量이 價値를 決定한다고 보는 두가지 方向에서 問題를 解決하였다.⁽⁶⁶⁾

「리카도」는 다음 그의 投下勞動價値法則을 資本蓄積과 土地占有가 進展된 社會에 適用시키기 위하여 資本과 地代의 問題를 解決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먼저 資本을 問題로 할 경우 「리카도」에 있어서 資本은 蓄積된 間接勞動 또는 過去勞動에 不過하였다. 즉 「리카도」가 財貨의 價値는 投下勞動量에 의하여 決定된다고 말할 때, 그것은 直接 投下된 勞動만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道具, 機械, 建物……等の 資本을 意味하는 間接으로 投下된 勞動量도 同時に 包含하게 된다. 「리카도」는 그의 『原理』의 第1章 第3節의 表題에서 「諸商品에 直接 投下된 勞動만이 그 價値에 影響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勞動을 補助하는 機械, 道具, 建物에 投下된 勞動도 또한 그 價値에 影響을 끼치는 것이다」라고 明白히 規定하고 「아담 스미드」의 例를 들고 있다.⁽⁶⁷⁾

(64) David Ricardo, *Principles*, p. 7.

(65) 이에 대한 解釋은 崔文煥, 『經濟學史』, p. 207 參照.

(66) 「리카도」는 때때로 工業生産物의 價値도 「最大勞動量」에 의하여 決定된다고 생각한 것처럼 보이는 混亂도 나타나고 있으나, 그의 全體系를 通하여 볼 때 土地生産物의 價値는 그 生産에 必要한 最大分量에 의하여, 工業製品의 價値는 社會의 一般的인 平均勞動量에 의하여 決定된다고 보았다고 解釋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67) 「아담 스미드」가 言及하고 있는 그 初期의 狀態에 있어서 까지도 狩獵者가 鳥獸를 捕殺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아마 狩獵者 自身이 製作하고 蓄積한 것일지라도 어떠한 資本이 必要했을 것이다. 어떠한 武器없이 는 물개나 사슴을 捕殺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動物의 價値는 다만 그 捕殺에 必要한 時間과 勞動에 依하여 左右될 뿐만 아니라 狩獵者의 資本 즉 그 捕殺을 補助하는 武器를 만드는데 必要한 時間과 勞動에 依하여서도 左右될 것이다. 물개를 捕殺하는데 必要한 武器는 사슴을 捕殺하는데 必要한 武器에 比하여 물개에

「리카도」는 다음 이러한 投下勞動價値의 原理는 資本이 一階級에 屬하고 勞動은 다른 一階級에 屬하는 資本主義社會에서도 妥當할 것이며 다만 이 社會에 있어서는 生産物의 價値는 두 階級間에 즉 하나는 資本에 대한 利潤으로서, 다른 하나는 勞動에 대한 賃金으로서 分割될 뿐이다. 그러나 이 分割比率이 어떻게 定하여 지든지 간에 財貨의 相對價値에는 조금도 影響을 끼치지 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리카도」는 社會의 더욱 큰 進歩가 이루어져서 한 財貨를 生産하는데 必要한 生産手段이 數 많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生産되고 또 그 生産手段을 生産하는데 또 다른 數 많은 生産手段을 使用한다 한지라도 投下勞動量의 原理는 如前히 眞理일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 商品의 價値는 그 生産에 投下된 여러가지의 直接勞動과 더욱 많은 種類의 여러가지의 間接勞動의 合計 즉 直接・間接의 總投下勞動量에 의하여 決定될 것이기 때문이다.

「리카도」가 資本을 間接勞動으로 解消시킨 것은 價値法則과 分配法則을 統一시키고 價値論을 分配論 및 그의 經濟理論의 基本原理로 되게 한 決定的 契機를 이루었다. 「리카도」는 資本을 蓄積된 過去勞動 또는 間接勞動으로 理解함으로써 勞動의 總價値가 賃金과 利潤으로 分配된다고 보아 그의 投下勞動價値法則으로서 分配現象을 說明할 수 있었다.

II

「資本의 蓄積」이 解明되었다고 하면, 다음 土地는 「리카도」의 價値論과 어떠한 關係를 갖는가? 우리는 이제야 「새뮤얼슨」이 提起한 問題의 本論에 들어간 셈이다.

「리카도」는 土地를 包含한 自然의 힘이 生産에 대하여 至大한 貢獻을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理解하고 있었다. 「리카도」는 「스미드」가 『農業에 있어서는 自然이 人間과 함께 勞動을 하지만 製造業에 있어서는 自然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며 人間이 모든 것을 한다』고 理解한 것을 反駁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自然은 製造業에 있어서는 人間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는가? 우리의 機械를 움직이고 航海를 돕는 風力과 水力은 아무 것도 아닌가? 우리들로 하여금 가장 驚嘆할 만한 機械를 運轉할 수 있도록 하는 氣壓과 蒸氣의 彈力性— 그것들은 自然의 贈與物이 아닌가? 金屬을 柔軟케 하고 熔解하는 熱의 效果, 그리고 染色 및 醱酵過程에 있어서의 空氣의 分解力의 效果에 대하여서는 말하지 않더라도 自然이 人間에게 助力하지 않거나 더구나 그것도 寬大하게 無償으로 주지 않는 製造業이란 하나도 들 수 없는 것이다.』⁽⁶⁸⁾ 「리카도」는 財貨의 生産에 있어서의 土地

의 接近이 一層 더 困難하고 따라서 一層 正確한 照準을 必要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勞動으로써 製作되었다고 假定하자. 그러면 물개 한마리는 사슴 두마리 보다 더욱 많은 價値가 있을 것이다. 그 理由는 全體적으로 볼 때 물개를 捕殺하는데 보다 많은 勞動이 必要하였으리라는 바로 그 때문이다.』 David Ricardo, *Principles*, p. 13.

를 포함한 自然의 役割을 이와같이 「스미드」보다 더 잘 理解하고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土地가 價値를 形成하거나 價値를 增加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價値論에서 除外하였다. 왜냐하면 土地는 自然의 贈與物(gift of nature)이며, 自然은 社會의 富 또는 使用價値를 增加시키는 것이기는 하지만 財貨의 交換價値를 增加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富는 「스미드」가 理解한 바와 같이 「豊富性」 또는 「人間生活의 必需品 便宜品 및 娛樂品을 享有할 수 있는 程度」 또는 使用價値의 總量이지만 價値는 使用價値 또는 富와는 區別되는 財貨의 純粹한 社會의 關係의 表現이며, 따라서 自然的 關係는 價値論에서는 除外되는 것이다.

土地가 富를 增加시키는 것이며 價値를 增加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리카도」의 見解를 理解하기 위해서는 富와 價値의 概念을 明白히 區別할 수 있어야 한다. 「리카도」는 그의 價値論의 冒頭에서 使用價値와 交換價値를 區別하여 使用價値가 交換價値에 대하여 絕對不可缺한 것이지만 전혀 그 尺度가 아니라는 것을 明確히 밝히고 있지만 다시 第20章 「價値와 富 및 그 差異를 나타내는 諸特性」에서 다음과 같이 區別하고 있다. 『價値는 本質的으로 富와는 相異한 것이다. 왜냐하면 價値는 豊富性에 의하여 決定되지 않고 生産의 難易 如何에 따라서 決定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製造業에 從事하는 百萬人の 勞動은 恒常 同一한 富를 生産하는 것은 아니다. 機械를 發明함으로써, 熟練을 進歩시킴으로써, 分業을 改善함으로써, 또는 一層 有利한 交換을 行할 수 있는 新市場을 發見함으로써, 社會의 어떤 狀態下에 있어서의 百萬人은 다른 狀態下에서 生産할 수 있는 富 즉 「必需品, 便宜品 및 娛樂品」의 2倍 또는 3倍의 分量을 生産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價値는 그 때문에 조금도 增加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價値는 그 生産의 難易에 比例하여 즉 換言하면 그 生産에 使用되는 勞動量에 比例하여 騰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⁶⁸⁾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明白히 認識할 수 있는 것은 價値의 增加 또는 騰落을 決定하는 것은 生産에 投下된 勞動量 뿐이며 土地는 價値의 增減과는 關係없이 오직 富를 變動시킬 수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社會의 進歩를 假定하면 勞動의 生産性이 끊임없이 向上되므로 同一한 勞動을 使用하여 生産되는 社會의 商品總量이 增加하고 따라서 國富가 增加할 것이며, 國富뿐만 아니라 將來의 生産力까지도 增大시키겠지만, 그럼에도 不拘하고 個別 商品의 價値는 도리어 끊임없이 減少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價値와 富를 明白히 區分하는 重要性에 대하여 「리카도」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經濟學에 있어서의 많은 誤謬는 이

(68) David Ricardo, *Principles*, p. 40.

(69) David Ricardo, *Principles*, p. 182.

問題 즉 富의 增加와 價値의 增加와를 同一事實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解釋하는데서 부터, 또 價値의 標準尺度를 構成하는 것은 果然 무엇인가에 關한 根據없는 觀念으로부터 나오 고 있는 것이다.』⁽⁷⁰⁾ 이것은 바로 「새뮤얼슨」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警句라고 볼 수 있다.

「리카도」가 價値의 標準尺度로서 土地를 導入하는 것을 根據없는 觀念이라고 排除하고 土地는 오직 富를 變動시키는 原因이며, 價値를 變動시키는 것은 直接 間接의 投下勞動量 뿐이라고 規定한 것은 古典學派의 價値論이 「리카도」에 이르러서 미로소 重農學派의 自然主義的 見解를 完全히 脫皮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學說史上 특히 注目해야 할 事實이다. 「리카도」以前에 있어서는 重農學派 뿐만 아니라 勞動價値說의 先驅的 創始者 인 「페티」「로크」 또는 「스미드」에 있어서도 富와 價値를 明確히 區別하지 못했기 때문에 土地의 介入으로 말미암아 價値는 勞動을 主로 하고 土地를 副로 하여 形成된다는 二元論의 範圍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리카도」는 「세이」가 勞動, 資本 및 土地는 各各 生産的 用役을 提供함으로써 同一하게 價値의 源泉을 이룬다고 主張한데 대하여 批判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生産的 用役 中에는 土地 資本 및 勞動에 의하여 提供되는 用役이 包含되고 있지만, 내가 말하는 生産的 用役 中에는 단지 資本과 勞動만이 包含되며, 「土地는 全的으로 除外되고 있는 것이다.」 그와 나와의 相違는 우리의 地代에 關한 見解差異로부터 由來하는 것이다.』⁽⁷¹⁾ 「리카도」는 土地를 價値를 變動시킴이 없이 富를 增加시키는 要因이라고 보고 土地를 價値論에 除外시키는데 成功하였으며, 스스로 이 點이 다른 古典學派 經濟學者들과는 다른 그의 貢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見解는 「地代」를 그의 「價値法則」과 矛盾없이 解明할 수 있을 때 完全히 成立되는 것이다.

2. 價値法則과 地代

I

「새뮤얼슨」은 그의 「리카도 土地價値說」에서 地代 r 을 計算尺度로 選擇하여 「리카도」經濟學이 土地價値說임을 論證하였다. 「리카도」自身은 地代를 어떻게 고았는가? 地代의 發生은 그의 投下勞動價値法則을 修正시키는가? 「리카도」의 地代의 本質에 대한 定義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見解로 分類할 수 있다.

<第 1의 定義>

(70) David Ricardo, *Principles*, p. 183.

(71) David Ricardo, *Principles*, p. 189.

『地代는 土地의 生産物中에서 土地의 本源的이며 不可壞의인 힘(original and indestructible powers of the soil)의 使用에 대하여 地主에게 支拂되는 部分이다.』⁽⁷²⁾

『그리하여 本書의 以下에 있어서 내가 土地의 地代에 關하여 말할 경우에는 언제나 土壤의 本源的이며 不可壞의인 힘의 使用에 대하여 土地所有者에게 支拂되는 報償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으로 理解하여 주기 바란다.』⁽⁷³⁾

『地代를 말할 때 나는 恒常 土地의 本源的이며 固有한 힘(the original and inherent power of the land)의 使用에 대하여 地主에게 提供되게 報酬를 意味한다.』⁽⁷⁴⁾

<第2의 定義>

『地代는 恒常 두個의 等量의 資本과 勞動을 使用함으로써 獲得된 生産物 間의 差額(difference between the produce obtained by the employment of two equal quantities of capital and labour)이다.』⁽⁷⁵⁾

『地代는 質이 同一하거나 또는 相異한 土地에 使用된 勞動과 資本의 等量의 部分에 의하여 獲得되는 生産物 間의 差額이다.』⁽⁷⁶⁾

『「말디스」氏는 극히 正確히 定義한다. 「土地의 地代는 總生産物의 價値中에서, 그當時의 農業資本의 一般・普通利潤率에 의하여 評價된 使用資本의 利潤을 包含한 모든 種類의 그 耕作에 消費된 全支出을 支拂한 後, 地主에게 남는 部分이다.」라고.』⁽⁷⁷⁾

第1의 定義는, 「리카도」가 地代를 土地의 本源的이고 不可壞의인 힘에 대한 報酬라고 規定하였다 하여 「리카도」研究者들에 의하여 종종 「리카도」에 殘存하는 重農主義의 影響이라고 論評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事實은 이것은 「스미드」가 地代의 概念속에 地主가 農場에 投下한 資本의 利潤 및 利子를 包含시키고 있으므로 이러한 通俗의인 地代概念과 區別하여 엄밀한 意味의 純粹한 地代를 設定하기 위해서 「리카도」가 強調한 것이며 土地 그 自體에 地代를 發生시키는 어떤 힘이 있다고 規定한 것은 아니다.⁽⁷⁸⁾ 왜냐하면, 地

(72) David Ricardo, *Principles*, p. 33.

(73) David Ricardo, *Principles*, p. 34.

(74) David Ricardo, *An Essay on the Influence of a Low Price of Corn on the Profits of Stock, Shewing the Inexpediency of Restrictions on Importations: With Remarks on Mr. Malthus, Two Last Publications: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Progress of Rent; and The Grounds of an Opinion on the Policy of Restricting the Importation of Foreign Corn*, 1815, E.C.K. Conner edition 1923, p. 231. 以下 *An Assay*로 略함.

(75) David Ricardo, *Principles*, p. 36.

(76) David Ricardo, *Principles*, p. 138.

(77) David Ricardo, *An Essay*, p. 225.

(78) 「리카도」는 다음과 같이 「스미드」를 批判하고 있다. 『그러나 地代는 흔히 資本의 利子 및 利潤과 混同되고 있으며, 또 通俗의인 意味에 있어서의 이 말은 農企業家에 의하여 每年 地

代가 土地의 本源의인 힘의 使用 그 自體에 대한 報酬라면 모든 土地에 地代가 發生할 것이며 肥沃한 土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많은 地代가 發生할 것인데, 다음에 明白히 되는 바와 같이 「리카도」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第1의 定義는 地代가 賃金이나 利潤과는 엄밀히 區別되는 것이며 人間의 勞動에 대한 報酬가 아니라는 것을 論證하기 위하여 定立한 그의 地代概念의 第1段階에 不過한 것이다. 「리카도」의 地代의 本質에 대한 定義는 第1의 定義에 다시 第2의 定義를 附加하여야 明白히 完成되는 것이며, 第1의 定義와 第2의 定義는 전혀 矛盾되는 것이 아니다.

「리카도」에 의하면, 첫째, 地代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發生한다. 즉 土地가 量에 있어서 無限하지 않고 質에 있어서 同等하지 않을 때, 人口가 增加함에 따라 劣等地 또는 不利한 位置의 土地를 耕作케 되면 同一한 量의 勞動과 資本을 投下하여도 肥沃한 第1級地는 劣等한 第2級地보다 收穫이 많게 되어 보다 많은 利潤을 얻게 된다. 競爭社會에서는 두개의 利潤은 存在할 수 없으므로 第2級地の 利潤을 超過하는 第1級地の 超過利潤은 地代로 轉化하여 土地所有者에게 支拂된다. 人口가 더욱 增加하고 食糧이 不足하여 第3級地가 耕作되면 이번에는 第2級地에서도 地代가 發生하며 第1級地の 地代는 騰貴할 것이다.⁽⁷⁹⁾ 여기서 「리카도」는 地代の 發生은 一定量의 勞動과 資本을 投下한 土地의 肥沃도와 位置의 差異로 말미암은 收益의 差額이라고 보고 있으며, 地代를 差額地代로써 理解하고 있음이 明白하다. 이와 같이 發生하는 地代를 後에 「差額地代의 第1形態」라고 부르

主에게 支拂되는 것이라면 무엇에나 適用되고 있다. ...그러나 改良된 農場에 대하여 每年 支拂된 貨幣의 一部分만이 土地의 本源의이고 不可壞의인 힘에 대하여 주어질 것이며, 그 다른 部分은 地質을 改良하고 生産物을 保全하고 貯藏함에 必要한 建物の 建造를 위하여 使用된 資本의 使用에 대하여 支拂되리라는 것은 明白하다. 「아담 스미드」는 地代에 關하여 價가 限定하고자 하는 嚴密한 意味로 말하고 있는 때도 있지만, 이 用語가 普通使用되고 있는 通俗의인 意味로 使用되고 있는 바가 더욱 많다.』 David Ricardo, *Principles*, p. 33

- (79) 이에 대하여 「리카도」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만일 모든 土地가 同一한 性質을 가지고 있어, 그것이 量적으로 無限하고 質적으로 同一하다면, 그것이 位置上의 特殊한 便益을 갖지 않는 限, 그 使用에 대하여 어떠한 使用料도 支拂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土地의 使用에 대하여 恒常 地代가 支拂되는 것은 오직 그것이 量에 있어서 無限하지 않고 質에 있어서 同一하지 않으며 또한 人口의 增加와 더불어 劣等한 質의 土地 또는 不利한 位置의 土地가 耕作됨에 이르기 때문이다. 社會의 進歩에 따라 第1級の 肥沃度を 가진 土地가 耕作될 때에는 地代는 即時 第2級地에서 發生하며, 그 地代額은 이들 두個의 土地部分의 質의 差異에 따라서 決定될 것이다. 第3級地가 耕作되게 되는 경우에는 地代는 即時 第2級地에 發生하며, 그 地代의 量은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兩地의 生産力의 差에 의하여 左右된다. 同時에 第1級地の 地代는 騰貴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恒常 一定量의 資本과 勞動으로 產出되는 收益의 差額만큼 第2級地の 地代보다 많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人口增加가 있을 때 마다 一國은 그 食物의 供給을 增加시키기 위하여 一層 劣等한 質의 土地에 依賴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며, 그와 同時에 一層 肥沃한 土地의 地代는 騰貴하게 될 것이다.』 David Ricardo, *Principles*, p. 35.

는 것이다.

둘째로, 「리카도」에 의하면, 地代는 同質의 土地에 資本을 追加的으로 投下할 경우에도 發生한다⁽⁸⁰⁾. 즉 劣等地에 資本을 投下하여 耕作하는 것 보다 오히려 이미 耕作되고 있는 第1級地에 資本을 追加的으로 投下하는 것이 더욱 生産의 일 수 있다. 土地收獲遞減의 法則으로 말미암아 第1級地에 資本을 100% 増投할 때 純生産物이 비록 100「쿼터」增收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85「쿼터」까지는 增收될 수 있으면 이것은 純生産物 80「쿼터」를 生産하는 第3級地를 生産하는 것 보다 한층 有利하므로 資本은 오히려 舊土地에 投下되고 地代가 發生된다. 즉 土地收獲遞減의 法則의 作用으로 말미암아 第1次의 投下資本에는 第2次의 投下資本에 比하여 一定量의 超過利潤이 發生하며 이 超過利潤이 地代로서 土地所有者에 支拂되는 것이다. 물론 이 때에도 最終의 投下資本에는 地代가 發生치 않는다. 이와같이 同質의 土地에 資本을 追加的으로 投下할 경우에 發生하는 地代를 後에 「差額地代의 第2形態」라고 부르며, 이것이 또한 「새뮤엘슨」이 追加的 勞動投下の 경우를 포함하여 「殘餘地代」(residual rent)라고 命名한 것의 基礎形態인 것이다.

결국 「리카도」에 있어서는 地代는, 地代를 支拂하지 않는 限界地 즉 外延的耕作限界(extensive margin)와 地代를 支拂치 않는 最終投下資本 즉 集約的耕作限界(intensive or internal margin)에 있어서의 收益보다 優先하는 特殊한 經濟的條件下에서만 發生하는 差額的 收益이며 超過利潤이라고 理解할 수 있다. 따라서 限界地에 있어서와 같이 『總生産物의 收益이 耕作을 위한 總支出 및 農業資本의 平均利潤의 合計와 一致할 때는 地代는 전혀 發生치 않는다. 또한 總生産物의 收益이 耕作에 必要한 支出과 같을 때에는 地代도 利潤도 存在하지 않는다.』⁽⁸¹⁾

II

「리카도」에 의하면 이러한 地代의 發生은 그의 投下勞動價值法則을 修正하는 것이 아닐 뿐아니라, 오히려 그의 價值法則과 一致하는 것이며 그것을 確證시켜주는 것이다. 왜냐하

(80) 이에 대하여 「리카도」는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第2, 第3, 第4, 第5級地 또는 한층 더 劣等한 土地가 耕作되기 前에 資本이 이미 耕作되고 있는 土地에 대하여 더욱 生産的으로 使用될 수 있다는 事實은 때때로 그리고 實際로 普通 일어난는 일이다. 第1級地에 使用된 本來의 資本을 倍加함으로써 그 生産物은 倍加되지 않을지라도 즉 100「쿼터」만큼은 增加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85「쿼터」만큼은 增加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이 量은 同一한 資本을 第3級地에 使用함으로써 獲得할 수 있는 量을 超過한다는 것이 아마 發見될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資本은 優先的으로 舊土地에 使用되어 마찬가지로 地代를 創出할 것이다. 왜냐하면 地代는 恒常 두 個의 等量의 資本과 勞動을 使用함으로써 獲得된 生産物의 間의 差額이기 때문이다』 David Ricardo, *Principles*, p. 36.

(81) David Ricardo, *An Essay*, p. 225.

먼 土地生産物의 價値는 가장 不利한 生産條件에 있어서의 投下勞動量 즉 外延的 및 集約的 耕作限界에 있어서의 最大勞動量에 의하여 決定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 보다 有利한 生産條件에서 生産되는 土地生産物에서 發生하는 超過利潤이 地代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土地生産物의 交換價値는 다른 모든 商品의 交換價値와 同一한 方法으로, 그것을 生産하고 또 그것을 市場에 出荷함에 必要한 最初로부터 最後까지의 여러가지 形態를 취하는 總勞動量에 의하여 調整될 것이다. 劣等한 質의 土地가 耕作되는 경우에는 原生産物의 交換價値는 그 生産에 一層 많은 勞動이 所要되기 때문에 騰貴할 것이다.』⁽⁸²⁾

따라서 「리카도」에 있어서는 地代는 價値를 決定하는 原因도 아니고, 價値를 構成하는 要因도 아니며, 따라서 價値를 騰貴시키는 原因도 아니다. 『原生産物의 比較價値가 騰貴하는 理由는 獲得되는 最終部分의 生産에 한층 많은 勞動이 使用되기 때문이지 地代가 地主에게 支拂되기 때문이 아니다. 穀物의 價値는 地代를 전혀 支拂하지 않는 그러한 等級의 土地에서 또는 그러한 部分의 資本으로써 그 生産에 投下된 勞動量에 의하여 規制되는 것이다.』⁽⁸³⁾

이로부터의 當然한 歸結이지만 地代가 價値의 決定要因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地代는 價格을 決定하는 原因도 아니고 價格을 構成하는 要因도 아니며, 價格을 騰貴시키는 原因도 아니다. 『地代가 支拂되기 때문에 穀物이 高價한 것이 아니고 穀物이 高價이기 때문에 地代가 支拂되는 것이다(Corn is not high because a rent is paid, but rent is paid because corn is high.)』⁽⁸⁴⁾ 따라서 穀物의 높은 價格이야말로 地代의 眞正한 原因인 것이다. 『만일 穀物의 높은 價格이 地代의 原因이 아니고 그 結果라고 한다면 價格은 地代의 高低에 따라서 比例的으로 影響을 받을 것이며 따라서 地代는 價格의 一構成部分이 된 것이다. 그러나 最大勞動量으로써 生産된 穀物이 穀物價格의 決定者이며, 따라서 地代는 그 價格의 一構成部分으로서 조금도 들어가지 않으며 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다.』⁽⁸⁵⁾ 여기서 「리카도」는 地代가 價格(自然價格)을 形成하는 要因이 아님을 明白히 斷定하면서 『나는 이 原理를 明確히 理解하는 것이 經濟學에 있어서 가장 重大한 일이라고 確信한다.』⁽⁸⁶⁾고

(82) David Ricardo, *Principles*, p. 37.

(83) David Ricardo, *Principles*, p. 38.

(84) David Ricardo, *Principles*, p. 38.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따라서 地主가 그들의 地代 全部를 拋棄하더라도 穀物의 價格에는 何等の 低落도 發生하지 않을 것이라는 觀察은 正當한 것이다. 그와같은 方策은 다만 若干의 農業企業家들을 紳士처럼 生活할 수 있게 할 뿐이며, 가장 生産力이 劣等한 耕作地에서 原生産物을 出荷함에 必要한 勞動量을 減少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David Ricardo, *Principles*, pp. 38—39.

(85) David Ricardo, *Principles*, pp. 40—41.

(86) David Ricardo, *Principles*, p. 41.

宣言하고 있다.

「리카도」에 의하면 地代는 價値 및 價格의 原因 또는 構成要因이 아닐 뿐 아니라 또한 富의 原因도 아니다. 그것은 價格의 面에서 穀物의 높은 價格으로부터 結果하는 超過利潤이고, 따라서 價値의 面에서는 價値가 아닌 虛偽의 「名目的價値」일 뿐이며, 富의 面에 있어서는 富를 增加시키는 原因이 아니라 富의 増大의 結果이다. 『地代의 騰貴는 恒常 增加하는 國富의 結果이며, 또 그 増加된 人口에 대한 食物供給의 困難性의 結果이다. 그것은 富의 한 徵狀이긴 하지만 결코 富의 原因은 아니다. 왜냐하면 富는 地代가 靜止的이거나 또는 심지어 低落하는 동안에도 가장 急速히 低落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地代는 自由로 處分할 수 있는 土地의 生産力이 減退하는 경우에 가장 急速히 増加한다. 富는 自由로 使用할 수 있는 土地가 가장 肥沃하고, 輸入의 制限이 가장 적으며, 또 農業上의 改良을 通하여 勞動量의 比較的 増加가 없어도 生産이 増加될 수 있고, 따라서 地代의 増進이 가장 緩慢한 여러 나라에 있어서 가장 急速히 増加하는 것이다.』⁽⁸⁷⁾ 『그리고 내가 다시 附加하여야 할 것은 단지 地代는 價値의 創造이지 富의 創造는 아니라는 것 뿐이다. ……그러나 이 價値는 그것이 社會의 富 즉 社會의 必需品, 便宜品 및 娛樂品에 아무것도 附加하지 않는 限 名目的인(nominal) 것이다.』⁽⁸⁸⁾ 우리는 여기서 「리카도」가 土地는 富를 增加시키는 原因이라고 보면서 地代는 富를 增加시키는 原因이 아니라고 본 事實을 特別히 吟味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III

「리카도」의 地代에 대한 理論은 다른 古典學派經濟學者들의 見解와는 매우 다른 것이다. 地代問題는 그것이 實踐問題와 直結되어 있었기 때문에 古典學派 內에서도 尖銳한 對立이 露呈되어 論點의 標的이 되었다. 「리카도」自身도 그의 全著作에서 「아담 스미드」에 종종 批判的論評을 하고 있으며 「말더스」 및 「제이」에 대해서는 峻烈한 批判을 加하고 있다. 따라서 「리카도」의 價値法則과 地代論과의 關係를 깊이 理解하기 위해서는 다른 古典學派經濟學者들의 見解를 若干 言及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새뮤얼슨」의 「리카도」批判이며 한 基點에서 出發하고 있는가를 理解하는데 直接的 도움을 줄 것이다. 「리카도」經濟學의 先驅인 「아담 스미드」는 『勞動은 모든 財貨의 交換價値의 眞實한 尺度이다. 그러므로 勞動은 價値의 唯一한 一般的 尺度이며 또한 唯一의 正確한 尺度이다』⁽⁸⁹⁾라고 하여 基本

(87) David Ricardo, *Principles*, p. 40

(88) David Ricardo, *Principles*, p. 273.

(89) Adam Smith, *Wealth of Nations*, p. 36.

的으로는 勞動價値說을 主張하면서도 「土地」가 導入되는 農業生産에 옮겨가면 重農主義의 影響을 強力하게 간직하고 있다. 「스미드」는 自然 특히 土地가 價値를 創造하기 때문에 農業에 投下된 資本은 製造業의 資本보다도 더욱 生産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同額의 資本에 있어서는 農業者の 資本만큼 多量の 生産의 勞動을 活動시키는 것은 없다. 勞動하는 下人은 물론이며 役畜도 또한 生産的 勞動者이다. 또한 農業에 있어서는 自然도 人間과 더불어 勞動한다. (In agriculture, too, nature labours along with man.) 그리하여 自然의 勞動은 어떠한 費用도 所要하지 않지만 그 生産物이 價値를 갖는 점에 있어서는 가장 費用이 드는 工場勞動者の 生産物과 다름이 없다.』⁽⁹⁰⁾ 『農業者 및 農村勞動者の 勞動은 確實히 商人, 手工業者, 製造業勞動者の 勞動보다 더욱 生産的이다.』⁽⁹¹⁾ 따라서 그는 重農學派와는 달리 國富의 源泉은 自然이나 土地가 아니라 勞動이며 그것은 農業勞動뿐만 아닌 모든 種類의 生産的 勞動 즉 勞動一般이라는 確信과 理論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重農學派를 脫皮하고 있으나 土地의 自然力이 人間の 勞動과 더불어 價値를 創造하므로 農業資本이 더욱 生産的이라고 한 점은 다시 重農主義에 逆流하는 것이다.

「스미드」의 土地에 대한 이러한 觀念은 地代의 本質에 대한 그의 理論에 있어 두가지 相異한 側面을 갖게 하였다. 첫째로 그는 地代를 이러한 生産力을 가진 土地의 自然力の 生産物이라고 보고 이러한 自然力을 가진 土地를 地主가 所有하고 있기 때문에 地主는 地代를 要求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⁹²⁾ 「스미드」의 地代의 本質에 대한 둘째의 概念은 地代를 純全히 價格關係에서 考察하여 地代는 普通價格(ordinary price) 또는 市場價格(market price)에서 勞賃(資本費用)과 利潤 즉 生産費를 控除한 剩餘라고 理解하는 것이다. 『土地의 生産物中에서 그 普通價格이 그것을 市場에 出荷하는데 使用되는 資本과 그 利潤을 함께 報償하는데 充分한 部分만이 市場에 出荷될 수 있다. 만일 普通價格이 이

(90) Adam Smith, *Wealth of Nations*, p. 344.

(91) Adam Smith, *Wealth of Nations*, p. 639.

(92) 예컨대 『農業에 있어서는 勞動도 매우 重要하지만 作業의 大部分은 恒常 自然에 의하여 遂行되도록 남겨진다. 그러므로 農業에 使用된 勞動者 및 役畜은 製造業의 勞動者처럼 그들 自身の 消費와 同等한 價値, 또는 그들을 雇傭하고 있는 資本 및 그 所有者의 利潤과 同等한 價値를 再生産할 뿐만 아니라, 그 보다 훨씬 많은 價値를 再生産한다. 즉 그들은 農業者の 資本 및 그 利潤 以上으로, 地主의 地代를 規則적으로 再生産한다. 이 地代는 그 使用을 地主가 農業者에게 貸與한 自然의 그러한 힘(力)의 生産物이라고 看做할 수 있다. (This rent may be considered as the produce of those powers of nature, the use of which the landlord lends to the farmer.)』 Adam Smith, *Wealth of Nations*, p. 344. 『一國의 土地가 모두 私有財産이 되자마자, 地主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自己가 씨뿌리지 않은 場所에서 收穫하기를 좋아하며, 土地의 自然的 生産物에 대해서 까지도 地代를 要求한다』 Adam Smith, *Wealth of Nations*, p. 49.

것을 上廻할 때는 그 剩餘部分은 自然히 土地의 地代가 될 것이다. 만일 普通價格이 이것을 上廻하지 않을 때는 비록 商品이 市場에 出荷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地主에게 아무런 地代도 提供될 수 없는 것이다. 그 價格이 이 水準을 超過하는가 超過하지 않는가는 需要에 의하여 決定된다.』⁽⁹³⁾ 이 概念에 의하면 地代는 土地의 自然力에 대한 報償이 아니라 需要의 增加에 의하여 農產物의 價格이 高價일 때 生産費를 控除한 剩餘에 不過하다. 따라서 地代는 高價格의 結果이며 그 原因이 아니다. 이 경우에는 地代는 모든 土地에서 發生하는 것이 아니라 有利한 土地에서만 發生하는 利潤의 超過분에 不過하다. 「리카도」는 「스미드」의 이 句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句節은 當然히 讀者로 하여금, 이 著者は 地代의 本質을 誤解하지 않고 있으며, 또 著者は 社會의 必要가 그의 耕作되기를 要求하는 土地의 質은 「그 生産物의 普通價格」이 「土地의 耕作에 使用되어야 할 資本과 그 普通利潤을 함께 報償함에 充分한가 아닌가」에 依存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 틀림없다는 結論에 到達하도록 할 것이다.』⁽⁹⁴⁾ 「스미드」의 地代概念의 이 側面은 「리카도」에 批判적으로 吸收되어 差額地代論으로 展開되는 것이다.⁽⁹⁵⁾

「아담 스미드」의 地代의 本質에 關한 두가지 概念은 地代가 交換價値의 構成原因인가 아닌가 즉 그의 眞實價格의 構成部分(component part of real price)에 地代가 들어가는가 이 點가에 대하여 두가지 區分되는 見解를 남게 하였다. 만일 地代가 價値의 構成要因이라고 한다면 勞動이 唯一한 價値尺度라는 그의 價値論은 修正되어야 하는 것이며, 만일 地代가 價格의 結果라고 한다면 勞動價値論은 未開社會뿐만 아니라 資本主義社會에도 妥當하게 되는 것이다.

<第 1 의 見解>

『모든 社會에 있어서 모든 財貨의 價格은 最終적으로 이 3 部分(賃金, 利潤, 地代)內의 어느 하나에 또는 그 全部에 分解(resolve) 되는 것이다.』⁽⁹⁶⁾

『그러나 進歩된 社會에 있어서는, 少數의 商品의 價格은 오직 勞動의 賃金 및 資本의 利潤의 2 部分만에 分解하며, 그보다 小數의 商品의 價格은 모두 勞動의 賃金만으로 成立한다.』⁽⁹⁷⁾

(93) Adam Smith, *Wealth of Nations*, p. 145.

(94) David Ricardo, *Principles*, p. 219.

(95) 물론 「스미드」自身도 不明瞭하지만 差額地代의 可能性을 明示하고 있다. 예컨대 『土地의 地代는, 그 生産物이 무엇이든 間에, 그 肥沃度에 의해서 變化할 뿐 아니라, 肥沃度의 如何를 不問하고 또한 그 位置에 의하여 變化한다』 Adam Smith, *Wealth of Nations*, p. 147 ff

(96) Adam Smith, *Wealth of Nations*, p. 50.

(97) Adam Smith, *Wealth of Nations*, p. 51.

『모든 特定商品의 價格 또는 交換價値는 各各 나누어보면, 그러한 3部分内の 어느 하나 또는 그 全部에 分解되는 것이므로, 各國의 每年의 勞動生産物의 全部를 構成하고 있는 모든 商品의 價格도 또한 全體로서 보면, 이 3部分에 分解되며, 그 國家의 相異한 住民사이에 勞動의 賃金, 또는 資本의 利潤 또는 土地의 地代로서 分配되는 것이다.』⁽⁹⁸⁾

『그러므로 地代는 賃金 및 利潤과는 相異한 方法으로 商品의 價格의 構成에 들어가는 것이다. 賃金과 利潤의 高低는 價格의 高低의 原因이지만 地代의 高低는 그 結果이다. (High or low wage and profits, are the causes of high or low price; high or low rent is the effect of it.) 어떤 特定財貨의 價格에 高低가 있는 것은, 그 財貨를 市場에 出荷하는데 支拂하지 않으면 안되는 賃金 및 利潤에 高低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높은 地代가 發生하는가, 낮은 地代가 發生하는가 또는 全然地代가 發生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그 商品의 價格의 高低에 의한 것이다. 즉 그 商品의 價格이 그 賃金 및 利潤을 支拂하기에 充分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가, 조금 더 많은가, 또는 전혀 많지 않은가의 如否에 의한 것이다.』⁽⁹⁹⁾

이 第1의 見解에 의하면 商品의 價値는 3構成部分으로 「分解」된다고 하는 이른바 「價値分解論」이 展開되고 있으며 地代는 賃金 및 利潤과는 달리 價値의 構成要因도 아니고 그 原因도 아니며 오직 그 結果라는 것이 明示되고 있다. 이것은 「리카도」가 채택하여 發展시킨 것이며, 勞動價値說을 定立시키는 理論이다.

<第2의 見解>

『賃金, 利潤 및 地代는 모든 收益의 3個의 根本的 源泉임과 同時に 모든 交換價値의 3個의 根本的源泉이다. (Wage, profit and rent are the three original sources of all revenue as well as of all exchangeable value.)』⁽¹⁰⁰⁾

『이들 3部分(地代, 賃金, 利潤)은, 直接的으로든지 또는 終局的으로든지, 穀物의 全價格을 形成한다고 생각된다.』⁽¹⁰¹⁾

『勞動者는 그의 勞動이 採取하거나 生産한 生産物의 一部를 地主에게 提供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部分 또는 같은 것이지만, 이 部分의 價格은, 土地의 地代를 構成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많은 商品의 價格에 있어서 第3의 構成部分 (third component part) 을 形成

(98) Adam Smith, *Wealth of Nations*, p. 52.

(99) Adam Smith, *Wealth of Nations*, pp. 145—146.

(100) Adam Smith, *Wealth of Nations*, p. 52.

(101) Adam Smith, *Wealth of Nations*, p. 50.

한다.』⁽¹⁰²⁾

『어떤 商品의 價格이 土地의 地代와 勞動의 賃金과, 그 商品을 市場에까지 生産・製造・出荷하는데 使用된 資本의 利用을 그들의 自然率에 따라서 支拂하기에 充分하며, 그보다 많지도 적지도 않을 때, 그 商品은 소위 自然價格으로 販賣된 것이다.』⁽¹⁰³⁾

「스미드」의 第2의 見解에 있어서는 地代는 賃金 및 利潤과 마찬가지로 獨立하여 價値를 構成하는 第3의 構成部分이 된다고 하는 소위 「價値構成論」을 展開하는 것이다. 이 見解에 의하면 地代는 價値 및 價格의 原因이며 地代의 騰貴는 價値 및 價格의 騰貴를 招來하는 原因이 된다. 그러므로 勞動이 唯一한 不變의 價値尺度라는 命題는 障壁에 부딪힌다고 理解되는 것이다. 「스미드」의 第1의 見解과 第2의 見解는 理論적으로 矛盾되는 것이며, 이러한 矛盾은 그의 土地 및 地代에 關한 見解의 두가지 相反된 側面에서 導出된 歸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土地가 價値創造에는 無關하며 오직 富의 創造에 貢獻한다는 것을 認識한 「리카도」는 이 「스미드」의 第2의 價値構成論의 見解를 다음과 같이 批判하여 第2의 見解를 그의 差額地代論으로서 崩壞시키고, 第1의 見解를 發展시키는 것이다.⁽¹⁰⁴⁾

「리카도」와 同時代에 살면서 「리카도」의 第1의 論敵이었던 「토마스 로버트 말더스」는 地代에 關하여 外形적으로는 「리카도」와 매우 類似하지만 本質적으로는 매우 對立되는 價値構成論의 見解를 가지고 있었다. 「말더스」는 地代를 明白하게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土地의 地代는 總生産物의 價値 中에서 그 種類의 如何를 莫論하고 그 耕作에 屬하는 모든 費用——그 當時의 農業資本의 一般普通率에 따라 評價된 投下資本의 利潤을 包含한——이 支拂된 後에 土地所有者에게 殘留하는 部分이라고 定義된다.』⁽¹⁰⁵⁾ 이 定義는 「리카도」의 見解와 전혀 類似하다. 그러나 農産物價格이 上昇하여 地代가 發生하는 原因에 對해서는 「리카도」와는 다른 다음의 세가지 要因을 들고 있다.

『첫째는 주로 土壤의 性質, 즉 土地에 雇傭된 사람들의 生存維持를 위하여 要求되는 것

(102) Adam Smith, *Wealth of Nations*, p. 49.

(103) Adam Smith, *Wealth of Nations*, p. 55.

(104) 「리카도」가 「스미드」의 第2의 見解 즉 價値構成論의 見解를 「리카도」는 例컨대 다음과 같이 批判하고 있다. 『단일 穀物의 높은 價格이 地代의 原因이 아니고 그 結果라고 한다면, 價格은 地代의 高低에 따라 影響을 받을 것이며, 또한 地代도 價格의 一構成部分이 될 것이다. 그러나 最大勞動量으로 生産된 穀物이 穀物價格의 決定者이며, 따라서 地代는 그 價格의 一構成部分으로 끼 들어가지 않으며 또한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 스미드」가 諸商品의 交換價値를 規制하는 本來의 法則 즉 生産에 投下된 相對的勞動量이 土地의 私有와 地代의 支拂에 의하여 全的으로 變更할 수 있다고 想像하고 있는 것은 결코 正當할 수 없는 것이다.』 David Ricardo, *Principles*, pp. 40—41.

(105) T.R. Malthus,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Progress of Rent, and the Principles by Which It is Regulated*, 1815, pp. 1—2. 以下 *An Inquiry* 로 略함. do,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Considered with a View to Their Practical Application*, 1836. p. 136 以下 *Principles* 로 略함.

보다 더 많은 量의 生活必需品를 生産할 수 있게 하는 土壤의 性質;

둘째는 生活必需品에 特有한 性質, 즉 그 自身の 需要를 創出할 수 있으며, 또는 生産된 必需品의 分量에 比例하여 需要者의 數를 增加시킬 수 있게 하는 生活必需品의 特有한 性質;

셋째는 가장 肥沃한 土地의 比較的 稀少性.』⁽¹⁰⁶⁾

「말더스」에 있어서는 以上の 3 原因中에서 첫째와 둘째의 原因이 가장 重要한 것이다. 첫째의 原因은 「말더스」가 重農學派의 見解를 답습한 것으로서 地代의 源泉을 土地의 自然的 豐饒性에서 求하고 있는 것이다. 즉 「말더스」에 있어서는 『地代는 神이 人間에게 주신 土壤의 가장 貴重한 性質——그것을 耕作하는데 必要한 것 보다 더욱 많은 사람의 生存을 維持시켜주는 性質——의 自然的結果이다.』⁽¹⁰⁷⁾ 「리카도」는 이러한 見解에 대해서는 土壤이 가장 豊富하고 生産의이며 豐饒할 때는 地代가 發生하지 않으며 土地의 地代가 發生하는 것은 自然力이 衰退하고 가장 缺陷한 때라고 하여 이를 土地의 本來의 吝嗇이라고 指摘함으로써 「말더스」를 批判하였다.⁽¹⁰⁸⁾ 「말더스」의 둘째의 原因은 人口論에서 導出된 結論으로서 食料와 같은 生産必需品는 다른 商品과는 달리 需要가 生産의 外部에 獨立되어 있는 外生的인 것이 아니라 需要가 生産에 의하여 決定되는 內生的인 것이기 때문에 供給이 增大하거나 制限되어도 價格이 현저히 騰貴하거나 下落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財貨는 供給을 獨占의으로 制限하면 價格이 騰貴하여 獨占利潤이 取得되지만 食料와 같은 生活必需品는 供給制限이 바로 人口制限을 가져오기 때문에 價格의 暴騰에 의한 獨占利潤을 取得할 수 없다. 따라서 「말더스」는 「스미드」와 「리카도」등을 비롯한 以前의 經濟學者들이 地代를 獨占利潤 또는 超過利潤으로 解釋하는 것은 誤謬이라고 反對하고 地代는 人爲的 獨占에서 取得하는 獨占利潤이 아니라 土地가 耕作者의 生存維持를 위해 必要한 것 보다 더욱 많은 生産物을 賦與하는 土壤의 性質 즉 自然의 恩惠(bounty of nature)의 結果이며 그것은 自然的 必然的인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말더스」의 둘째의 原因은 첫째原因의 補強에 不過한 것이다. 「말더스」의 셋째 原因은 첫째 및 둘째의 原因과는 다른 것이며 이것은 「리카도」의 見解와 類似한 것이다. 그는 肥沃한 土地의 稀少性和 關聯하여 資本蓄積이

(106) T. R. Malthus, *An Inquiry*, p. 8, *Principles*, p. 140.

(107) T. R. Malthus, *Principles*, pp. 147—148.

(108) 「리카도」는 이러한 見解에 대한 批判으로써 「부캐난」의 見解를 引用하고 있다. 『耕作過程에 있어서 自然이 人間勞動과 協力하기 때문에 農業은 生産物을 產出하고 따라서 地代를 產出한다고 하는 見解는 하나의 幻想에 不過하다. 地代가 發生하는 源泉은 生産物이 아니라 生産物의 販賣價格이다. 그리고 이 價格이 受取되는 것은 自然이 生産을 돕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消費를 供給에 適合시키는 價格이기 때문이다.』 David Ricardo, *Principles*, p. 40.

利潤率을 低下시키고 人口增加가 賃金率을 低下시키면 여기서 利潤의 超過分이 發生하여 地代가 成立된다는 見解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는 이것이 重要하지 않고 첫째 및 둘째 原因이 本質的이라고 보아 이의 깊은 分析을 回避하고 있다. 다음 「말더스」는 地代를 騰貴시키는 原因을 밝히어 ① 資本蓄積, ② 人口增加, ③ 農業改良, ④ 需要增加에 의한 價格騰貴를 들고 있다.⁽¹⁰⁹⁾

「말더스」는 地代에 關하여 部分的으로 「리카도」와 類似한 見解를 가지고 있었으나 本質的으로는 그것을 重農主義的으로 解釋하고 있었기 때문에 地代는 價値와 價格決定의 眞實한 原因이며, 國富의 原因이요 象徴이라고 보았으며, 地主는 그 正當한 報酬를 받는 階級이라고 하여 이를 擁護하였다. 이러한 「말더스」의 地代理論은 「리카도」에 의하여 zunehmend 批判되였다. 「리카도」는 앞서 본 그의 差額地代論으로서 「말더스」의 理論을 날날이 批判하고 「말더스」氏의 誤謬의 하나는 地代를 明白한 純利益으로 보며 富의 새로운 創造라고 想像함에 있다⁽¹¹⁰⁾고 指摘하고 있다.

「리카도」는 「스미드」의 價値構成論을 排除하고 價値分解論을 吸收하여 發展시키는 한편, 「말더스」의 超過利潤論을 吸收하고 그의 重農主義的見解를 批判하면서 差額地代論을 展開하여 農産物의 價値는 外延的・内部的 耕作限界에 있어서 最大勞動量에 의하여 決定된다는 것을 論證함으로써 그의 勞動價値法則과 土地 및 地代와의 關係를 矛盾없이 說明하는데 成功하였으며 勞動價値說을 確立시킬 수 있었다.

(3) 「리카도」 價値論의 2 側面

「리카도」는 그의 勞動價値論을 分配論의 基本原理로 定立하여 資本主義經濟의 構造를 分析하는 理論으로 삼았다. 그는 賃金 및 利潤의 變動이 財貨의 相對價値를 變動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財貨의 相對價値는 오직 直接・間接의 投下勞動量에 의하여 決定된다고 하는 勞動價値法則을 定立하여 이것을 資本이 蓄積되고 土地所有가 進展된 資本主義社會에 適應시키었다. 그러나 「리카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投下 勞動價値法則으로서 各産業 또는 各企業의 生産物의 自然價格을 正確히 測定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는 그의 勞動價値說에 相當한 修正을 加하지 않으면 안됨을 發見하였다.⁽¹¹¹⁾

(109) T. R. Malthus, *An Inquiry*, p. 26 ff.

(110) David Ricardo, *Principles*, p. 272.

(111) 「리카도」의 價値修正論 및 分配論과 價値論과의 關係에 대해서는 鄭允炯氏의 勞作 「리카도 價値論의 研究」 1964 를 參照하기 바란. 이 論文은 많은 問題點을 提示하면서 「리카도」 價値論을 全般的으로 檢討하고 「리카도」의 復興을 提議하고 있다.

「리카도」는 平均利潤을 經驗的事實로 前提한 다음 ① 各產業의 生産에 使用된 固定資本의 耐久度가 다를 때, ② 固定資本과 流動資本의 結合의 比率이 다를 때 ③ 商品을 市場에 出荷할 때 까지 經過하는 時間이 다를 때, ④ 資本이 그 使用者에게 回收되는 速度가 다를 때에는 投下勞動量이 同一하다 할지라도 商品의 相對價格은 다르다는 것을 指摘하였다. 즉 그는 一般的으로 流動資本만을 가지고 또는 各各 同一한 回收率을 가진 流動資本과 固定資本과의 結合으로서 生産되는 두 種類의 財貨의 相對價値는 賃金の 騰落到에 의하여 影響을 받지 않지만 앞서 指摘한 네가지의 相異한 事情 밑에서 生産되는 두 種類의 財貨의 相對價値는 賃金の 變動에 의하여 影響을 받는다고 보았다. ⁽¹¹²⁾

그러나 「리카도」는 이러한 時間要素에 의한 財貨의 相對價値變動의 影響을 極小部分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讀者는 諸財貨의 變動의 이러한 原因은 그 效果에 있어서는 比較的 輕微하다는 것을 注意하여야 한다. 利潤에 1「퍼센트」의 下落을 惹起케하는 賃金の 騰貴로써도 내가 假定한 事情下에서 生産된 諸財貨의 相對價値는 단지 1「퍼센트」變動할 뿐이다……賃金の 騰貴로 因하여 이들 財貨의 相對價値에 미치게 되는 最大의 影響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6「퍼센트」 또는 7「퍼센트」를 超過할 수 없을 것이다.』⁽¹¹³⁾ 그리고 그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結論짓고 있다. 「그리하여 財貨의 價値變動의 原因을 測定함에 있어서 勞動의 騰落 때문에 일어나는 結果를 度外視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것을 크게 重要視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잘못일 것이다. 따라서 本書 以下の 部分에 있어서 나는 이變動의 原因에 대해서도 때때로 言及할 것이지만, 財貨의 相對價値에 일어나는 커다란變動은 모두 그때 그때 그 財貨를 生産함에 所要되는 勞動量의 多少에 의하여 發生된 것이라고 看做할 것이다.』⁽¹¹⁴⁾ 이것은 「리카도」가 時間要素의 導入에 의하여 價値法則을 修正함에 있어서도 끝까지 投下勞動價値說을 堅持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理解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注目할 것은 「리카도」가 時間의 導入 또는 賃金の 騰落到에 의하여

(112) 「리카도」는 예컨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固定資本의 耐久力에 差異가 있는 것, 그리고 兩種의 資本이 結合되는 比率에 差異가 있는 것은 財貨의 相對價値의 不同을 惹起시키는 原因으로서 財貨의 生産에 必要한 勞動量의 大小以外에 다른 要因을 導入한다. 즉 이 原因이란 것은 勞動의 價値의 騰落을 말한다』 David Ricardo, *Principles*, p. 18. 그리고 그는 가장 一般의 命題를 다음과 같이 定立하고 있다. 『勞動의 騰貴 또는 下落에 의한 財貨의 相對價値變動의 程度는 使用된 總資本에 대한 固定資本의 比率에 의하여 決定될 것이다. 매우 高價한 機械에 의하여 生産되거나 또는 매우 高價한 建物 안에서 生産되거나 또는 그것이 市場에 出荷되기 까지 長時間을 要하는 모든 財貨는 相對價値에 있어서 下落하게 될 것이며, 한편 主로 勞動에 의하여 生産되거나 또는 迅速하게 市場에 出荷되는 모든 財貨는 相對價値에 있어서 騰貴하게 될 것이다.』 David Ricardo, *Principles*, p. 20.

(113) David Ricardo, *Principles*, p. 22.

(114) David Ricardo, *Principles*, pp. 22—23.

價値法則이 修正된다고 말할 때 그 「價値」는 「自然價格」과 同意語로 使用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즉 그는 平均利潤을 當然한 事實로 前提한 다음, 各種財貨의 生産에 使用되는 固定資本과 流動資本의 結合比率이 同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平均利潤이 使用하게 됨으로써 投下勞動量에 依한 價値와는 다른 즉 그 價値로부터 偏倚된 自然價格이 成立된다는 것을 說明하고 있는 것이 그의 價値修正論이다. 여기서 「리카도」는 價値와 自然價格의 關係를 明確히 認識하지 못하고 兩者를 同一視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리카도」의 價値論은 自然價格의 測定理論의 側面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리카도」 價値論이 自然價格의 基礎에 관한 理論에 限定된 것이 아님을 恒常 注意해야 한다. 「리카도」 價値論의 價格論의 側面은 現象論的인 것이며 오히려 分配論의 基礎로서의 質的 側面이 本質的인 것이다. 「리카도」는 分配法則을 밝히는 것을 經濟學의 가장 重要한 課題로 보고, 그 分配法則을 生産過程에서 分離시키지 않고 統一的으로 解明하는 原理로써 投下勞動價値論을 定立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地代・利潤・賃金의 自然的 過程」을 考察함에 있어서 財貨의 價値는 投下勞動量으로 決定되며 總價値가 賃金과 利潤으로 分配된다고 보고 地代는 앞서 본 바와 같이 賃金및 利潤과는 本質적으로 相異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賃金과 利潤은 相互逆行關係에 있는 것으로서 利潤의 低落 없이는 賃金の 騰貴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反面에, 賃金生存費說을 前提로 하고 高利潤만이 國家의 繁榮과 幸福에 대하여 가장 크게 貢獻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그의 價値論의 質的 側面은 産業資本家の 利潤을 擁護하는 強力한 理論의 特性을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리카도」 價値論을 檢討・批判하는 경우에는 그의 投下勞動價値法則의 두가지 側面을 반드시 區分하여 考察하고 批判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어느 하나만을 批判하는 것으로는 不充分한 것이다.

IV. 「새뮤얼슨」 批判

1. 「새뮤얼슨」 批判

우리는 「리카도」를 비롯한 古典學派의 價値論이 土地와 地代의 問題를 어떻게 處理하였는가 考察하는 過程에서 「새뮤얼슨」의 「리카도」解釋이 어느程度 正確하고 妥當한 것인지 判別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새뮤얼슨」의 所論에 대한 間接的인 批判은 第3章에서 이루어진 셈이다. 여기서는 追加적으로 「새뮤얼슨」의 「리카도」解釋의 어떠한 點이 「리카도」의 理論과 一致하며 어떠한 點이 相違되는가를 檢討하면서 그에 대한 直接的

批判을 간단히 附記하려고 한다.

1) 첫째, 「새뮤얼슨」이 「리카도 勞動價値說」의 失敗를 論證한 것은 과연 成功한 것인가? 여기서 特히 指摘하여 두어야 할 것은 「새뮤얼슨」은 價値와 價格을 同一視하여 區分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價値와 生産費를 全적으로 同一視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것은 「새뮤얼슨」의 「리카도」解釋이 價値構成論 내지 生産費價値論의 立場에서 展開되고 있다는 事實을 證明하는 것이다. 그러나 「리카도」는 交換價値와 相對價格은 잘 區分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價値와 生産費는 嚴格히 區分하였다. 「리카도」에 있어서는 價値決定要因에 賃金과 利潤은 包含되지만 地代는 除外되었다. 그러나 「리카도」에 있어서도 生産費에는 賃金 및 利潤과 더불어 地代가 包含되었다. 이와같이 「리카도」에 있어서는 價値와 生産費가 區分되며, 價値 또는 價格의 決定要因으로서 地代는 전혀 包含될 수 없는 것이다. 「리카도」에 있어서 地代는 價値의 決定原因이나 構成要因이 아니면서 生産費目에 包含되는 虛僞의 名目的 價値이다.

그러므로 「새뮤얼슨」이 처음부터 生産費方程式을 定立하여 모든 要素費用이 價格의 決定要因임과 同時에 價値의 決定要因이라고 前提하는 것은 「리카도」의 理論과는 매우 相馳되는 것이다. 오히려 「리카도」는 이러한 理論을 反駁하기 위하여 그의 온 精力을 기울이었다. 그는 「스미드」의 理論의 價値構成論的 側面을 批判하고 「달더스」와 對決하였으며 「세이」를 激烈하게 批判하였다. 이러한 「리카도」에 대하여 「새뮤얼슨」이 다시 生産費論의 立場에서 地代를 價値決定의 要因으로 取扱하고 勞動費用과 總生産費가 一致하지 않는 경우를 提示하여 「리카도」勞動價値說의 崩壞를 論證했다고 생각했다면 이것은 重大한 錯覺이다. 이것은 「리카도」生存時에 그 스스로 地代가 價値決定의 要因으로 왜 包含될 수 없는가를 누누히 說明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달더스」나 「세이」를 再代辯한 것에 不過하며 「리카도」勞動價値說의 失敗를 證明하는 論據로서는 成立되지 않는다. (差額地代가 아니라 絕對地代를 假定할 경우에도 다음 地代問題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問題는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새뮤얼슨」의 所論에서의 다음의 生産費方程式은 「리카도」勞動價値說의 失敗를 證明하는 方程式으로는 成立하지 않는다. ⁽¹¹⁵⁾

(115) 물론 이 生産費方程式은 「새뮤얼슨」의 「리카도」土地價値說을 證明하는 方程式으로는 使用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價値를 「리카도」에 따르지 않고 新古典派에 따라 解釋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리카도 勞動價値說」失敗의 論證과는 無關한 것이다. 「리카도」經濟學은 「리카도」에 따라 解釋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뮤얼슨」은 이 方程式들을 「리카도」勞動價値說의 失敗를 證明하는 方法으로 使用하고 있다.

$$\left. \begin{aligned} p_1 &= wa_1 + rb_1 \\ p_2 &= wa_2 + rb_2 \\ \vdots & \\ p_n &= wa_n + rb_n \end{aligned} \right\} \dots\dots\dots (10) \text{式의 一部}$$

$$\left. \begin{aligned} p_1 &= (wa_1 + rb_1)(1+d) \\ p_2 &= (wa_2 + rb_2)(1+d)^2 \\ p_0 &= (wa_0 + rb_0)(1+d) \\ p_3 + e_3 p_0' &= (wa_3 + rb_3 + p_0' f_3)(1+d) \\ p_3 &= (wa_3' + rb_3' + p_0' g_3')(1+d) \end{aligned} \right\} \dots\dots\dots (22) \text{式의 一部}$$

오히려 「리카도」勞動價値說의 失敗를 論證하는 「새뮤얼슨」의 方程式은 (18)式이다. 「리카도」는 末期에 이르러 특히 交換價値와 相對價格을 同一視하여 投下勞動量으로 相對價格을 完全히 測定코자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固定資本의 耐久度의 差異와 時差 즉 利子率을 考慮하면 完全한 一致를 期待할 수 없는 것이다. 「새뮤얼슨」은 이 事實을 잘 證明해 주고 있다.

$$\frac{p_2}{p_1} = \frac{a_2}{a_1} (1+i) \theta_2 - \theta_1 \dots\dots\dots (18) \text{式}$$

만일 「리카도」勞動價値說이 完全히 正確한 것이라면 相對價格 $\frac{p_2}{p_1}$ 是 相對的 勞動投入係數 $\frac{a_2}{a_1}$ 가 不變인 限 역시 不變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相對價格 $\frac{p_2}{p_1}$ 是 $\frac{a_2}{a_1}$ 가 不變일 경우에도 利子率 i 가 變動하거나 $\theta_2 - \theta_1$ 이 變動하여도 이에 따라 變動한다. 즉 各產業의 時間의 強度가 正確히 같아서 $\theta_2 - \theta_1 = 0$ 가 되거나 또는 利子率 $i = 0$ 가 되는 例外的 경우가 아니고서는 相對價格은 投下勞動量만으로서는 正確히 測定할 수 없다. 따라서 「勞動이 唯一한 不變의 價値尺度」라는 「리카도」勞動價値說의 基本命題는 正確한 命題로 定立되지 않는다.

왜 이러한 現象이 일어나는가? 「리카도」가 晩年에 이르러 더욱 價値와 價格을 同一視하고 投下勞動量으로서 價値뿐만 아니라 自然價格까지도 正確히 測定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카도」가 初期에 不明瞭하게나마 認識하고 있었던 바와 같이 價値와 自然價格은 반드시 區分해야 할 相異한 概念이다. 「리카도」에 있어서 價値는 그 自體 勞動價値 즉 投下勞動量이며, 價格(自然價格 또는 生産價格)은 要素費用에 平均利潤을 加算한 것이다. 따라서 社會의 總財貨의 價格은 그 社會의 總財貨의 價値에 依하여 決定되며, 그 價格의 騰落은 다른 條件이 不變이라면, 價値의 增減에 依하여 決定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一國民經濟의 總生産物을 一單位로 하여 볼 경우에만 그러하다. 一社會內에 各種의 相異한

産業과 相異한 財貨의 價格은 만드시 그 價値와 一致하는 것은 아니다.⁽¹¹⁶⁾ 즉 各種의 相異한 産業에 있어서 各種의 財貨의 生産價格은 價値以下로 될 수도 있고 價値以上으로 될 수도 있으며, 오히려 이것이 一般의인 것이다. 즉 一産業에 있어서의 資本의 有機的 構成度가 社會의 平均의 資本의 有機的 構成度보다 低位의 水準에 있다면 그 産業에서 生産되는 財貨의 生産價格은 價値以下로 될 것이며, 反對로 他産業에 있어서의 資本의 有機的 構成度가 社會의 平均의인 有機的 構成度보다 高位의 水準에 있다면 그 財貨의 生産價格은 價値以上으로 될 것이다. 「리카도」가 여기서 問題로 해온 土地生産物에 있어서는 그것은 資本의 有機的 構成度가 社會의 平均의 그것보다 훨씬 低位에 있으므로 그 生産價格은 언제나 價値以下로 있으며, 설혹 農産物이 生産價格 以上으로 販賣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만드시 價値以上으로 販賣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리카도」는 이 點에 대해서 不明瞭한 認識밖에는 갖고 있지 않았으며, 後期에 오면 더욱 混同을 일으켜 價値와 價格을 區分하지 않고 同一視하여 모든 各各의 個別的 財貨의 價格을 投下勞動量으로 正確히 測定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本質의으로는 「리카도」가 그의 勞動價値說을 各種의 모든 個別的 財貨의 價格까지도 正確히 測定할 수 있다고 過信하고 錯覺한데서 緣由하는 것으로 理解된다. 「리카도」의 이러한 錯覺에 따라서 「새뮤얼슨」도 價値나 價格을 區分하지 않고 있다. 그는 이것을 區分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利用하여 「리카도」 勞動價値說의 失敗를 論證하고 있는 것이다. 「리카도」 勞動價値說을 個別的 財貨의 相對價格의 測定 理論의 側面에서 檢討할 경우 그것이 若干의 偏差를 낳는다는 것은 「리카도」 自身이 일찍이 스스로 認定한 바이다. 만일 「새뮤얼슨」이 「리카도」 勞動價値說의 이 側面을 다시 指摘하여 (18)式的 方程式으로서 「리카도」 勞動價値說의 失敗를 主張하였다면 그것은 一理가 있는 正當한 것이다.

「리카도 勞動價値說」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 側面이 있다. 즉 첫째는 그것이 「리카도」 分配論을 解明하는 基本原理로서의 質的側面이고, 다른 하나는 여기서 指摘한 바와 같은 相對價格의 基礎로서의 量的側面이다. 「리카도 勞動價値說」의 失敗를 完全히 論證하려면 前章에서도 指摘한 바와 같이 이 두가지 側面의 失敗를 모두 論證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리카도」 價値論의 分配論의 基礎로서의 質的 側面은 本質論의 側面이며, 相對價格의 基礎로서의 量的 側面은 現象論의 側面이다. 그러므로 「새뮤얼슨」의 「리카도」 勞動價値說 失敗의 論證은 現象論의 側面に 限定된 部分的인 것이다. 「새뮤얼슨」은 「리카도」 勞動價

(116) 價値와 價格이 一致하는 경우는 어떤 企業에서 特定商品의 生産에 使用하는 個別的 資本의 有機的 構成度가 우연히 그 社會의 有機的 構成度の 平均値와 一致하는 例外的인 경우 뿐이다. 따라서 價値와 價格은 不一致한다는 것이 오히려 一般의 法則으로 되는 것이다.

值說의 失敗를 完全하게 證明하려면 그 分配論의 基本原理로서의 本質의 側面에 대한 批判이 반드시 展開되어야 하였을 것이다.

2) 다음, 「새뮤얼슨」의 「리카도土地價値說」은 成立될 수 있는가? 이 問題에 대하여는 「土地」를 價値의 創造者 (creator)내지 決定要因 (determinator)라고 볼 수 있는가, 모든 財貨의 價値 또는 生産用役을 「投下土地量」 (embodied land content)으로 還元시킬 수 있는가, 「地代」를 가지고 相對價格을 測定하는 計算尺度로 使用할 수 있는가의 如否를 檢討할 때 明白히 밝혀질 것이다.

「리카도」에 있어서는, 前章에서 본 바와 같이, 土地를 包含한 自然은 價値의 決定과는 無關한 것이며 오직 富를 增大시키는 原因일 뿐이다. 왜냐하면 自然은 人間이 만든 것이 아니며 本質적으로 無償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土地의 使用에 대하여 報酬를 支拂하는 것은 그것의 價値를 決定하기 때문이 아니라 肥沃한 土地가 稀少한데 個人이 그것을 占有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自然力에 대하여, 그것이 富를 形成하는 寄與度에 따라, 報酬를 支拂한다고 한다면, 自然이 가장 豊富하고 自然力の 寄與도가 가장 클 때 가장 많은 報酬를 支拂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물·空氣·蒸氣의 彈力性·氣壓等 모든 自然은 그 使用에 대하여 報酬를 支拂하지 않는다. 土地에 있어서도 그것이 가장 豊富하고 가장 生産的이며 가장 肥沃한 경우에는 그것은 어떠한 報酬도 支拂되지 않으며 따라서 地代도 發生하지 않는다. 土地生産物의 一部가 地代로서 分讓되는 것은 土地의 自然力이 衰退하고 投下勞動에 대한 報酬로서의 產出量이 減少될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다.⁽¹¹⁷⁾ 自然은 이것이 現實적으로 生産에 貢獻하는 比率과는 關係없이 報酬를 要求하기 때문에 「不變의 價値尺度」가 될 수 없다. 또한 土地는 그것이 人間の 創造物이 아니라 自然의 贈與物이기 때문에, 그것이 人間の 努力에 의하여 自由로이 增加시킬 수 없는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價値의 創造者 (creator)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리카도」에 있어서 價値의 創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生産過程에서 人間이 땀을 흘리며 모든 勞苦를 바치는 人間の 勞動뿐이다.

그런데 「새뮤얼슨」에 있어서는 勞動은 再生産可能한데 土地는 再生産不可能한 것이므로, 또한 勞動을 再生産하는 穀物은 土地의 生産物이므로, 土地가 價値의 創造者라고 한다.

(117) 「리카도」는 「스미드」가 『農業에 있어서는 自然은 人間과 함께 勞動한다. 그리고 自然의 勞動은 어떠한 費用도 要求하지 않지만, 그 生産物은 가장 高價한 勞動者의 生産物과 마찬가지로 그 價値를 가지는 것이다』라고 말한데 대하여 批判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自然의 勞動이 支拂을 받는 것은 그것이 行하는 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行하는 바가 적기 때문인 것이다. 自然은 그 贈與物이 貧弱하게 됨에 比例하여 그 일에 대하여 한층더 높은 價格을 請求한다. 自然이 가장 寬大仁慈한 곳에서는 그것은 恒常 無償으로 일하는 것이다』 David Ricardo, *Principles*, p. 39.

그리고는 이것은 稀少性이 價値의 創造者라고 한 「리카도」의 理論과 一致하는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이것은 「새뮤얼슨」이 「리카도」를 誤讀한 것이거나 오는 誤解한 것이며, 「리카도」의 理論과는 無關係한 것일 뿐 아니라, 그것과 正面으로 對立되는 것이다. 「리카도」는 稀少性이 勞動과 더불어 價値의 源泉이라고 보았으나 「리카도」가 말하는 稀少性은 特殊한 勞動의 產物 예컨대 「稀少한 彫像 또는 繪畵, 珍貴한 書籍 또는 硬貨, 特産葡萄酒等」과 같은 任意로 增加시킬 수 없는 이미 生産된 財貨를 指摘한 것이지, 自然을 包含시킨 것은 전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리카도」는 稀少性이 價値의 源泉이 되는 경우는 極히 例外的인 것이고 市場에서 來去되는 거의 모든 財貨는 勞動을 投下하여 自由로이 增加시킬 수 있는 것이며 一般的으로 勞動이 本源的인 價値의 創造라는 것을 明白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새뮤얼슨」이 土地를 價値의 創造者라고 하는 것은 「리카도」에 있어서는 전혀 成立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새뮤얼슨」에 따라서 土地를 價値의 創造者라고 한다면 오늘날 人間이 만들어 蓄積한 모든 財貨, 機械, 工場, 建物, 交通手段等은 人間이 創造한 것이 아니라 土地가 創造한 것으로 된다. 이것은 類例없는 自然主義的 一元論이며 中世나 重農學派의 見解보다도 더욱 極端的인 것이다. (118)

「새뮤얼슨」이 「리카도」를 誤讀한 것은 前章에서 자세히 區分한 바와 같은 「富」와 「價値」를 그가 明確히 區分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理解된다. 價値는 純粹한 社會的關係의 表現이며 經濟理論上的 用具이다. 따라서 生活必需品・便宜品の 總體인 富와는 明白히 區分되는 것이다. 土地는 그것이 生活資料를 提供하는데 協助하기 때문에 富의 決定에는 들어간다. 그러나 土地는 그것이 社會的 關係의 表現이 아니며 人間の 勞苦에 의한 產物이 아닌 自然의 贈與物이기 때문에 價値의 決定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새뮤얼슨」이 「레온티에프」表를 利用하여 「리카도」를 分析하는 것은, 富의 形成을 論하고 있는 것이며 價値의 形成

(118) 「리카도」는 이러한 重農學派의 見解를 批判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담 스미드」의 理論에 殘存하고 있는 重農學派의 痕迹에 대해서 까지도 날카로운 批判을 加하였다. 「리카도」는 生産過程에 있어서 土地가 價値形成에 小部分이나 參加한다고 보거나 또는 地代가 土地의 自然力 내지 自然의 勞動에 대한 報酬라고 보는 一部の 見解를 反駁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土地가 地代의 形態로 剩餘를 產出한다고 보고, 土地가 有用生産物의 源泉中에서 다른 것 보다도 더욱 長點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學說을 듣는 것보다 平凡한 것은 없다. 더구나 土地는 그것이 가장 豊富하고, 가장 生産의이고 가장 肥沃한 경우에는, 그것은 어떠한 地代도 받지 않는다. 보다 肥沃한 部分의 本來的 生産物의 一部가 地代로서 分離되는 것은 그 自然力이 衰退하고 勞動에 대한 報酬로서의 產出이 減少된 때에 있어서 뿐이다. 製造業者에게 助力하는 自然的 要因에 比較하면 本來 한 缺點이라고 注目되어야 할 土地의 이 性質이 그 特殊한 長點을 이루는 것으로 指摘되고 있는 것은 奇妙한 일이다.』 David Ricardo, *Principles*, p. 39.

을論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리카도」價值論의 再解釋으로서는 不正確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다음「새뮤얼슨」이 모든 財貨 또는 生産要素를 投下土地量으로 分解시킨 것도「리카도」의 見解가 아니며 도리어 그와 正面으로 對立되는 것이다. 「리카도」에 의하면 土地는 價值形成과는 無關하기 때문에 財貨의 價值를 投下土地量으로 分解한다는 것은 不當한 것이며 無意味한 것이다. 「새뮤얼슨」이 財貨의 價值를 投下土地量으로 分解한 것이 얼마나 虛構的인 것이라는 것은 간단한 推論으로서도 判明된다. 만일 投下土地量으로 價值를 測定한다면 그것은 面積으로 밖에 表示될 수 없다. 勞動集約的 또는 資本集約的 財貨, 예컨대 工藝品, 巨大한 工場機械, 汽車, 汽船등을 어떠한 土地面積으로 測定할 것인가? 내가 이 글을 쓰는 勞動은 어떠한 土地面積으로 表示하여야 하는가? 地球上의 土地面積은 有限하며, 그 質은 各異하며, 그 土地生産力도 相異하다. 價值를 投下土地量으로 測定하기 위하여 地球上의 모든 土地가 現在에 있어서 同質이며, 過去에 있어서도 똑 같이 同質이고, 單位面積의 土地는 原始時代부터 現在까지 同一量의 穀物만을 生産한다고 假定하는 것은 얼마나「넌센스」인가? 經濟學 내지 社會科學에서 分解 또는 歸屬시킬 수 있는 것은 그 源泉이 同一한 同質의 變數일 때 그것이 社會的 現實의 意味를 喪失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만이 可能한 것이다. 이것은 社會科學의 自明한 公理이다. 만일 우리가 이 範圍를 넘어 自然界의 모든 것을 分解한다면 우리는 地球上의 모든 財貨를「分子」(molecular)로 分解할 수 있으며 窮極의 으로는「原子」(atom)로 分解할 수 있다. 이것이야 말로 不變의 尺度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한 대의 汽車를 原子로 分解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떠한 經濟的 意味가 있겠는가?

「새뮤얼슨」이 財貨의 價值를 投下土地量으로 分解한 것은「리카도」의 理論과는 對立되는 것이며 그것은「새뮤얼슨」의 恣意的인 것이지「리카도」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새뮤얼슨」의 觀念의 遊戲이며, 어떠한 現實의 意味도 內包하고 있지 않는 非實際的 空想이다. 따라서 經濟學에서의 分析用具로써「投下土地量」에 의한 價值의 測定은 全然 成立하지 않는 것이다.

4) 다음 地代는 計算尺度(numéraire)로 使用할 수 있는가? 「새뮤얼슨」은「리카도」經濟學에 있어서 地代가 價值構成의 主要한 部分일 뿐만 아니라, 總生産物 또는 富의 增減의 尺度라고 解釋하고 第4圖와 같은 圖表를 그리고 있다. 즉 勞動費用은 賃金生存費說에 의하여 固定되어 있으므로 地代의 增減만이 總生産物의 增減의 原因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리카도」生存時의「말더스」의 見解를 방불케 한다. 그러나「리카도」에 있어서는 地代는 價值

의 構成要因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 아니라 富의 原因으로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119)

따라서 價値 및 富의 決定要因이 아닌 地代를 「새뮤얼슨」이 價値測定の 計算尺度로 使用한 것은 「리카도」에 根據를 두는 限 成立할 수 없는 것이다.

「새뮤얼슨」이 土地를 價値의 創造者라고 解釋하고 財貨의 價値를 直接・間接의 投下土地量으로 分解한 것이나 地代를 相對價格測定の 計算尺度로 使用한 것이 모두 「리카도」의 理論이 아니며 그것과 矛盾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카도」經濟學에 있어서는 「새뮤얼슨」의 다음의 方程式은 成立할 수 없는 것이다.

$$\left. \begin{aligned} p_1/r &= b_1(1-c_1a_1)^{-1} \\ w/r &= c_1b_1(1-c_1a_1)^{-1} \end{aligned} \right\} \dots\dots\dots(8) \text{式의 一部}$$

$$\left. \begin{aligned} p_1/r &= b_1(1-c_1a_1)^{-1} = b_1[1+c_1a_1+(c_1a_1)^2+\dots\dots+(c_1a_1)^n+\dots\dots] \\ &= b_1+b_1(c_1a_1)+b_1(c_1a_1)^2+\dots\dots b_1(c_1a_1)^n+\dots\dots \end{aligned} \right\} \dots\dots\dots(9) \text{式}$$

$$w/r = (\sum c_j b_j)(1-\sum c_j a_j)^{-1} \dots\dots\dots(11) \text{式의 一部}$$

$$\left. \begin{aligned} w/r &= (\sum c_j b_j)(1-\sum c_j a_j)^{-1} \\ p_1/r &= (\sum c_j b_j)(1-\sum c_j a_j)^{-1} a_1 + b_1 \\ \vdots \\ p_n/r &= (\sum c_j b_j)(1-\sum c_j a_j)^{-1} a_n + b_n \end{aligned} \right\} \dots\dots\dots(12) \text{式}$$

$$p_1/r Y_1 + p_2/r Y_2 + \dots\dots p_n/r Y_n = L \dots\dots\dots(13) \text{式}$$

$$p_1/r Y_1 + p_2/r Y_2 + p_3/r Y_3 = L \dots\dots\dots(23) \text{式}$$

위의 諸方程式이 「리카도」에 의하여 成立할 수 없다면, 새뮤얼슨의 「리카도 土地價値說」은 成立되지 않는 것이다.

5) 「새뮤얼슨」의 「리카도 土地價値說」이 「리카도」經濟學을 얼마나 歪曲한 것인가 하는 點은 「리카도」가 當時의 實踐의 經濟問題에 當面했을 때 어떠한 立場을 取하였는가를 考察하면 더 論難할 餘地없이 明白하여진다. 만일 「리카도」가 「土地價値說」을 主張하였다면 또는 「리카도」經濟學에 土地價値說이 內包되어 있다면, 當然한 論理的 歸結로 「리카도」는 地代를 土地의 價値 創造力에 대한 應分の 報酬로 規定했을 것이고 地主를 그가 所有한 土地의 使用에 대한 正當한 報酬를 받은 階級으로 看做하였을 것이다. 즉 「리카도」는 「새뮤얼슨」이 指摘한 바와 같이 根本的으로는 重農主義의 立場을 取했을 것이다. 그러나 「리카도」의 經濟學

(119) 「리카도」는 「말더스」를 批判한 「시스몽디」와 「부캐난」이 正當하다는 것을 指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시스몽디」氏와 「부캐난」氏가——兩見解는 本質적으로 同一한 것이기 때문에——地代를 純전히 名目的인 價値이며, 國民의 富에 대한 何等の 附加을 形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地主에게만 有利하고 消費者에게는 比例的으로 有害한 價値의 移轉에 不過하다고 생각한 것은 正當하였다고 認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David Ricardo, *Principles*, p. 273.

과 그의 實踐的 活動은 當時의 모든 重農主義의 見解에 對하여 極度로 批判的이었다.

「리카도」經濟學, 특히 그의 價値論은 當時 穀物法 (Corn Law)를 둘러싸고 그의 論敵이었던 「말더스」와 論爭하는 가운데서 地主階級을 批判하고 產業資本의 利益을 擁護하는 理論으로 實踐的 過程에서 確立되었다. 「리카도」는 「말더스」가 地主階級の 利益을 代辯하여 穀物法制定을 贊成하는 一聯의 著作을 發表하여 『地代는 神이 人間에게 주신 恩惠이다』 『地代는 過去의 힘과 財能에 대한 報酬인 同時에 現在의 武勇과 叡智의 報酬이다』 『地代는 單純한 名目價値도 아니고, 또 一群의 사람들로부터 他群의 사람들에게 不必要하게 또 有害하게 移轉되는 하나의 價格도 아니며, 國民財産의 全價値의 가장 眞實하고 本質的인 部分이다』⁽¹²⁰⁾ 『地代가 全生産物에 對하여 어떠한 比率를 가진다 하더라도 現實의 額은 恒常 增大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하여 全大衆을 醇化하고 鼓舞하는데 充分한 社會의 享樂과 餘暇를 위한 基金을 恒常 提供하게 될 것이다』⁽¹²¹⁾ 라고 主張한데 대하여 前章에서 본 바와 같이 地代가 價値의 眞實한 構成要因도 아니며 富의 原因도 아님을 明白히 하고 差額地代論을 展開하면서 「말더스」를 激烈하게 批判하였다. 또한 「말더스」가 一般的 過剩生産을 우려하여 社會에는 財貨를 生産하거나 販賣하는 일에 從事하지 않고 다만 그것을 購入하고 消費만 하는 「支出에 對한 情熱」을 가진 不生産의 消費階級の 存在가 必要하다고 主張하면서 그 첫째가 바로 地主라고 하여 地主階級을 옹호하는 것을 尊嚴하게 批判하였다. 「리카도」에 있어서는 地主階級은 社會의 他階級이 苦痛을 받을 때 繁榮하는 非生産的인 有害한 階級이며, 그들이 받는 地代는 恒常 利潤의 減少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穀物法의 制定이 非生産的인 地主階級の 享樂에만 有利하고 다른 모든 階級 특히 產業資本家와 一般 消費者에게 全적으로 有害한 것이라고 하여 이의 廢止를 強力히 主張하였다.⁽¹²²⁾

「리카도」에 있어서는 國富의 增大와 經濟發展을 가져오는 것은 資本蓄積이며 資本蓄積은 주로 商工業者의 利潤을 上昇시키는 것은 國家의 增大와 經濟發展을 推進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利潤을 減少시키는 地代의 騰貴는 國富와 經濟發展에 有害한 것이라고 보고 그 自身 下院議員으로 나아가 穀物法廢止와 產業資本家의 利益을 옹호하기 위하여 活動하였다. 「리카도」의 「勞動價値說」은 社會의 總生産物이 各階級間에 어떠한 原理로 分配

(120) T. R. Malthus, *An Inquiry*, p. 15.

(121) T. R. Malthus, *Principles*, p. 216.

(122) 「말더스」가 非生産的 消費階級の 特殊한 役制은 『生産과 消費에 있어서 最大의 交換價値를 줄 수 있는 均衡을 維持함으로써 富의 生産에 대하여 獎勵를 주는데 있다』(T. R. Malthus, *Principles*, p. 413) 고 主張한데 대하여 憤慨한 「리카도」는 그러한 主張은 나의 집을 倒置하고 나의 財産을 埋沒시키는 地獄이 國民의 勤勞에 대하여 價値를 준다고 主張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까지 極烈하게 批判하고 있다. David Ricardo, *Note on Malthus*, p. 239.

되는가를 압힘으로써 地代의 騰貴가 國富의 增大에 有害한 것을 論證하여 地主階級에 反對하고 利潤의 上昇이 國富의 增大를 가져온다는 것을 論證하여 産業資本家の 利益을 위하여 展開된 것이었다. 이러한 意味에서 「리카도」는 産業資本의 理論闘士이었으며, 「리카도 勞動價値說」은 産業資本의 理論이었다.

「리카도」는 理論的으로나 實踐的으로나 極端的으로 反重農主義的이었으며, 反地主的이었으며, 「反土地價値說」的이었다. 만일 「리카도」가 再生하여 그의 150年後 新大陸의 一經濟學者가 地主階級에게 有利한 「리카도土地價値說」을 主張한 것을 읽는다면, 그는 이 後孫의 轉倒에 틀림없이 憤慨하였을 것이다.

6) 「새뮤얼슨」이 「리카도」經濟學과는 矛盾되는 그의 「리카도土地價値說」을 成立시킨 背後에는 그의 數學者로서의 獨特한 方法論의 差異가 놓여있다. 「리카도」經濟學을 再解釋함에 있어서 「새뮤얼슨」은 「리카도」가 한 일이 없는, 또 經濟現象에서는 할 수도 없는 「假定」(assumption)을 數學者답게 自由로 設定하고 있다. 예컨대 그는 「모든 土地가 同質的이라고 하면……」 「모든 勞動을 凝結된 穀物이라고 볼 수 있다면……」 「모든 勞動을 時間의 最初에까지 供給하는 土地投下量으로 볼 수 있다면……」 「賃금이 生存水準에서 固定되어 있다면……」 「利子率이 限界水準에서 固定된다면……」 「勞動이 長期的인 水平의 供給曲線을 갖는다면……」 등등 그의 理論에는 거의 모두가 假定으로 成立되어있다. 그러나 現實에 있어서는 土地는 肥沃度에 있어서 異質的이고 位置에 있어서 異質的이며, 經濟的有利性에 있어서 異質的이며, 過去와 現在에 있어서 時間的으로도 異質的이다. 「리카도」는 土地의 異質性이 一般的인 것이며 同質性은 오히려 例外的인 現實을 잘 認識하여 이것까지도 그의 理論에 吸收하였으며, 特定目的을 爲하여 非現實的 假定을 設定한 적은 없다. 또 「리카도」에 있어서는 모든 勞動을 凝結된 穀物이라고 본 일도 없다. 「리카도」는 穀物이 賃金의 主要部分이라고 恒常 생각하였으나, 社會의 進歩에 따라 더욱 더많은 富를 生産해 내는 生命을 가지고 活動하는 經濟主體인 人間의 勞動을 죽은 一定量의 穀物의 凝結이라고는 보지 않았다. 그는 「말더스」와 더불어 勞動=穀物은 말할 것도 없고 穀物을 勞動의 尺度라고 보는것 까지도 分明히 反對하였다.⁽¹²³⁾ 또한 「리카도」에 있어서는 모든 勞動을 投下土地量으로 分解할 수 있다고는 想像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리카도」에 있어서는 勞動은 再生

(123) 「리카도」는 이렇게 쓰고 있다. 「『아담 스미드』의 價値標準에 關한 「말더스」氏의 다음과 같은 觀察은 가장 正當하다. 「아담 스미드」는 ……穀物을 勞動의 尺度로 看做하는 그의 習慣으로 因하여 이 論脈에 誘導되었다. 그러나 穀物이 대단히 不正確한 勞動의 尺度라는 것은 우리나라 歷史 自體가 充分히 證明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勞動은 穀物에 比하여 每年뿐만이 아니라 世紀에서 世紀로, 또 10年 20年 30年間에 걸쳐서 顯著한 變動을 經驗하여 왔다는 것이 發見될 것이다.」 David Ricardo, *Principles*, p. 284.

產可能하지만 더 分解할 수는 없는 最初・最終의 唯一한 價値의 源泉이었다. 「리카도」가 勞動의 賃金이 生存水準에서 固定된다고 본 것은 極히 長期的으로 終局에 가서 發生할 原則的 傾向에 對해서 言及한 것이며, 「새뮤얼슨」과 같이 恒常的으로 生存水準에서 固定된다고 假定하지는 않았다. 「리카도」는 短期的, 一時的으로 賃金이 生存水準을 上廻하거나 下廻하는 것을 當然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것이 人口의 增減과 關聯된다고 생각하였다. 利率에 있어서도 極히 長期的으로 終局에 가서 資本蓄積이 過剩되고 利潤率에 零에 接近하여 蓄積動機가 없어질 때 最低限界에서 머물게 된다고 한 것이지 恒常的으로 限界水準에 있다고 한 것은 아니다.

7) 「새뮤얼슨」의 「리카도」經濟學 再解釋에서 또하나 注目해야 할 것은 「새뮤얼슨」이 地代以外的 모든 勞動・土地・穀物必要量・利率등을 常數 a, b, c, d 로 놓고 地代(r)만을 唯一한 獨立變數로, 價格(p)을 從屬變數로 取扱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리카도」에 있어서는 以上の 모든 것이 全部 變數이며, a 또는 b, c, d, r, w, p 가 各各 變動할 때 다른 것이 어떻게 그 影響을 받는가를 研究하는 것이 그의 價値論과 分配論의 課題이었다. 그러나 「새뮤얼슨」은 그의 目的을 위하여 다른 것은 모든 常數로 固定시키고, 地代(r)만을 變數로 取扱하고 있다. 다른 要因이 모두 常數이고 地代만이 獨立變數이라면 從屬變數인 價格(또는 그 實體로서의 總生産物)은 地代의 增減에 의하여 決定될 것은 너무나 明若觀火한 論理가 아닌가?

우리는 여기서 「새뮤얼슨」의 「리카도 土地價値說」은 「리카도」經濟學體系의 一部分이 아니라 그와는 전혀 別個의 「새뮤얼슨의 土地價値說」이라는 結論을 얻게 된다.

2. 「새뮤얼슨」의 貢獻

「새뮤얼슨」의 論文의 貢獻은 「리카도 土地價値說」의 發見에 있는 것이 아니라 部分的으로 「리카도」經濟學體系內에 共存하고 있는 諸矛盾을 다시 指摘한 事實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새뮤얼슨」은 「리카도」理論의 諸缺陷을 集約하여 逆用함으로써 「리카도」를 轉倒시키려다 失敗하기는 했지만, 「리카도」의 缺陷을 뚜렷히 浮刻시키는 效果는 發揮하였다. 그는 地代를 支拂하지 않는 自由로운 土地가 없음을 主張하여 「殘餘地代」를 論함으로써 「리카도」가 「絕對地代」를 看過한 것을 追窮하였고, 그의 「生存賃金」說이 長期的으로는 價格理論 및 勞動價値說과 矛盾된다는 것을 指摘하였다. 또한 「리카도」勞動價値說이 個別產業의 相對價格을 完全히 正確하게 測定할 수 없는 것임도 再確認시켰다.

또하나 「새뮤얼슨」의 論文을 읽고 切感케 하는 것은, 「새뮤얼슨」은 「리카도」를 再解釋한

다고 하면서 事實은 「말더스」를 近代의으로 再解釋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그가 設定한 諸假定은 「리카도」와는 전혀 다르지만 「말더스」와는 매우 近似하게 一致한다.⁽¹²⁴⁾ 그리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같은 傳統을 이어받은 古典學派內에서도 「리카도」와 「말더스」가 本質的으로 相互對立하고 있음을 切實히 느끼게 한다. 「리카도」와 「말더스」의 差異는 古典經濟學의 研究者들이 종종 생각하는 것 보다도 더욱 本質的인 差異點이 있음을 「새뮤엘슨」의 論文은 暗示해 주고 있다.

V. 結 語

「새뮤엘슨」이 「리카도」의 論理的 能力을 誇張되어 있다고 宣言하고 「리카도」經濟學 體系에서 「리카도 土地價值說」을 證明하려 한 것은 우리가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失敗한 것이며, 그의 獨斷에 不過하였다. 따라서 「리카도」에 대한 從來의 正統的 解釋은 아직 修正될 段階에 있지 않다는 結論을 내릴 수 있다.

「새뮤엘슨」은 經濟學의 確立者들을 古蹟을 巡禮하는 態度로 그의 數學的 方法을 使用하여 再解釋하고 「리카도」를 低評價하였다. 그러나 「리카도」經濟學이 실령 古蹟이라 할지라도(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지 않지만), 古蹟의 鑑賞에는 반드시 歷史的 觀察이 隨伴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리카도」의 巨大하고 優雅한 石造物에서 緻密하고 銳利하며 雄壯한 構成을 보고 感嘆하게 된다. 그가 비록 現代의 測量術을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時代의 制約에 不過하다. 뿐만 아니라 「리카도」는 產業資本의 發展이 要求되는 모든 地域에서 아직도 높은 現實的 意義를 가지고 있다. 「새뮤엘슨」의 評價와는 關係없이 「리카도」는 偉大하며 그의 經濟學은 不滅인 것이다.

〔筆者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專任講師〕

(124) 「말더스」의 다음의 句節을 읽을 때 더욱 이것을 切感케 한다. 『土地가 生活必需品을 生産한다고 하는 것, 食物 原料 및 勞働을 生産한다고 하는 것, 人口를 增加시키며 또한 維持시키기 위한 手段, 그것도 그 唯一의 手段을 生産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嚴密히 眞理이다.』 T. R. Malthus, *An Inquiry*, p. 11, *Principles*, p. 142.

<Summary>

Rent and Value in Classical Economics

—On Samuelson's Ricardian Land Theory of Value—

*Yong-Ha Shin**

What was the Ricardian theory of value? Ricardo himself stipulated, in the opening of his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tion*, that the value of a commodity or the quantity of any other commodity for which it will exchange depends on the relative quantity of labour which is necessary for its production, and not on the greater or less compensation which is paid for that labour. He meant to involve in the quantity of labour not only the direct labour but the indirect labour stored-up in capital. So it has been well known that Ricardian theory of value is the labour theory of value. According to the orthodox interpretation Ricardo was the eminent founder of such labour theory of value.

Professor Paul A. Samuelson gave, however, a different opinion on this subject. In his paper(1) "A Modern Treatment of Ricardian Economy," Professor Samuelson argued that the long-run Ricardian system involves the land theory of value. Samuelson said that basic difficulties for a labour theory of value come from the Ricardo's theory of differential rent as much as from problems of the organic composition of capital. By going to an extensive margin, one cannot really get rid of land as a factor of production and of rent as a determining element of cost and exchangeable value. For the extensive margin is itself a variable, to be determined like any other equilibrium variable as part of the theorist's explicit task.

According to Professor Samuelson, the use of mathematics can also produce some amusing conclusions. A long-run Ricardian system involving subsistence wages and homogeneous land, can have applied to it the sentence: "Labor is the cause and measure of exchangeable value," but with *labour* struck out and *land* put in its

* The author is instructor of economics, College of Commerce,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is also research member of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1)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February and May 1959.

place. Goods can be shown to be exchanged in proportion to their mathematically definable embodied land content, with land services providing us something like an invariable standard of value in terms of which absolute value can be measured with perfect accuracy. And all this holds regardless of inequalities in (i) the organic composition of capital, (ii) the time intensities of different processes, or (iii) the proportions of direct land used in different productive processes.

Thus, according to Samuelson, land is the measure and creator of all products in the long-run Ricardian system. Land is the source of wage's gross product, the source of total product, the source of rent's net product. Labour, to be sure, is needed as a co-operating input, being reproducible within the system, it can be regarded simply as congealed or embodied corn. Even this is an understatement; corn itself can be thought of as "congealed" or embodied land, and so labour too can be regarded in the last analysis as "embodied" land. Having demolished labour as an absolute standard of value, Samuelson can turn Ricardo upside down and find in Ricardo's long-run model a land theory of value.

How strange it sounds to the students who are disciplined in the orthodox tradition! We have many questions about Samuelson's modern treatment of Ricardo. Following are three major points that are important to reconsider Samuelson's Ricardian land theory of value.

(1) Ricardo himself had excluded the land as a component part of exchangeable value. For the nature is always gratis where she is munificently beneficent, and the land is the gift of nature, not the product of human being. His theory of value is to analyse economic phenomena from the point of pure social relations, excluding any kind of natural factor. Ricardo had a clear distinction of the properties of rich (or wealth) and value that he excluded the land services in the formation of value. He was convinced that land renders us rich by increasing the products, but does not increase the exchangeable value at all. Therefore, we cannot congeal the labour and capital into embodied land content.

(2) Ricardo had also excluded rent as a component part of price or value. Rent is not the cause of high price but the effect of it, and rent does not and

cannot enter in the least degree as a component part of its price. Therefore we can not take rent as a *numéraire* in any equation.

(3) If there are land theory of value in the long-run Ricardian system, Ricardo would protect rent and landlord. In fact, however, Ricardo had fought against the enactment of Corn Law and rise of rent rate for landlord. He convinced that the rent is unproductive and checks the social development. He was always standing on the side of industrial capitalist. He emphasized the oppositions of capitalists and landlords and was anxious that tendential fall of profit which he thought as foundation of social development, should occur while the unproductive rent should increase. In this connection how can it be accepted the validity of Samuelson's Ricardian land theory of value?